연구보고 2013-27

영유아 문화인프라 이용실태와 지원방안

이윤진 이정원 구자연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 리 말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생애초기단계인 영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어렸을 때 경험하거나 학습한 활동은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지속이론도 영유아기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 올해 출범한 새 정부는 4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문화융성'을 채택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문화예술교육사 파견 등 어렸을 때부터 문화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였다.

한편, 저출산 시대 속에서 창의인재 양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창의적인 환경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스스로 생각하고 탐색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필요하다.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어린이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의 비형식적인 문화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이유이다.

취약계층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한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놀이터에 주목하여 영유아기에 이러한 문화인프라를 이용하는 정도가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이를 토대로 모든 영유아들이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양질의 문화생활을 누리면서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시도가 우리사회에서 영유아 문화인프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바쁘신 가운데 본 연구에 참여해 주신 많은 전문가분들과 학부모님께 지면을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2013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 영**

차 례

요약 ····· 1

Ⅰ. 서론 ·····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1
2. 연구내용 ····· 13
3. 연구방법 ····· 14
4. 용어정의 ····· 22
5. 선행연구 ····· 23

Ⅱ. 연구의 배경 ····· 29
1. 문화인프라별 정책 개요 ····· 29
2. 어린이 문화인프라 설립 현황 ····· 41
3.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의 문화지원정책 ····· 54

Ⅲ. 국내·외 어린이 문화인프라 사례 ····· 59
1. 국내 어린이 문화인프라 사례 ····· 59
2. 국외 어린이 문화인프라 사례 ····· 74
3. 소결 ····· 81

Ⅳ. 가정에서의 문화인프라 이용실태 ····· 84
1. 응답가구의 자녀 및 부모 특성 ····· 84
2. 영유아의 문화인프라 최초 이용 경험 ····· 91
3. 영유아의 최근 1년 문화인프라 이용 현황 ····· 98
4.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문화인프라 이용 경험 ····· 113
5. 영유아기 문화인프라 이용 제고를 위한 학부모 의견 ····· 120
6. 소결 ····· 125

Ⅴ.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문화인프라 이용실태 ····· 128
1. 문화인프라 이용 현황 ····· 128
2. 영유아 문화인프라 이용 제고를 위한 기관장 의견 ····· 135

3. 소결 ····· 140

Ⅵ. 영유아기 문화인프라 이용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 142
1. 지원방향 ····· 142
2. 가구 지원방안 ····· 146
3. 어린이집·유치원 지원방안 ····· 149
4. 영유아 문화인프라 확충 지원방안 ····· 152
5. 영유아 문화인프라 운영 내실화 지원방안 ····· 154

참고문헌 ····· 157

Abstract ····· 161

부록 ····· 163
부록 1. 실태조사 질문지(부모용) ····· 165
부록 2. 실태조사 질문지(기관용) ····· 175
부록 3. 현장전문가 질문지 ····· 180
부록 4. 심층면담 질문지(부모용) ····· 183
부록 5. 시도별 문화인프라 설치 현황 ····· 187
부록 6. 가구 표본추출 ····· 188

표 차례

〈표 Ⅰ-3- 1〉 응답가구의 특성 ····· 16
〈표 Ⅰ-3- 2〉 가구대상 설문내용 ····· 17
〈표 Ⅰ-3- 3〉 어린이집·유치원 표집추출 ····· 18
〈표 Ⅰ-3- 4〉 응답기관의 특성 ····· 18
〈표 Ⅰ-3- 5〉 어린이집·유치원 대상 설문내용 ····· 19
〈표 Ⅰ-3- 6〉 연구참여자 명단 ····· 19
〈표 Ⅰ-3- 7〉 학부모 간담회 참여자 명단 ····· 20
〈표 Ⅰ-4- 1〉 용어정의 ····· 23
〈표 Ⅱ-1- 1〉 공공도서관 종류 ····· 32
〈표 Ⅱ-1- 2〉 공공도서관 추이(2005~2011) ····· 33
〈표 Ⅱ-1- 3〉 지역별·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현황 ····· 34
〈표 Ⅱ-1- 4〉 등록박물관·미술관 추이(2005~2011) ····· 36
〈표 Ⅱ-1- 5〉 지역별·설립주체별 박물관·미술관 현황 ····· 37
〈표 Ⅱ-1- 6〉 문예회관 추이(2005~2011) ····· 39
〈표 Ⅱ-1- 7〉 지역별 문예회관 현황 ····· 40
〈표 Ⅱ-2- 1〉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의 도서관 영유아 서비스의 목적 ····· 42
〈표 Ⅱ-2- 2〉 기적의도서관 현황 ····· 44
〈표 Ⅱ-2- 3〉 어린이도서관 추이(2006~2011) ····· 44
〈표 Ⅱ-2- 4〉 공공도서관 중 어린이도서관 증가율(2010. 12. 31 기준) ····· 45
〈표 Ⅱ-2- 5〉 지역별·설립주체별 어린이도서관 현황 ····· 45
〈표 Ⅱ-2- 6〉 어린이도서관의 영유아 프로그램 ····· 47
〈표 Ⅱ-2- 7〉 어린이박물관·미술관 현황 ····· 49
〈표 Ⅱ-2- 8〉 서울시 어린이놀이터 설치현황: 도시공원 내 vs 공동주택단지 내 ···· 51
〈표 Ⅱ-2- 9〉 어린이놀이터(어린이공원) 추이(2005~2011) ····· 52
〈표 Ⅱ-2-10〉 지역별 어린이놀이터(어린이공원) 수 및 영유아수 ····· 52
〈표 Ⅱ-2-11〉 서울 지역 어린이놀이터(어린이공원) 및 상상어린이공원 현황 ···· 53
〈표 Ⅱ-3- 1〉 북스타트 시행 지자체 현황(2008~2011) ····· 57
〈표 Ⅱ-3- 2〉 북스타트 꾸러미 지원 대상 영유아수 현황(2008~2011) ····· 57

〈표 Ⅲ-1- 1〉 Edu-Studio 공간 개요 ····· 70
〈표 Ⅲ-1- 2〉 Edu-Studio 정기교육프로그램 ····· 71
〈표 Ⅳ-1- 1〉 응답가구 자녀의 일반적 특성 ····· 84
〈표 Ⅳ-1- 2〉 응답가구 부모의 일반적 특성 ····· 86
〈표 Ⅳ-1- 3〉 부모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 ····· 87
〈표 Ⅳ-1- 4〉 부모의 문화시설 최초 이용 시기와 경험 정도 ····· 88
〈표 Ⅳ-1- 5〉 가구특성에 따른 부모의 문화시설 최초 이용 시기와 경험 정도 ··· 88
〈표 Ⅳ-1- 6〉 동년배(동세대)와 비교시 문화시설 이용 경험 정도 ····· 89
〈표 Ⅳ-1- 7〉 부모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이 자녀에 미치는 영향정도 ····· 90
〈표 Ⅳ-2- 1〉 영유아의 문화시설 종류별 이용 경험 ····· 91
〈표 Ⅳ-2- 2〉 가구특성별 문화시설 종류별 이용 경험 ····· 93
〈표 Ⅳ-2- 3〉 최초 이용 시기 ····· 95
〈표 Ⅳ-2- 4〉 가구특성별 문화시설 최초 이용 시기 ····· 96
〈표 Ⅳ-2- 5〉 문화시설의 최초 인지 경로 ····· 97
〈표 Ⅳ-2- 6〉 문화시설 선택시 가장 고려한 기준 ····· 98
〈표 Ⅳ-3- 1〉 문화시설 종류별 지난 1년 이용여부 ····· 99
〈표 Ⅳ-3- 2〉 문화시설 종류별 지난 1년 동안 미이용 이유 ····· 100
〈표 Ⅳ-3- 3〉 가구특성별 문화시설 종류별 지난 1년 이용여부 ····· 101
〈표 Ⅳ-3- 4〉 문화시설 종류별·가구특성별 지난 1년 미이용 이유 ····· 103
〈표 Ⅳ-3- 5〉 문화시설 종류별 지난 1년 동안 이용 횟수 ····· 104
〈표 Ⅳ-3- 6〉 문화시설 종류별 지난 1년 이용한 주된 교통수단 ····· 105
〈표 Ⅳ-3- 7〉 가구특성별 문화시설 종류별 지난 1년 이용한 주된 교통수단 ··· 106
〈표 Ⅳ-3- 8〉 지난 1년 동안 문화시설 이용을 위한 이동시간 ····· 107
〈표 Ⅳ-3- 9〉 지난 1년 동안 이용한 문화시설별 이용목적 ····· 109
〈표 Ⅳ-3-10〉 지난 1년 이용한 문화시설별 만족도 ····· 110
〈표 Ⅳ-3-11〉 가구특성별 지난 1년 이용한 문화시설별 만족도 ····· 110
〈표 Ⅳ-3-12〉 지난 1년 이용한 문화시설별 주된 만족 이유 ····· 111
〈표 Ⅳ-3-13〉 지난 1년 이용한 문화시설별 주된 불만족 이유 ····· 112
〈표 Ⅳ-4- 1〉 현재 이용하는 어린이집・유치원 ····· 113
〈표 Ⅳ-4- 2〉 지난 1년 기관에서 문화시설 이용 횟수 ····· 114
〈표 Ⅳ-4- 3〉 지난 1년 기관에서 이용한 문화시설 종류 ····· 115

〈표 Ⅳ-4-4〉 지난 1년 문화시설 이용 시 1회당 지불 비용 ····· 115
〈표 Ⅳ-4-5〉 지난 1년 이용한 문화시설 종류에 대한 의견 ····· 116
〈표 Ⅳ-4-6〉 지난 1년 이용한 문화시설 방문빈도에 대한 의견 ····· 117
〈표 Ⅳ-4-7〉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제공한 문화시설 정보가 가정에서 문화시설 선택 시 미치는 영향정도 ····· 118
〈표 Ⅳ-4-8〉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문화시설 이용 개선점(1순위) ····· 119
〈표 Ⅳ-4-9〉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문화시설 이용의 개선점(1+2순위) ····· 120
〈표 Ⅳ-5-1〉 영유아기 문화시설 이용 경험의 중요성 ····· 120
〈표 Ⅳ-5-2〉 영유아기 문화시설 이용 경험이 중요한 이유(1순위, 1+2순위) ····· 121
〈표 Ⅳ-5-3〉 문화시설 이용 제고를 위한 정책(1순위, 1+2순위) ····· 122
〈표 Ⅳ-5-4〉 문화시설 이용 제고를 위한 정책(1순위): 변인별 ····· 123
〈표 Ⅳ-5-5〉 현재 지역에서 설치가 필요한 문화시설(1순위, 1+2순위) ····· 123
〈표 Ⅳ-5-6〉 현재 지역에서 확충이 필요한 문화시설: 변인별 ····· 125
〈표 Ⅴ-1-1〉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에 위치한 문화시설(복수응답) ····· 128
〈표 Ⅴ-1-2〉 문화시설에 대한 정보습득 경로 ····· 129
〈표 Ⅴ-1-3〉 문화시설 방문이 어려운 이유(1순위) ····· 130
〈표 Ⅴ-1-4〉 문화시설 방문이 어려운 이유(1+2순위) ····· 131
〈표 Ⅴ-1-5〉 영유아의 발달을 위해 가장 필요한 문화시설 ····· 131
〈표 Ⅴ-1-6〉 영유아기 문화시설 체험의 필요성 ····· 132
〈표 Ⅴ-1-7〉 영유아기 문화시설 이용 경험이 필요한 이유 ····· 133
〈표 Ⅴ-1-8〉 체험활동 및 현장학습을 위한 문화시설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 134
〈표 Ⅴ-1-9〉 체험활동 및 현장학습을 위한 문화시설 선택 시 고려사항(1+2순위) ····· 134
〈표 Ⅴ-2-1〉 영유아기의 문화시설 이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1순위) ····· 135
〈표 Ⅴ-2-2〉 영유아기의 문화시설 이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1+2순위) ··· 136
〈표 Ⅴ-2-3〉 지역규모별 영유아기의 문화시설 이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1순위) ····· 136
〈표 Ⅴ-2-4〉 소재 지역에 가장 확충이 필요한 문화시설 ····· 137
〈표 Ⅴ-2-5〉 지역규모별 소재 지역에 가장 확충이 필요한 문화시설(1순위) ····· 138
〈표 Ⅴ-2-6〉 문화예술교육사 파견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 138
〈표 Ⅴ-2-7〉 문화교육예술교육사를 파견 정책에 대한 의견 ····· 139

그림 차례

〔그림 Ⅰ-3- 1〕 연구수행체계 ····· 21
〔그림 Ⅱ-1- 1〕 공공도서관 수 및 1관당 인구수 추이(2005~2011) ····· 33
〔그림 Ⅱ-1- 2〕 등록박물관 수 및 1관당 인구수 추이(2005~2011) ····· 36
〔그림 Ⅱ-1- 3〕 등록미술관 수 및 1관당 인구수 추이(2005~2011) ····· 37
〔그림 Ⅱ-1- 4〕 문예회관 수 및 1관당 인구수 추이(2005~2011) ····· 40
〔그림 Ⅱ-2- 1〕 어린이도서관 설립추이(2006~2011) ····· 44
〔그림 Ⅱ-2- 2〕 지역별 어린이도서관 수 및 영유아수 ····· 46
〔그림 Ⅱ-2- 3〕 영유아수 대비 지역별 어린이놀이터(어린이공원) 수 ····· 53
〔그림 Ⅲ-1- 1〕 국립중앙도서관 조직도 ····· 61
〔그림 Ⅲ-1- 2〕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1층 시설 ····· 61
〔그림 Ⅲ-1- 3〕 순천 기적의도서관의 다양한 책읽기 모습들 ····· 63
〔그림 Ⅲ-1- 4〕 경기도 어린이박물관 1층 전시장 ····· 66
〔그림 Ⅲ-1- 5〕 경기도 어린이박물관 2층 전시장 ····· 66
〔그림 Ⅲ-1- 6〕 경기도 어린이박물관 3층 전시장 ····· 66
〔그림 Ⅲ-1- 7〕 국립중앙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의 어린이프로그램: 다문화꾸러미69
〔그림 Ⅲ-1- 8〕 강변상상어린이공원의 꽃게조합놀이대 ····· 73
〔그림 Ⅲ-1- 9〕 성동미소상상어린이공원의 비행기조합놀이대 ····· 73
〔그림 Ⅲ-1-10〕 광진구돌상상어린이공원의 공룡뼈터널 ····· 74
〔그림 Ⅲ-1-11〕 중곡해오름상상어린이공원의 우주공간조합놀이대 ····· 74
〔그림 Ⅲ-2- 1〕 영국 버밍엄중앙도서관 어린이센터 활동 사례 ····· 75
〔그림 Ⅲ-2- 2〕 프랑스 동그라미도서관 전경 ····· 76
〔그림 Ⅲ-2- 3〕 미국 브루클린 어린이박물관 전경 ····· 78
〔그림 Ⅲ-2- 4〕 일본 키즈 플라자 오사카 활동 사례 ····· 79
〔그림 Ⅲ-2- 5〕 호주 Skinners Playground ····· 79
〔그림 Ⅲ-2- 6〕 뉴질랜드 Kowhai Park ····· 80
〔그림 Ⅲ-2- 7〕 미국 Vanderbilt Playground ····· 81
〔그림 Ⅳ-2- 1〕 문화시설 종류별 최초 이용 경험(일반가구) ····· 93
〔그림 Ⅳ-2- 2〕 문화시설 종류별 최초 이용 경험(저소득 가구) ····· 94

〔그림 Ⅳ-2-3〕 최초 이용 시기 ····· 95
〔그림 Ⅳ-3-1〕 문화시설 종류별 지난 1년 이용여부 ····· 99
〔그림 Ⅳ-3-2〕 영유아의 문화시설 종류별 이용(일반가구) ····· 101
〔그림 Ⅳ-3-3〕 영유아의 문화시설 종류별 이용(저소득가구) ····· 102
〔그림 Ⅳ-3-4〕 지난 1년 문화시설 이용을 위한 이동시간 ····· 108

부록 표 차례

〔부록 표 6-1〕 일반가구 표본추출 ····· 188
〔부록 표 6-2〕 저소득가구 표본추출 ····· 188

부록 그림 차례

〔부록 그림 5-1〕 시도별 문화인프라 시설 현황 ····· 187

요 약

1. 서론

가.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영유아기부터 문화인프라 이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유아들의 문화시설 이용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되, '가구소득'에 따라 영유아들의 문화시설이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구, 어린이집·유치원, 문화인프라별로 지원방안을 도출함.

나. 연구방법

□ 문헌연구

- ○ 문화인프라 관련 정책, 법령 및 시설별 전국분포 현황 분석
- ○ 저소득층 또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지원정책 분석
- ○ 어린이 문화인프라 관련 정책, 법령 및 시설별 전국분포 현황 분석, 국내외 우수사례 고찰

□ 설문조사

- ○ 대상: 전국 단위의 가구 및 어린이집·유치원(이하, 기관)
- ○ 표본수: 가구 1,000사례(일반가구 800사례, 저소득 200사례[1])
  기관 500사례(어린이집 300사례, 유치원 200사례)
- ○ 조사기간: 2013년 8월 29일~9월 13일
- ○ 조사내용: 가구(응답가구·부모·자녀의 일반적 특성, 문화인프라 전반적 이용실태,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문화인프라 이용 실태, 부모의 문화인프라 이용경험, 영유아 문화인프라 이용의 필요성 및 요구), 기관(기관의 일반적 사항, 기관 주변의 도보가능한 문화인프라 종류 등 및 이용 실태, 영유아 문화인프라 이용 필요성 및 요구)

---

1) 최종유효표본 일반가구 782사례, 저소득가구 218사례임.

□ 현장전문가 자문회의: 어린이를 위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근무하는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문화인프라 이용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함. 또, 어린이집·유치원 원장을 대상으로 기관에서 이용하는 문화인프라에 대해 알아봄.

□ 학부모 간담회: 평소 영유아 자녀와 함께 문화생활을 자주 하는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설문지 문항 개발에 아이디어를 얻음.

□ 정책방안 협의회: 전문가 대상으로 조사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정책방안에 대한 타당성, 실효성 등을 협의함.

다. 용어정의

□ '문화인프라'는 문화기반시설 또는 문화시설과 동의어로 사용하며 '영유아 문화인프라'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어린이 도서관, 어린이 박물관, 어린이 미술관을 지칭하는 용어로 어린이 문화인프라와 동의어로 사용함.

□ 본고에서 다룬 문화인프라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그리고 어린이놀이터까지를 포함하며 이를 공공(재)적인 문화인프라함.

2. 문헌연구 분석 결과

가. 도서관/어린이도서관

□ '도서관법'에 의한 법정계획인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에 근거하여 OECD 선진국 수준의 공공도서관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3년까지 공공도서관 900개관(인구 5만명당 1관)을 목표로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1년 기준 전국의 공공도서관은 786개관이며 인구수 64,547명, 1인당 장서수는 1.49권임. 이는 미국(33,468명), 영국(13,589명), 독일(10,060명), 일본(39,813명) 등의 도서관 서비스가 우수한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열악한 수준임.

□ 공공도서관 중에서 어린이도서관이란 어린이(대개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를 위해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임.

○ ‘도서관법’에 따르면, 어린이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종류 중 하나로서 “공공도서관의 전체 열람석의 20%이상은 어린이를 위한 열람석으로 해야 한다”(도서관법 제3조 별표 1)고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이 규정은 어린이 열람석이 별도의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하지 않아서 공공도서관의 절반 정도는 별도의 어린이(열람)실을 운영하고 있음.

○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은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해 ‘도서관의 영유아 서비스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 어린이 전용도서관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기준 전국의 78개임. 공공도서관에서 어린이도서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786개 중 78개로 약 9.9%를 차지함.

○ 지역별 어린이도서관 현황을 보면, 경기도 26개, 서울 15개, 인천 11개로 가장 많으며 나머지 지역은 1~2개 정도만 설립되어 있음.

○ 국공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등이 있음. 특히, 2003년도 TV매체를 통해 설립되기 시작한 기적의 도서관은 우리사회의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수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됨.

○ 대부분의 어린이도서관은 영유아와 가족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도서관이 독서나 도서대출의 기능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족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음.

나. 박물관·미술관/어린이박물관·미술관

□ 1970년대 ‘1도(道) 1박물관’체계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으로 1984년 ‘박물관법’이 제정되었고, 1991년에는 이 법에 미술관을 포함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제정함.

□ 2011년 기준 전국의 등록박물관은 694개관 1관당 인구수는 73,104명이며 등록미술관은 154개관으로 1관당 인구수는 329,443명임.

○ 지역별 등록박물관 현황을 보면, 경기도 119개, 서울 106개, 강원도 69개순임. 인구 백만명당 박물관수를 보면, 제주도 95.46개로 가장 많고, 강원도 44.91개로 다음을 차지함.

○ 지역별 등록미술관 현황을 보면, 서울 33개, 경기 31개로 가장 많으며 울

산은 등록미술관이 1개도 없음. 인구 백만명당 미술관수를 보면, 제주도가 24.30개로 가장 많고, 등록미술관이 없는 울산을 제외한 전북 0.53개, 대구 0.80개로 가장 적은 지역으로 집계됨.

□ 미국어린이박물관협회(ACM)는 전통적 박물관이 비체험적 전시에 초점을 두었다면, 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의 호기심과 학습동기를 고양시키는 전시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적 학습기관이라 정의함.

○ 어린이박물관·미술관은 유물이 아닌 어린이가 중심이 되는 박물관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임. '만지지 마세요'(Don't Touch) → '만져보세요'(Please Touch) 발상의 전환을 꾀한 것인 어린이박물관·미술관임.

○ 국공립 박물관의 부속기관 혹은 부속실로 어린이박물관디 많이 생겨남. 전국적으로 약 20여개의 어린이박물관·미술관이 설립되어 있음. 최초의 국공립 어린이전용박물관은 2011년에 개관한 경기도 어린이박물관이며 2013년 5월에 서울시에서 서울상상나라를 건립함.

다. 문예회관

□ 문예회관의 개념(정의)과 기능을 규정한 독립된 법령은 없으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의거, 지자체가 건립한 공공시설로서 공연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복합문화예술시설이라 할 수 있음.

○ 대표적인 문예회관으로 국립극장과 세종문화회관이 있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문화예술활동이 중심이 되면서 'OO예술의 전당' 'OO아트센터' 이름으로 설립이 많이 됨.

□ 2011년 기준 전국의 문예회관은 209개관이며 1관당 인구수는 242,747명임.

○ 지역별 현황을 보면, 경기도 28개, 경상북도 24개 순으로 가장 많으며 대전은 2개로 가장 적음. 인구 백만명당 문예회관수는 강원도가 11.06개로 가장 높으며 서울과 경기도는 평균 4.12개에 미치지 못함.

라. 어린이놀이터

□ 어린이놀이터는 설립 근거법령에 따라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시설'로 구분함. 일반적으로 전자는 주택단지 내 놀이터, 후자는 아파트단지 내 놀이터

를 의미함.

○ 서울시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의 낙후 지역의 오래된 어린이놀이터를 테마놀이공간으로 조성하는 서울상상어린이공원사업을 실시함.

□ 2011년 기준 전국의 어린이놀이터는 10,822개임. 경기도가 2,744개로 가장 많고 서울, 경북, 경남 순임. 영유아인구수 대비로 보면, 경기도와 서울은 적고 강원, 충남, 전남 등은 많음.

마.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의 문화지원정책

□ 국민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문화향유의 중요성이 부각됨. 모든 국민들이 문화향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는 문화 소외계층과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함.

○ 농산어촌 등 문화 취약지역의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취약계층 대상의 '문화바우처'(문화소외계층 1가구당 5만원 바우처 지급), 농산어촌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의 문화향유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찾아가는 어린이도서관',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찾아가는 미술관' 등의 이동식 문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3. 설문조사 분석 결과

가. 가구조사 결과

□ 영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 중 일반가구 782사례, 저소득가구 218사례 총 1,000사례 표집. 영유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연령이 많은 자녀 기준으로 응답함.

□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모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의 공공재적인 문화인프라 이용보다는 극장, 놀이공원, 사설 키즈카페와 같은 소비재적인 문화시설 이용 경험이 높았음.

○ 부모세대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 전체 도서관 87.6%, 박물관 79.5%, 미술관 56.0%에 비해 놀이공원 93.6%, 극장 94.6%로 많았음.

○ 영유아 자녀의 최근 1년 문화시설 이용 경험을 보면, 도서관 20.8%, 박물

관 16.7%, 미술관 6.0%, 문예회관 10.9%만이 이용함. 이에 비해 놀이공원은 60.5%, 사설 키즈카페는 44.0%, 수족관·동식물원은 47.1%가 이용함.

□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모두 가구소득에 따라 문화인프라 이용의 차이가 있음. 일반가구의 부모와 자녀 모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의 이용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음.

○ 저소득가구의 영유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문화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어린이놀이터는 가구소득을 불문하고 영유아의 대표적인 문화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가장 일찍 이용하고 가장 많이 이용함.

○ 73.6%가 만 1세 이전까지 놀이터를 이용했으며 77.4%가 한 달에 4회 이상 이용했다고 응답함.

○ 읍면지역에서 놀이터 설치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서 문화소외지역이라 할 수 있는 농산어촌에 창의적인 어린이놀이터 설치가 필요함.

□ 전반적으로 영유아 자녀를 위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 공공재적 문화인프라는 잘 이용하지 않고, 이용한다고 해도 1년에 1회나 2~5회가 대부분임. 문화인프라를 이용한 경우에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와서 계속 이용할 가능성이 높음.

○ 미이용 이유로는 문화인프라별로 차이는 있지만, '자녀가 어려서', '근처에 이용할 만한 시설이 없어서', '이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등임.

– 저소득 가구에서 '비용부담'으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음.

○ 이용을 많이 한 놀이공원, 사설 키즈카페, 수족관·동식물원의 이용 목적으로 '자녀의 놀이활동', '가족과 함께 시간보내기'가 주로 많이 나옴. 그러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재 문화시설 이용 목적에서는 이 항목의 응답이 낮았음.

– 영유아 대상 문화인프라는 영유아와 가족 모두가 해당 문화시설을 즐길 수 있어야 이용을 자주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영유아 문화인프라는 이런 점에서 기존의 문화시설과 특성이나 기능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

□ 학부모들은 문화시설 확충(20.4%)보다는 프로그램(25.5%)에 대한 요구가 더

많았음. 거주 지역에 가장 희망하는 문화인프라는 어린이도서관, 어린이박물관, 수족관·동식물원 순으로 나타남.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이 영유아와 가족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자녀가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유치원이 문화시설을 자주 이용하기를 바람.

○ 응답자 자녀의 70%이상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고 있으며, 이들 영유아들은 주중의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의 주요 관람객임.

나. 기관조사 결과

□ 기관 주변에 가장 많은 문화시설은 어린이놀이터로 나타남.

○ 읍면지역의 어린이집·유치원은 대·중소도시의 어린이집·유치원에 비해 '주변에 문화시설이 없다'는 응답이 4배 이상 많이 나옴.

□ 어린이집·유치원에서는 문화시설에 대한 정보를 주로 '인터넷 상의 해당 웹사이트 및 포털사이트를 통해(48%)' 얻고 있음.

○ 학부모들은 '지인 소개'를 통해 문화시설 정보를 알게 된 경우가 많았음.

□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문화시설 방문이 어려운 이유는 '접근이 용이한 인근 지역에 문화시설의 부재'(40.8%),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부족'(22.8%) 등을 꼽음.

□ 영유아기의 문화인프라 이용 제고를 위한 지원정책은 지역규모별로 달랐음.

○ 대도시의 어린이집·유치원의 경우 '문화시설의 프로그램 다양화 및 콘텐츠 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았던 반면,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 어린이집·유치원은 '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접근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

□ 기관이 소재한 지역에 가장 필요한 문화인프라로 '어린이도서관'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수족관/동·식물원, 어린이박물관, 어린이미술관 순임.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을 희망함.

4. 영유아 문화인프라 이용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가. 지원방향

□ 영유아의 문화인프라 이용 제고

□ 영유아기부터 공공 문화인프라 이용 제고

□ 가구소득별 문화인프라 이용 격차 해소

□ 지역규모별 문화인프라 이용 격차 해소

□ 문화인프라 종류별 설치 지원전략 차별화

나. 가구 지원방안

□ 전체 가구 지원방안

○ 기존 공공 문화인프라 적극적 홍보

○ 영유아 문화인프라 확충

– 미이용 이유로 '집근처에 없어서 이용하지 못함'이 많았음. 영유아 인구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영유아 문화인프라 설립이 필요함.

○ 문화인프라 내 영유아를 위한 시설과 공간 구비

– 어린이 전용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이용 만족도가 높게 나옴. 그러나 전용 시설을 설립하기가 여의치 않은 경우(본 조사에서는 문화시설 확충보다 프로그램 다양화를 더 희망함), 기존 문화인프라 내에서 공간을 활용할 것을 제안

○ 영유아와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자녀뿐 아니라 부모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저소득 가구 지원방안

○ 비용지원 확대

– 국립 문화인프라는 현재 무료 이용임. 이를 공립 문화인프라까지 확대 필요하며 영유아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가 문화시설 이용 시 관람료를 할인하는 등의 비용지원 필요

○ 문화바우처 가구원수별 비용 지원

– 현재 문화바우처는 가구당 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영유아 자녀 개인에게 사용하지 못할 수 있음. 따라서 가구원수에 따라 비용지원을 확대하고 영유아 자녀를 위해 사용한 문화시설 이용료는 포인트 적립식으로 누적하여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함.

○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확대

– 도시지역에서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제공을 가장 원했다면, 읍면지역에서 문화시설 확충에 대한 수요가 많이 나옴. 영유아 인구수를 고려해보면 시설 설립은 현실적이지 못할 수 있으므로 '찾아가는' 이동식 문화서비스 확대를 제안함.

다. 어린이집·유치원 지원방안

□ 영유아 단체관람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단체관람에 대한 비용지원

□ 누리과정과 연계한 기관과 문화시설 간의 프로그램 공동개발

□ 문화예술교육사를 기관으로 직접 파견보다는 교사교육을 통해 실시

○ 문화예술교육사가 영유아 발달에 대한 이해 없이는 효과적인 교육을 하기 어려움. 기관의 교사교육을 통한 간접교육 방식을 제안

□ 기관과 지역 문화인프라 파트너쉽 구축

○ 문화시설 견학을 현장학습 차원에서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관과 문화시설이 파트너쉽을 가지고 문화예술교육을 공동으로 만들어 나가는 프로젝트 사업 추진 필요

라. 영유아 문화인프라 확충 지원방안

□ 문화인프라 종류별 설립확충 지원방안

○ 어린이박물관

– 시도 단위에서 기본적으로 1개 설치, 영유아 인구가 많은 시·도는 수요조사를 통해 2개를 설치

○ 어린이도서관

- 영유아 인구가 많은 지역은 동·면 단위에서 기본적으로 1개는 설치

○ 어린이미술관

-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모두 이용이 가장 저조한 문화인프라임. 보다 적극적인 대중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미술관 내 영유아를 위한 독립된 공간을 설치, 다양한 미술(예술)프로그램을 제공

○ 어린이놀이터

- 영유아기의 가장 보편적인 문화시설이므로 영유아 인구가 적고 많음을 차치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책무감을 갖고 설치하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기업에서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놀이터를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안함.

○ 문예회관

-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이 가장 필요한 문화시설로서 영유아 자녀를 동반 시 비용지원 필요

마. 영유아 문화인프라 운영 내실화 지원방안

□ 관련 법령 정비

○ 혼재되어 있는 문화인프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유사한 문화인프라의 체계적인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 법령 정비가 필요

□ 문화인프라 내의 '영유아(어린이) 관련 부서' 설치

○ 영유아(어린이)관련 부서의 설치는 영유아(어린이) 관련 인력과 예산의 편성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으로 안정적 운영의 필수요건임.

□ 영유아 전문 문화예술교육사 양성·파견

○ 문화예술교육사(2급) 교육과정에 유아교육학, 아동학 전공 포함 제안

□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모형 개발

- 출생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모형 개발, 개인 생애 전반에 걸친 문화생활설계를 제공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3년에 출범한 새정부는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문화융성'을 설정하고 '소득, 지역, 세대 간 문화 향유와 참여수준의 격차 심화'[1]를 해소하기 위하여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정책을 수립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4-5).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정책은 지속이론(continuity theory)을 기초로 한다. 지속이론에 따르면, 문화(여가)활동은 학습된 행동으로 생애주기에 걸쳐 나타나는 계속적인 경험과 변화로서 생애초기에 학습한 문화활동은 전 생애에 걸쳐 문화활동의 내용과 성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윤소영 외, 2011: 6)는 게 주요 골자이다. 새정부의 문화복지정책은 생애초기단계의 문화경험이 평생의 문화생활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이론에 근거하여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라 해석할 수 있다.

문화생활에 있어서 영유아기의 중요성은 2012년『문화향수실태조사』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유아동기'의 문화예술 경험자는 이후 문화예술 관람율이 약 90%에 달했으나, 비경험자는 관람률이 60%로 낮았으며(문화체육관광부, 2012c: 40) 문화예술 공간 이용률도 유아동기의 경험자는 58.7%가 이용했지만, 비경험자는 36.0%에 그치는(문화체육관광부, 2012c: 66) 등 영유아기에 문화경험을 한 사람일수록 성인이 되어서도 문화향유를 더 많이 누리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012년『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 '가구소득'이 문화경험에 일관되게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문화예술 행사 관람율은 26.9%에 불과하지만, 월 500만원 이상은 83.5%(문화체육관광부, 2012c: 41)로 격차가 상당히 크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가구소득이 월 100만원 미만 가구는 도서관의 이용이 연 10.3회라면, 월 700만원 이상 가구는 19.5회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도서관 이용횟수도 높게 나타났다(백원

1) 이 중에서 소득에 따른 문화향유율이 가장 낮다(전체 평균 69.6%, 지역 52.7%, 연령 30.4%, 소득 26.9%; 문화체육관광부, 2013).

근 외, 2012: 169).

한편, 일반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놀이터,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과 같은 문화인프라의 구축 정도에 따라 어렸을 때부터 문화적 경험이 다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실제 어린이의 독서현황을 알아본 조사에서, '집에서 10분 거리에 공공도서관이 있는 경우'에 어린이의 독서량이 증가하는 등 도서관의 근접성에 따라 도서관 이용률이 2배 정도의 격차가 발생하였다(백원근 외, 2012: 53)는 연구결과는 문화인프라의 접근성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즉, '지역' 변인 역시, 앞서 살펴본 '영유아기'와 '가구소득' 변인처럼 문화생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문화기반시설이 많은 수도권의 시민들이 타 지역보다 문화경험 내지는 문화생활을 많이 할까?"라는 질문에 결론적으로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다. 남한 전체면적의 12%에 불과한 서울·경기도(수도권)에 공공도서관 35.4%, 박물관 32.4%, 미술관 41.6%, 문예회관 21.1%, 문화의 집 24.5%이 집중되어 있지만, 지역별 인구 백만명당 시설수로 환산해 보면, 제주 164개소, 강원 104개소, 전남 77개 순으로 서울 28개소, 경기도 31개소로 지역별 인구대비 문화시설은 지방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음(문화체육관광부, 2012a: 15)을 알 수 있다. 2012년『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도 문화행사 관람을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 72.5%, 중소도시 73.9%, 읍면지역 52.7%(문화체육관광부, 2012c: 41)로 중소도시 거주시민이 대도시 시민보다 좀 더 많이 문화생활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과 같이 문화예술 공간이용률에서 대도시 35.8%, 중소도시 45.5%, 읍면지역 36.1%(문화체육관광부, 2012c: 66)로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의 시민들이 대도시 시민보다 문화향유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요컨대, 문화시설이 많은 지역에 거주한다고 해서 반드시 문화생활을 더 많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문화인프라의 양적규모만으로 그 지역의 문화수준을 가늠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2] 이처럼 '지역' 변인은 '영유아기'와 '소득' 변인에 비해 영향력이 일관되지 않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가구소득이 높은 가정에서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문화경험을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어렸을 때부터 문화경험을 누린 아이들이 이후 문화생활을 향유할 경우가 높다고 정리할 수 있다. 저소득층 가정의 영유

2) 이는 문화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연구들에서 주로 다룬 주제로서, 본 연구의 Ⅰ장 5절 선행연구에서 고찰함.

아들은 거주지가 문화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이라 하더라도 양육자(부모 또는 보호자)가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문화생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가구소득과 문화향유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나 영유아기의 문화경험이 이후에 미치는 영향를 밝힌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취약계층연구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본 연구는[3] 영유아기의 아동들의 문화시설 이용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되 '가구소득'에 초점을 두고 고찰하였다. 즉,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 집단 간의 영유아 자녀의 문화경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영유아에게 문화경험을 제공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체로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주목하였다. 평소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4] 현장체험학습의 일환으로 문화시설을 방문, 체험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문화체험 현황과 개선점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가정, 유치원·어린이집, 문화인프라 등 대상별로 문화이용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생산한 기초자료들과 지원방안들은 생애초기단계부터 문화생활을 중시한 새 정부의 생애주기별 문화복지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내용

첫째, 우리나라의 문화인프라의 제 현황 및 문화기반시설 관련된 정책, 법제도, 전국의 설치·분포 현황을 고찰하였다.

둘째, 문화인프라 중에서 영유아를 포함하여 어린이(대개 초등학생까지) 대상의 문화기반시설의 설치 및 분포 현황 등을 고찰하였다.

셋째, 저소득층 또는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정책 및 소외계층 영유아를 포함한 어린이를 위한 문화지원정책을 고찰하였다.

넷째, 국내·외의 영유아를 포함한 어린이를 위한 문화정책이나 문화인프라에 관한 우수한 사례들을 발굴하고, 이에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3) 본 연구는 2013년 일반과제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방안 연구(V)」의 하위 과제임.

4) 영유아들이 일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전자는 평균 7시간 34분(표준편차 1시간 36분)이며 후자는 7시간 12분(표준편차 1시간 31분)으로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보고함(서문희 외, 2012).

다섯째, 영유아들의 문화인프라 이용 현황을 가구와 어린이집·유치원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주로 고찰한 내용은 문화인프라의 종류, 알게 된 경로, 이용 이유, 이용방법, 이용횟수, 이용의 어려운 점, 만족 및 불만족 정도, 개선점 등이다. 여섯째,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대상별—가정, 유치원·어린이집, 문화인프라—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첫째, 국내의 문화인프라 현황에 관한 통계, 정책, 법령자료 등을 수집, 분석한다. 문화시설별(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로 관련 자료들을 수집, 분석하며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한 문화정책 관련 자료들을 수집, 분석하였다.

둘째,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수집, 분석하되 수집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해서 문화인프라에 관한 연구동향을 전반적으로 고찰하였다. 예컨대, 영유아를 포함한 어린이 문화인프라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문화인프라의 설치 분포 및 현황 관련 연구를 분석하며, 현재 설치현황의 문제점과 과제 등을 고찰하였다.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 문화인프라의 이용 실태, 영유아를 포함한 어린이·청소년의 문화기반시설과 관련된 연구들을 수집, 분석, 정리하였다.

셋째, 국외 우수사례들을 발굴하기 위하여 문헌수집과 더불어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탑재되어 있는 자료들을 수집, 분석 정리하였다.

나. 가구 대상 설문조사

1) 목적 및 표집방법

영유아가 있는 일반가정 800사례(저소득층 가정 표집 가능)를 전국단위로 표집하여 문화인프라(문화기반시설) 이용 실태를 파악하였다. 표집틀은 주민등록 인구통계(2013년 5월)이며 일부 지역의 과소표집을 방지하고자 제곱근 비례배분 후, 다단계층화비례추출을 한다. 이 때 영아(만 1~2세)와 유아(만 3~5세)로 연령

을 구분하였으며 문화시설 경험이 거의 없는 만 1세 미만의 영아는 제외하고 영아 3 : 유아 7 비율로 나누어 임의할당하였다.[5] 조사기간은 8월 29일~9월13일(약 3주)이며 응답자는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부모로 한정했다. 일반가구 800사례 표집에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6])이 표집될 수 있겠으나, 저소득층 영유아 가정의 문화경험 실태를 심도 있게 비교·분석을 하기 위해서 저소득 영유아 가구 200사례를 과표집하였다. 저소득가구는 임의할당 표본추출방법으로 설계되었으며 표집틀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2011년)을 활용하였다.[7] 저소득가구의 표집은 각 시도별 어린이집/유치원이 단지내에 있는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주택/아파트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조사기간과 응답자는 일반가구와 동일하며 가구방문조사를 기본으로 영유아 밀집지역에서 Target sampling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전국의 영유아가 있는 가구 대상 조사의 응답가구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저소득가구가 21.8% 포함되어, 일반가구 782사례와 저소득가구 218사례의 총 1,000사례가 응답하였다. 응답가구의 특성을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Ⅰ-3-1>과 같다. 가구원수는 일반가구 평균 3.67명, 저소득가구 3.37명으로 비슷한 규모를 보였으나, 가구유형에 있어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에서 확대가족과 기타(한부모 가정)의 비율이 일반가구에 비해 높게 나왔다. 일반가구에서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형태가 대부분으로 94.1%를 차지하며, 조부모와 동거하는 3세대 이상 가구가 5.6%, 기타 가구 유형이 0.2%로 미미하였다. 이에 비해 저소득가구는 핵가족 형태는 80.3%로 비교적 적은 비중을 차지하며, 대신 한부모 등 '기타' 유형의 가족 형태가 11.5%로 일반가구의 60배 가까이 많았다.

지역적으로는 저소득가구가 읍면지역의 분포가 2.3%로 낮은데, 이는 본 연구에서 저소득가구의 표본 추출을 전국의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가구소득은 일반가구에서는 300만원~400만원 미만이 38.4%로 가장 많이 분포하나 저소득가구는 100~200만원 미만에 67.9%가 분포하여 가장

5) 영유아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6) 2013년 5월 13일을 기준으로 저소득층 가정 기준이 최저생계비 120%이하 계층에서 150%이하 계층으로 변경됨.

7) 현재로서는 기초생활수급자 현황만 알 수 있을 뿐,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 가구의 분포를 알 수 없음. 따라서 영유아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의 정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역별 비례배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지역별 유의할당을 실시함.

비중이 높았고, 100만원 미만도 22.9%로 일반가구에 비해 매우 높은 비중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 모두 어머니가 주양육자인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저소득 가구에서 아버지와 조부모가 주양육자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Ⅰ-3-1〉 응답가구의 특성

단위: %(명)

구분	일반가구	저소득 가구
전체	100.0(782)	100.0(218)
가구원수	평균 3.67명	3.37명
가구유형		
부부+자녀	94.1	80.3
(한)조부모+부모+자녀	5.6	8.2
기타(한부모 등)	0.2	11.5
지역규모		
대도시	44.8	43.6
중소도시	39.9	54.1
읍면지역	15.3	2.3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0.6	22.9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5.0	67.9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4.3	5.5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38.4	3.7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3.4	0.0
500만원 이상	8.4	0.0
주양육자		
어머니	94.8	91.3
아버지	1.8	4.1
조부모	2.6	4.1
기타 친인척	0.9	0.5

2) 설문내용

자녀 및 부모의 일반 현황, 지난 1년간(조사시점을 기준) 문화인프라(문화기반시설) 이용실태,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문화인프라 이용실태와 이에 대한 의견, 부모 자신의 문화인프라 이용경험, 영유아에게 문화인프라 필요성 및 요구 등에 대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로 면대면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Ⅰ-3-2〉 가구대상 설문내용

구분	질문항목
자녀의 일반현황	총 자녀수, 영유아 자녀수, 성별, 현재 이용기관
응답자(부모)의 일반현황	연령, 학력, 직업, 월소득, 가족형태, 현재 거주지역, 영유아기에 살았던 지역, 주양육자, 문화바우처 수혜 여부
문화인프라 이용실태	이용한 문화시설을 알게 된 경로, 최초 이용 시기, 지난 1년을 기준으로 문화시설별 이용여부, 이용 및 미이용 이유, 이용시 교통수단 및 소요시간, 만족도 정도, 만족 또는 불만족한 이유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문화인프라 이용 실태	(지난 1년 기준)현재 이용기관에서 문화인프라 이용 횟수, 가장 자주 이용하는 문화인프라 종류, 회당 지불비용, 이용 빈도, 기관에서의 이용한 문화인프라가 가정에서 문화시설 선택 시 미친 영향, 기관의 문화인프라 이용에 대한 개선점
부모의 문화인프라 이용경험	문화인프라 종류별 영유아기 이용 여부, 동세대과 비교해서 문화경험의 정도, 본인의 문화경험이 자녀의 문화경험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
영유아 문화인프라 이용 필요성 및 요구	영유아기 문화경험의 중요성 정도, 중요한 이유, 가정에서 문화인프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정책, 영유아에게 가장 필요한 문화인프라 종류 등

다. 어린이집·유치원 대상 설문조사

1) 목적 및 표집방법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현장체험학습의 일환으로 문화인프라(문화기반시설)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자 지역규모별로 다음 <표 Ⅰ-3-3>과 같이 500사례를 표집하여 기관장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로 전화조사 또는 Fax/E-mail 등 복합조사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8월 30일~9월 11일 약 2주간 진행되었으며, 응답자는 기관장(원장)으로 한정했다.

〈표 Ⅰ-3-3〉 어린이집·유치원 표집추출

단위: 개

지역규모	유치원		어린이집			계
	국공립	사립	국공립	민간	가정	
대도시	22	45	38	44	40	189
중소도시	18	35	23	33	31	140
읍면지역	60	20	39	28	24	171
계	100	100	100	105	95	500

본 연구에서 표집한 총 500사례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은 300사례, 유치원은 200사례가 표집되었는데, 설립유형별로는 민간어린이집 105사례, 국공립유치원 100사례, 사립유치원 100사례, 가정어린이집 95사례 순으로 표집되어 전체 표본의 80%를 차지하였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소재 지역은 대도시 37.8%, 읍면지역 34.2%, 중소도시 28.0% 순이었으며, 기관규모는 30~100인 미만 39.0%, 30인 미만 34.2%, 100인 이상 25.8% 순이었다. 기관규모는 정원아수 기준으로 30~100인 미만이 가장 많았고 30인 미만, 100인 이상 순이며 현원아 기준도 거의 동일하게 나왔다.

〈표 Ⅰ-3-4〉 응답기관의 특성

단위: %(명)

구분		계	구분	계
전체		100.0(500)		
기관유형			정원	
어린이집		60.0(300)	30인 미만	34.2(171)
유치원		40.0(200)	30~100인 미만	39.0(195)
설립유형			100인 이상	25.8(129)
어린이집	국/공립	10.2(51)	무응답	1.0(5)
	법인	9.8(49)	현원	
	가정	19.0(95)	30인 미만	39.4(197)
	민간	21.0(105)	30-100인 미만	39.6(198)
유치원	국/공립	20.0(100)	100인 이상	19.6(98)
	사립	20.0(100)	무응답	1.4(7)
지역규모				
대도시		37.8(189)		
중소도시		28.0(140)		
읍면지역		34.2(171)		

2) 설문내용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기관에서 문화인프라(문화기반시설) 이용 실태, 영유아기의 문화인프라의 필요성, 문화경험의 중요성, 문화인프라 이용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표 Ⅰ-3-5〉 어린이집·유치원 대상 설문내용

구분	질문항목
기관의 일반사항	설립 지역, 기관명, 기관종류 및 설립주체, 시설규모(원아 정원아수 및 현원아수)
기관에서의 문화인프라 이용 실태	도보로 가능한 거리의 문화인프라 종류, 문화인프라에 관한 정보처, 문화인프라 이용율 제고에 필요한 조건, 문화인프라 이용의 어려움 등
영유아 문화인프라 이용 필요성 및 요구	영유아에게 필요한 문화인프라 종류, 영유아기의 문화경험이 중요한 이유, 문화인프라 이용율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지원정책, 기관 주변에 가장 설치가 시급한 문화인프라 종류,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한 인지 및 의견 등

라. 현장전문가 면담조사

영유아를 포함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문화기반시설(중앙 또는 지자체 운영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현장 전문가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인프라 이용 실태와 더불어 운영 실태도 파악하였다. 또 어린이집·유치원의 기관장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기관에서의 문화인프라 이용 실태를 파악하였다.

〈표 Ⅰ-3-6〉 연구참여자 명단

구분	성별	소속	면담일자	주요 면담내용
1	여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2013.03.12	- 해당 문화인프라 설립 배경, 관람객 이용 및 운영 현황 - 영유아(어린이) 대상 운영 프로그램
2	여	경기도어린이박물관	2013.03.14	
3	남	책읽는사회문화재단	2013.03.19	
4	남	책읽는사회문화재단	2013.03.19	
5	여	순천 기적의도서관	2013.03.26	
6	남	순천시 도서관운영과	2013.03.26	

(표 Ⅰ-3-6 계속)

구분	성별	소속	면담일자	주요 면담내용
7	남	순천시 도서관운영과	2013.03.26	
8	남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2013.03.27	
9	여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2013.03.27	
10	여	국립현대미술관 어린이미술관	2013.04.09	
11	여	국립현대미술관 어린이미술관	2013.04.09	- 취약계층 영유아(어린이) 대상 문화서비스 - 향후 해당 문화인프라 확대방향 - 어린이 문화인프라 확대에 대한 의견 등
12	여	국립현대미술관 어린이미술관	2013.04.09	
13	남	어린이도서관문화재단	2013.04.19	
14	여	제천 기적의도서관	2013.06.10	
15	남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3.06.18	
16	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07.02	
17	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07.02	
18	여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2013.08.13	
19	남	한국토지주택공사	2013.08.20	* 사례 19, 20은 저소득층 영유아 자녀 표집을 위한 면담조사임
20	남	한국토지주택공사	2013.08.20	
21	남	서울특별시청 보육지원팀	2013.08.23	
22	남	서울상상나라	2013.08.30	
23	여	녹원유치원	2013.09.03	
24	여	회기동어린이집	2013.10.26	
25	여	경희유치원	2013.10.26	
26	여	서울특별시교육청어린이도서관	2013.11.22	

마. 학부모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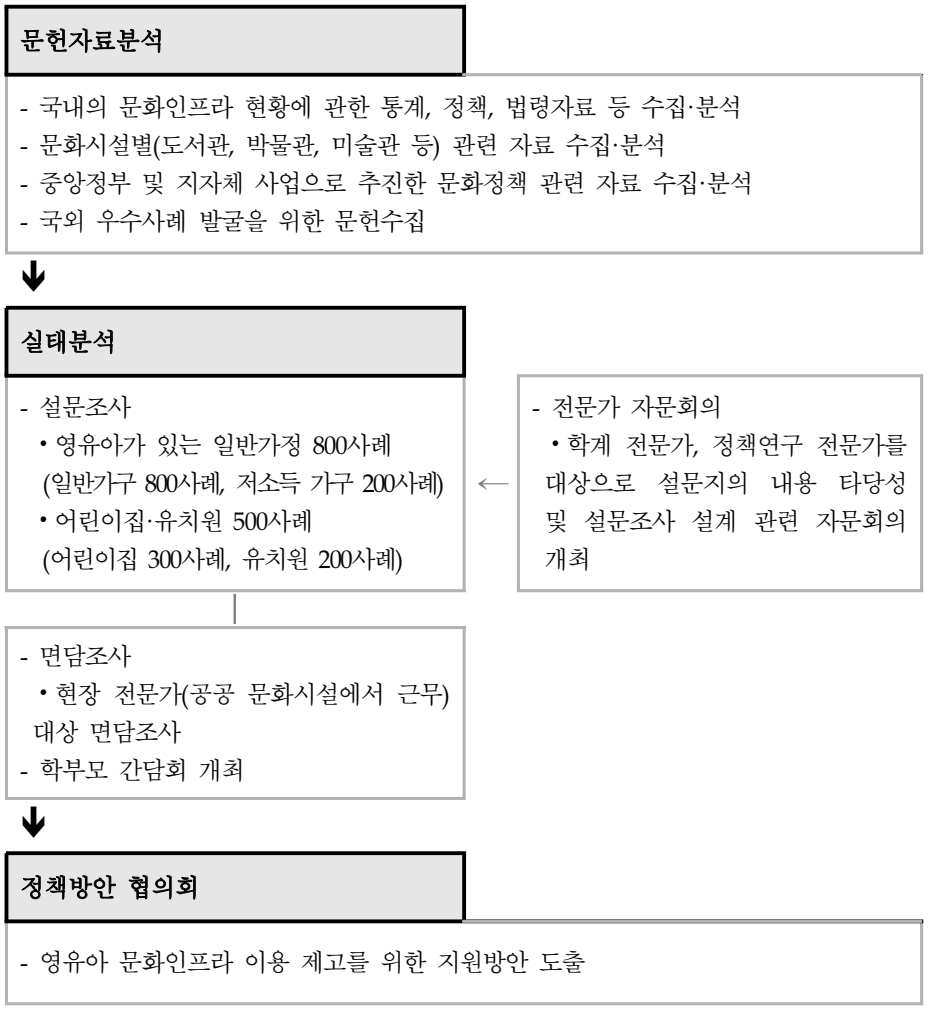
영유아 자녀가 있는 학부모 대상으로 문화인프라 이용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이들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통해 설문지 문항 개발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이들 학부모들은 서울시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이 가깝게 위치하는 등 문화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녀의 문화경험에도 관심이 높은 중산층 가정들이었다.

〈표 Ⅰ-3-7〉 학부모 간담회 참여자 명단

구분	자녀와 관계	연령	자녀수	학력	취업여부	면담일시
1	모	30대	1명	대졸	미취업	2013.04.29
2	모	30대	2명	대졸	미취업	
3	모	30대	2명	대졸	미취업	
4	모	40대	2명	대졸	영어강사(시간제)	
5	모	30대	1명	대학원졸	미취업	

바.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방안 협의회

문화정책을 연구해 온 학계 전문가 및 정책연구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지의 내용 타당성 및 설문조사 설계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다.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정책방안 협의회를 개최하여 정책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그림 Ⅰ-3-1］ 연구수행체계

4. 용어정의

본 연구에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한 주요 용어들에 대해 다음과 용어정의를 하였다.

첫째, 문화인프라에 대한 정의이다. '인프라'(infrastructure)의 사전적 의미는 "생산이나 생활의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구조물"로서 "도로, 항만, 철도, 발전소, 통신 시설 따위의 산업 기반과 학교, 병원, 상수·하수 처리 따위의 생활 기반이 있다"(네이버국어사전, 검색일: 2013년 6월)고 정의내리고 있다. 이러한 사전적 정의에 비추어 볼 때, '문화인프라'를 "문화산업이나 문화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는 구조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기초생활을 위한 문화인프라이므로 "문화생활에 초점에 둔 구조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여기서 구조물은 대개 건물, (기반)시설과 같은 하드웨어를 뜻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문화인프라는 문화생활을 위해 이용하는 문화기반시설 또는 문화시설로 정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문화인프라는 문화기반시설, 문화시설과 동의어로 사용하였다.

둘째, 문화인프라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였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3호에 문화시설로서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문화예술회관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매년 발간하는「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서는 문화기반시설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을 조사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시설이 조금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시설을 동의어로 사용하므로, 이 두 개 기준의 공통 시설인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을 문화인프라로 규정하였다. 한편, 설문지에는 극장, 놀이공원, 사설 키즈카페, 과학관/천체관, 수족관/동식물원을 문화시설로 넣었는데 학부모들은 이러한 시설을 문화시설로 인식하고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본고에서 정의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을 공공(재) 문화시설로 그 밖의 극장, 놀이공원, 사설 키즈카페, 과학관/천체관, 수족관/동·식물원을 소비(재)적 문화시설로 잠정적으로 범주화하였다. 조사결과 분석 시 이러한 개념틀로 고찰하였다. 과학관/천체관, 수족관/동·식물원을 소비(재)적 문화시설로 범주화한 것에 대해 무리가 있는 분류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나, 기존연구들에서 과학관/천체관, 수족관/동·식물원을 문화시설로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고전적인 문화시설로 간주하지 않았다.

셋째, 앞서 정한 문화인프라의 범주에 어린이놀이터를 추가한다. 영유아기는 감각운동을 통해 발달을 이루는 시기인 만큼, 감각운동을 발현하는 놀이는 영유아에게 결정적(critical) 활동이다. 따라서 놀이를 촉진할 수 있는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는 영유아기의 중요한 문화인프라이다. 국정과제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놀이터는 영유아의 일상생활과도 밀접한 일상 생활의 인프라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를 위한 문화인프라의 하나로 놀이터를 포함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 다룬 '영유아 문화인프라'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개 어린이 도서관, 어린이 박물관, 어린이 미술관처럼 어린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어린이는 영유아를 포함하여 초등학생까지를 포함하는 용어로서, 어린이 문화시설의 대부분은 영유아 대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처럼 어린이 및 어린이 문화시설은 영유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영유아 문화시설과 어린이 문화시설을 병행해서 사용하겠다.

〈표 Ⅰ-4-1〉 용어정의

용어	조작적 정의
문화인프라	문화기반시설, 문화시설과 동의어로 사용함.
문화인프라 종류	1. 매년 정부가 발간하는 전국 문화기반시설 종류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2. 문화예술진흥법에 명시된 문화시설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공연장 ※ 1, 2의 공통 시설(밑줄 친 시설)을 문화인프라 종류로 정하고 여기에 영유아의 특성 및 일상생활과 밀접한 어린이놀이터 포함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어린이놀이터
영유아 문화인프라	어린이도서관, 어린이박물관, 어린이미술관처럼 어린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문화인프라와 병행해서 사용함.

5. 선행연구

가. 문화향유실태 연구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부터 매 3년마다 '문화향수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국민의 문화향유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문화향유의 경로와 방식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전 국민의 문화향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매 3년마다 실시되는데 가장 최근으로는 2012년도에 조사가 실시되었다. 2012년도 조사에서 조사대상자들의 조사시점 기준 지난 1년간의 예술행사 관람률은 69.6%로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증가율로는 대중음악의 관람률의 증가율이 가장 컸다(문화체육관광부, 2012: 39).

이러한 관람율은 도시가 읍면지역보다 높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관람율이 높아 지역 인프라나 가구소득이 문화예술 향수의 주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이한 것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예술행사 관람율이 높으나, 문화바우처 사용자의 예술행사 관람율은 비사용자에 비해 약 6% 정도 높아서(문화체육관광부, 2012: 40~41) 소득수준이 낮더라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문화예술 향수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유·아동기에 문화예술교육경험이 있는 집단의 예술행사 관람율은 유아동기에 문화예술교육 경험 없는 집단에 비해 약 23% 정도 높고, 청소년기에 문화예술교육경험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역시 24% 이상 높아(문화체육관광부, 2012: 40~41) 성인기 이전의 문화예술교육경험이 성인기의 문화향수 행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예술행사 관람의 선택 기준은 무엇보다 '내용 및 수준'으로 관람비용보다 중요한 기준으로 나타났고, 향후 1년간 예술행사 관람의 장애요인으로도 시간부족이나 비용적인 측면보다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없음'의 응답률이 가장 높아(문화체육관광부, 2012c: 47) 국민들이 문화생활을 하는데 문화콘텐츠가 점점 중요해짐을 시사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는 무엇보다 어렸을 때의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이후의 교육경험이나 문화예술 향유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고,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어렸을 때부터의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많다는 상관관계가 대략적이나마 드러나고 있어 소득에 따른 문화예술교육과 경험의 격차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또한 반대로 '문화바우처'를 이용한 문화예술교육 경험률과 문화예술 관람율이 비사용자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문화격차를 감소시키고 문화형평성을 도모하는데 '문화바우처'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이경림은 '문화복지'라는 측면에서 문화바우처의 의의를 살펴보고 수급자격과 급여, 전달체계, 비용, 재원 등의 전반적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이경림, 2012). 이 연구에 따르면 '문화바우처'는 문화수요자를 위한 보조금 방식의 정책수단으로 소외계층의 문화수요자를 위해 문화접근성과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맞춤형 정책지원에 가까운 것으로(이경림, 2012: 11; 정광호·최병구, 2007에서 재인용), "경제적 진입장벽을 완화시킴으로써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저소득계층의 문화향유기회를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 개념화하고 있다(이경림, 2012: 11).

나. 문화기반시설 실태 관련 연구

문화복지가 문화정책의 핵심가치로 부각되던 1990년대 중반 문화친화적인 도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논의 속에서 임학순·양기호·장미진(1996)은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도시 문화환경 실태를 분석하고 문화시설의 설치를 촉진하는 방안과 문화친화적인 도시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도시 문화환경의 체계가 크게 문화인프라, 문화프로그램과 활동, 예술적 경관, 행정체제로 구성된다고 하면서, '문화인프라'는 "문화시설과 문화유산 등 문화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시설 및 자원"이라고 정의하고(임학순 외, 1996: 4), 특히 도시의 문화환경을 구성하는 요소 중 '문화시설'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였다(임학순 외, 1996: 3). 이 연구에서는 '문화시설'이 일반적으로 "문화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 및 공간"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기능'과 '소유 및 관리주체' 등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구분하고 있다. 문화시설의 '기능'은 크게 '공연', '전시', '문화예술 보급', '정보제공'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공연시설에는 공연법상의 공연장, 야외공연장, 기타 문화예술 공연이 가능한 시설, 영화관이나 극장이 해당된다. 전시시설로 대표적인 것은 박물관과 미술관, 전시실, 화랑, 조각공원, 과학관, 기념관이며, 도서관·향토사료관은 정보제공시설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문화보급시설로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의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등이 해당한다고 보았다(임학순 외, 1996: 6).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화시설의 기능적 분류와 개념정의와 함께 문화시설이 지니는 가치를 크게 '문화복지적 측면', '외부효과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임학순 외, 1996: 19-21).

문화복지적 관점에서의 문화시설은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복지시설이므로 생활권 단위의 지역사회 시설로 설치되어 지역주민

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공동체 형성을 위한 센터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문화시설은 도시의 문화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도시의 매력을 창출함으로써 도시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지역문화가 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 확립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됨으로써 지방자치의 토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 문화예술이 지역 내로의 투자 유도, 고용창출, 관광객유치, 소득증가 등 지역의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문화시설이 가질 수 있는 외부효과적 가치를 설명하였다(임학순 외, 1996: 21). 이 연구에서는 문화시설의 설치 실태를 도시개발과 연계하여 살펴보면서, 사례를 통해 도시 내 개발예정구역에 문화시설 설치를 계획에 포함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2001년도에 이루어진 '문화기반시설 중장기 확충 및 발전 방안 연구'(김세훈·김홍남·이용남·이철순·정창무, 2001)는 문화기반시설의 설치 현황을 지역별·시설별로 살펴보면서, 시설별로는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원단위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문화기반시설의 수요 측정에 있어서는 '시설공급의 우선순위'를 ① 문화시설 미설치 지역, ② 문화시설 설치 지역, ③ 효용성 기준의 세 가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김세훈 외, 2001: 63). 이 연구에서는 문화기반시설의 확충 방향은 첫째, 여전히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새로운 시설 건립, 둘째, 기존 문화시설의 현대화, 셋째, 기존의 시설들의 활용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접근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행정단위, 지역의 면적, 인구 등을 상호 비교해 시설에 따라 적합한 기준을 적용하되 두 가지 이상의 기준이 필요한 경우 그 기준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시설별로 확충 계획을 수립하되 지역별 배치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배치되도록 한다는 점, 시설공급의 우선순위는 시설의 설립, 미설립 및 효용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확충기준'을 제시하였다(김세훈 외, 2001: 102).

다. 영유아 관련 문화인프라에 관한 연구

영유아에 한정한 문화기반시설 실태나 향유 실태를 다루는 연구는 희소하다. 영유아와 관련해 문화기반시설의 실태를 살펴보는 것은 대체로 영유아가 자라나는 환경의 하나로서 지역사회의 문화적 기반이나 여가시설을 살펴보는 것으로서, 영유아 개인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영유아를 포함한 가족생활과 육아 환경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고 있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으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한국아동패널 연구'의 조사에서는 아동이 양육되는 환경의 하나로 '지역사회'를 다루고 있다. 2008년도 최초로 실시된 아동패널 조사 결과 2008년도에 출생한 아동이 있는 패널 가정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 내 놀이터, 공원, 산책로 등 공공여가 공간·시설 이용이 편리한지에 대한 질문에서 편리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7.3%이며 불편하다는 응답은 23.6%였다. 또한 박물관, 기념관, 미술관, 공연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이용의 편리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공공 여가공간, 시설로 분류된 인프라보다 불편하다는 응답이 크게 높아 56.1%에 달하였다(조복희 외, 2009: 141-142). 그러나 이 연구는 영유아를 위한 문화시설이 핵심 관심 주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문화시설을 모두 포함해 '이용 편리성' 위주로 질문하였고 이로 인해 어떠한 종류의 문화시설의 편리성이 가장 떨어지는지, 이용 편리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 정확한 실태와 수요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2000년대 이후 어린이박물관, 어린이미술관 등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한 문화인프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도 소수이나마 발견된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어린이'박물관 혹은 '어린이'미술관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이경희, 2010; 국성하, 2010; 이은미, 2012). 이경희의 연구(2010)에 따르면 '어린이박물관'은 아동의 발달적 욕구를 고려하여 체험적 전시를 연출하는 공간이어서,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구별되는 전통적인 박물관과는 달리 '어린이박물관'은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며 아동을 동반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한다(이경희, 2010: 10). 또한 세계적으로 어린이박물관 설립운동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동 수의 감소, 소규모 핵가족과 맞벌이 가족의 증가로 아동을 가족 내에서 돌보기 어려운 점, 조기교육과 질 높은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 점, 아동의 인권 존중과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일환으로 아동중심의 교육적 장을 마련하려는 점 등이라고(이경희, 2010: 37-38) 하고 있다.

국성하(2010: 70)는 1970년대 이후 박물관교육이 본격화되었고, 1990년대 이후 진행된 박물관 교육의 주 대상은 어린이로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수요층에 기반에 교육 대상이 변화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어린이박물관 설립은 2000년대에 이르러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 전시의 수요 증가로 인해 확대되었고 대부분의 어린이박물관이 공적인 철학과 목적에서 설립되었지만 몇몇 사립박물관은 상업주의적 시각에서 설립되었음을 지적한다(국성

하, 2010: 76).

어린이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아동관련 문화인프라에 관해서는 창의력 신장 등 이러한 인프라 활용을 통해 주요하게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편이다(강인애, 2012; 박상혜, 2012; 이미화 외, 2013; 이은미, 2012; 정혜연, 2012). 아동의 창의성 개발이 화두로 중시되고 있는 상황으로 어린이박물관이나 미술관, 도서관 등 어린이에게 맞는 콘텐츠와 환경을 보유한 체험 공간의 수요는 이러한 측면에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판단하건대 어린이 전용 문화인프라에 대한 수요와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영유아 문화인프라에 대해 시설종류별에 따른 개별적 논의를 넘어서는 전반적인 실태에 관한 연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Ⅱ. 연구의 배경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문화인프라로 범주화한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정책 변화와 설립 현황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1. 문화인프라별 정책 개요

가. 문화인프라 확충 정책 변천[8)]

우리나라에서 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관심이 문화정책의 중요한 영역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문화예술진흥법' 이 제정되던 1970년대 전후라 하겠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3차시기인 1970년대에 문화예술에 대하여 정부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1973년 3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설립되었다. 이듬해 1974년에는 1차 문예중흥 5개년개획(1974~1978)으로 문예진흥 중장기계획이 최초로 수립되었다. 이에 따라 문예진흥 기반조성을 위하여 문화활동과 관련된 조세혜택, 미술관 및 박물관 등의 제도개편 및 시설건립, 국내 예술창작활동 지원 및 해외 문화예술 교류사업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얻게 되었다.

1980년대 5공화국에서는 '문화의 창조와 발달'이 헌법 및 국정지표에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문화인프라의 확충과 예술창작의 지원에 정책초점이 맞춰졌다. 이 시기의 문화인프라 조성정책은 문화시설 건립의 큰 동력이 되었으며, 오늘날 지역의 대규모 종합공연시설인 문예회관은 주로 이 시기에 건립되었다.

1990년대의 문화정책은 1990년에 문화부가 설치되면서 본격화되었다. 문화부는 '문화발전10개년계획(1990~1999)'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문화환경의 조성'부분에서 문화시설의 대폭적인 확충과 시설개선, 시설의 과학적 운영과 기능의 다양화 정책을 제시하였다. 1998년에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새문화정책'을 발표하였고, 문화복지국가 구현을 위해 10대 중점과제 중 두 번째에 공립박물관·미술관

8) 이 부분은 이원태 외(2004). 전국문화기반시설 최소기준수립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의 pp. 9~26에서 일부 발췌함.

확충, 도서관 확충, 문예회관 확충, 1도 1미술관 건립 등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언급함으로써 시설 확충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었다(이원태 외, 2004: 16).

2003년에 출범한 참여정부는 '21세기 창의적 복지국가'를 표방하여 '관치에서 협치로(from government to governance)'로 생산적 파트너십을 통한 문화거버넌스를 지향하였다. 2003년 '문화비전 중장기 기본계획(2004~2008)'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사는 문화 한국 건설 - 자유롭고 여유있는 문화사회"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문화시설 확충보다는 전국적인 균형배치, 지역문화 역량제고 등에 방점을 둠으로써 시설자체보다는 지역 간의 고른 문화발전의 도모와 문화 낙후지역의 발전에 역점을 두었다. 한편, 200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에게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를 발급하여 공연, 영화, 전시, 음반, 도서 등 원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 실시하였다. 현재 1인 가구당 5만원(1년 기준)을 바우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2008년에 출범한 MB정부는 '품격 있는 문화국가'를 문화정책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문화인프라의 확충 측면을 보면,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의 건립 계획을 수립하였다. 국립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청사부지에 2012년에 개관하였으며, 과천으로 이전하는 기무사 부지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문화체육관광부, 2008: 40) 2013년 11월에 개관하였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란 국립 문화시설을 서울 도심 한복판에 건립함으로서 시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2008년도부터 국립박물관·미술관을 무료 개방하여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나. 도서관

1) 정책 변천

문화기반시설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것이 도서관이다. 해방 이후 도서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은 1963년 '도서관법'을 제정하면서 비로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나 1960~1970년대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그다지 큰 정책적 관심을 끌지는 못하였다. 그러다가 1987년, 1991년, 1994년 도서관법의 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도서관 발전 방안들이 모색되었다(이원태 외, 2004: 9). 정부의 최근 도서관 정책은 '도서관법'에 의한 법정계획인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2013)'에 근거하여 OECD 등 선진국 수준의 공공도서관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3년까지 공공도서관 900개관(인국 5만명당 1관)을 목표로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의 목적은 지역의 교육·문화 중심지이며 복합문화정보공간인 공공도서관을 확충하여 국민의 정보문화향수권을 신장하고 도농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수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총 건립비의 40% 범위 내에서, 농어촌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총 건립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16억원까지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지역특색에 맞는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중소형, 복합건물형태의 건립을 권장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공공도서관용으로 기존 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지원하기 시작하였고, 2011년 현재 786개 공공도서관(인구 약 6만 5천명당 1관 수준)이 운영 중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2a: 59).

2004년부터 문화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노후한 작은도서관을 리모델링하거나 공공건물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도서관을 조성하는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사업은 2011년 기준으로 총 445개관(정부지원 413개관, 기업후원 32개관)이 운영 중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2a: 59).

2) 법적 근거

도서관은 "도서관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도서관법 제2조 정의)로서,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 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도서관법 제1조 목적)이라고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이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도서관법 제2조 정의). 공공도서관에는 정부가 설립한 도서관뿐 아니라 법인, 단체, 개인이 설립한 사립도서관도 포함한다.

공공도서관 = 공립 공공도서관 + 사립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의 종류로는 작은도서관, 장애인도서관,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이 있다(도서관법 제2조 4항).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이라는 도서관의 목적에 공공도서관 내에는 어린이 열람석을 설치해야 한다는 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도서관법 제3조 별표 1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의 전체 열람석의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를 위한 열람석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어린이 열람석이 별도의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어린이와 성인이 같은 공간을 이용하더라도 열람석 비율이 20%이상이 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린이와 성인이 동일한 공간을 이용할 경우, 양자 모두에게 불편하기 때문에 공공도서관 가운데 절반 정도에서는 별도의 어린이(열람)실을 운영하고 있다(조현성, 2006: 8).

〈표 II-1-1〉 공공도서관 종류

종류	내용
작은도서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 도서관
장애인도서관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병원도서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병영도서관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병영 내 장병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교도소도서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도소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

자료: 도서관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검색일: 2013년 4월)

3) 공공도서관 설립 현황

전국의 공공도서관은 786개관이며, 1관당 인구수는 64,547명이고, 1인당 장서수는 1.49권이다(2011년 12월말 기준). 공공도서관은 전년도에 비해 27개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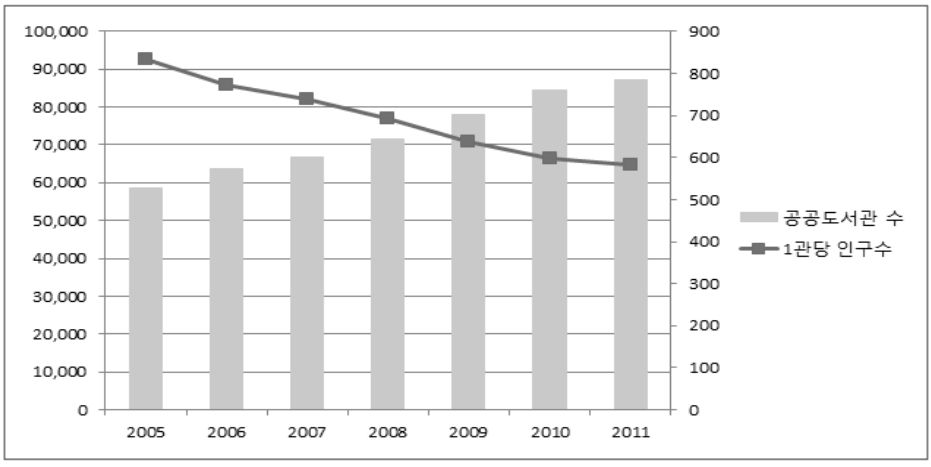
하였으며, 1관당 인구수는 2,008명이 감소하였고, 1인당 장서수도 0.09권 증가하였다.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정부의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확대 등으로 인해 2004년 이후 공공도서관 건립이 꾸준히 증가하여 1관당 인구수가 낮아지고 있으나 미국(33,468명), 영국(13,589명), 독일(10,060명), 일본(39,813명) 등의 서비스가 우수한 주요 국가들의 공공도서관 1관당 인구수보다 1.6~6.4배 많은 인구를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 도서관 인프라는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

〈표 Ⅱ-1-2〉 공공도서관 추이(2005~2011)

단위: 개관, 명, 권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공공도서관	526	572	600	644	703	759	786
1관당 인구수	92,741	85,649	82,114	76,926	70,801	66,555	64,547
1인당 장서수	0.94	1.01	1.08	1.16	1.31	1.40	1.49

주: 1관당 인구수는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의 해당 연도 총인구수를 참고하여 계산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2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p. 14.



〔그림 Ⅱ-1-1〕 공공도서관 수 및 1관당 인구수 추이(2005~2011)

지역별 도서관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169개, 서울 109개, 경상북도 60개 순으로 도서관이 많은 반면, 도서관이 가장 적은 지역은 울산으로 11개의 도서관이 있다. 설립주체별로는 전체 786개관 중 지방자체단체 도서관이 534개, 교육

청도서관이 232개, 사립도서관이 20개를 차지하고 있다. 도서관이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90%가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며, 6%가 교육청 소속이고, 4%가 사립도서관이다. 인구 백만명당 도서관수를 살펴보면, 제주도가 36.45개로 가장 많고 부산이 8.73개로 가장 적다.

〈표 II-1-3〉 지역별·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현황

단위: 개관

시도명	공공도서관				인구 백만명당 공공도서관 수
	지자체	교육청	사립	계	
계	534	232	20	786	15.49
서울	83	22	4	109	10.63
부산	15	14	2	31	8.73
대구	10	12	5	27	10.77
인천	23	8	0	31	11.07
광주	11	5	0	16	10.93
대전	20	2	0	22	14.52
울산	7	4	0	11	9.69
경기	152	11	6	169	14.16
강원	24	22	1	47	30.59
충북	17	15	0	32	20.47
충남	31	20	0	51	24.27
전북	28	18	1	47	25.08
전남	36	21	0	57	29.78
경북	31	28	1	60	22.23
경남	31	24	0	55	16.62
제주	15	6	0	21	36.4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2a). 2012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p. 3, p. 16.

다. 박물관·미술관

1) 정책 변천

해방이후 국립박물관 체계로 발전하기 시작한 박물관은 1973년 '문화발전 5개년계획' 수립과 이를 근거로 한 1974년 '문예중흥장기계획사업'의 입안에 기초하여 전국적인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설립하기 시작하였고, '1도(道) 1박물관'체

계를 갖추어 나갔다. 박물관의 설립이 늘어나고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정부는 1984년 '박물관법'을 제정하여 법적, 제도적인 차원에서 박물관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1991년에는 동법에 미술관을 포함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제정함으로서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실시하게 되었다.

2) 법적 근거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미술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미술관은 박물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박물관·미술관은 설립주체에 따라 국립, 공립, 사립, 대학 박물관으로 분류된다. 현재 국립박물관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있다. 국립박물관의 직무와 조직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공립박물관 직무와 조직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지는데, 서울역사박물관,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그 근거가 있으며,[9]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부산광역시립미술관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그 근거가 있다.[10]

다양한 법적 근거를 가지는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수목원 등은 국립과 공립의 경우 그 직무와 조직에서 이를 관할하는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며 그 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등으로 기능하고 있다.

---

9)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2013.10.4.] [서울특별시조례 제5565호, 2013.10.4., 일부개정]

10)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13.7.31.] [부산광역시조례 제4908호, 2013.7.31., 일부개정]

3) 박물관·미술관 설립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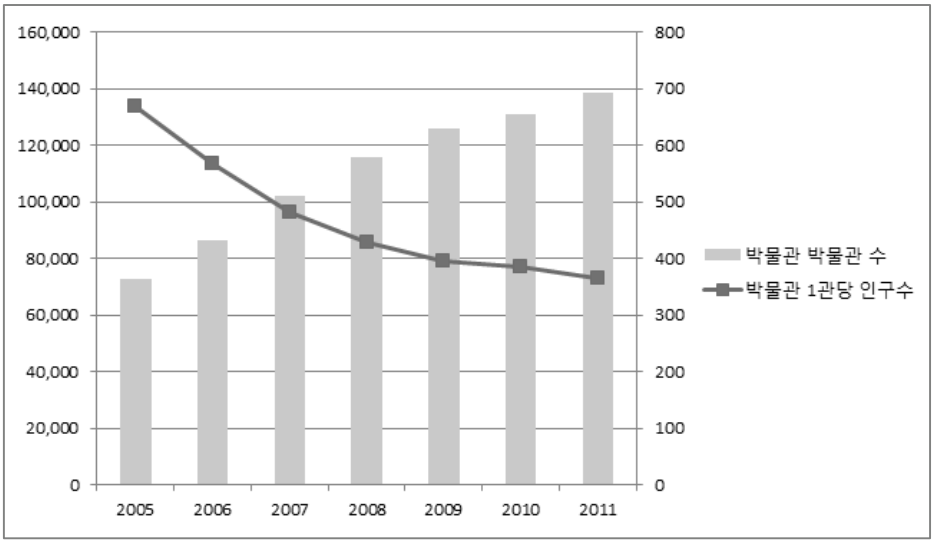
전국의 등록박물관은 694개관으로 1관당 인구수는 73,104명이며, 등록미술관은 154개관으로 1관당 인구수는 329,443명이다(2011년 12월말 기준). 전년도에 비해 등록박물관은 39개관 증가하였고 1관당 인구수는 4,019명 감소하였으며, 등록미술관은 9개관 증가하였고 1관당 인구수는 18,940명 감소하였다.

〈표 II-1-4〉 등록박물관·미술관 추이(2005~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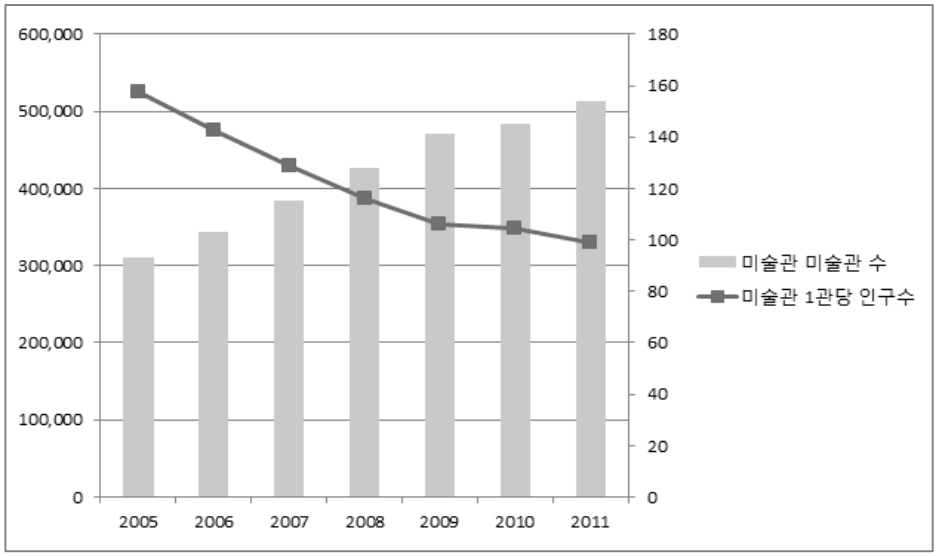
단위: 개관, 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박물관	박물관 수	364	431	511	579	630	655	694
	1관당 인구수	134,017	113,670	96,416	85,561	79,004	77,123	73,104
미술관	미술관 수	93	103	115	128	141	145	154
	1관당 인구수	524,540	475,648	428,425	387,034	353,001	348,383	329,443

주: 1관당 인구수는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의 해당 연도 총인구수를 참고하여 계산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2a). 2012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p. 14.



〔그림 II-1-2〕 등록박물관 수 및 1관당 인구수 추이(2005~2011)



〔그림 Ⅱ-1-3〕 등록미술관 수 및 1관당 인구수 추이(2005~2011)

다음의 〈표 Ⅱ-1-5〉에서 지역별 등록박물관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에 119개, 서울에 106개, 강원도에 69개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설립주체별로는 전체 694개관 중 국공립 박물관이 342개, 사립 박물관이 262개, 대학 박물관이 90개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 백만명당 등록박물관 수를 살펴보면, 제주도가 95.46개로 가장 많고 그 뒤로 강원도가 44.91개인 반면 부산이 3.38개로 가장 적다.

〈표 Ⅱ-1-5〉 지역별·설립주체별 박물관·미술관 현황

단위: 개관

시도명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인구 백만명당 박물관수	인구 백만명당 미술관수
	국공립	사립	대학	소계	국공립	사립	대학	소계		
전체	342	262	90	694	39	110	5	154	12.91	3.04
서울	20	63	23	106	2	29	2	33	10.34	3.22
부산	3	3	6	12	1	2	1	4	3.38	1.13
대구	5	5	3	13	1	0	1	2	5.18	0.80
인천	11	10	1	22	2	2	0	4	7.85	1.43
광주	5	1	2	8	1	5	1	7	5.47	4.78
대전	4	6	6	16	2	3	0	5	10.56	3.30
울산	7	1	1	9	0	0	0	0	7.93	0.00
경기	55	53	11	119	10	21	0	31	9.97	2.60

(표 Ⅱ-1-5 계속)

시도명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인구 백만명당 박물관수	인구 백만명당 미술관수
	국공립	사립	대학	소계	국공립	사립	대학	소계		
강원	43	21	5	69	3	6	0	9	44.91	5.86
충북	26	9	6	41	2	5	0	7	26.23	4.48
충남	26	14	3	43	0	7	0	7	20.46	3.33
전북	23	6	4	33	1	0	0	1	17.61	0.53
전남	27	8	2	37	3	13	0	16	19.33	8.36
경북	38	11	11	60	2	5	0	7	22.23	2.59
경남	33	13	5	51	3	4	0	7	15.41	2.12
제주	16	38	1	55	6	8	0	14	95.46	24.3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2a). 2012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p. 3, p. 16.

지역별 등록미술관 현황을 살펴보면 총 154개관 중 서울에 33개, 경기에 31개 순으로 많고, 울산은 등록미술관이 1개도 없다. 설립주체별로는 사립미술관이 110개로 전체의 71.4%를 차지하며, 국립미술관 1개관, 공립미술관 38개관, 대학미술관 5개관이 있다. 인구 백만명당 등록미술관 수를 살펴보면, 제주도가 24.30개로 가장 많은 반면, 등록미술관이 없는 울산을 제외하고 전라북도가 0.53개, 대구가 0.80개 순으로 적다(표 Ⅱ-1-5 참조).

라. 문화예술회관(문예회관)

1) 정책 변천

박물관·미술관이나 도서관에 비해 문화예술회관은 상대적으로 늦게 출발하였다. 대표적인 문예회관인 국립극장과 세종문화회관은 각각 1973년과 1978년에 설립되었다. 그러나 문예회관이 본격적으로 건립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이다. 1980년 제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문화의 창조와 발달이 국정지표의 하나로 등장하면서, 문화인프라의 확충과 예술창작 지원이 핵심정책으로 압축되었다. 이 중에서 문화인프라의 확충은 부족한 문화기반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이때부터 문화시설이 본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 시기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공간의 중앙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각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예술을 육성하기 위하여 각 직할시·도 단위로 최소 1개소 이상의 종합문예회관을 건립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1983년도부터 시·도 종합문예회관 건립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이원태 외, 2004: 9-10). 1990년대 이후에는 문화예술활동이 중심이 되면서

‘00예술의 전당’, ‘00아트센터’의 이름으로 설립이 많이 되었다.

2) 법적 근거

문예회관의 개념과 기능을 별도로 규정한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문화공간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공연시설의 공연장으로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의 대규모 종합공연장과 시·군·구 문화예술회관의 중규모 공연장으로 문예회관을 구분하고 있다(법령정보센터, 검색일 2013년 6월). 요컨대 문예회관은 지자체가 건립한 공공시설로서 공연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복합문화예술시설이라 하겠다(허은영 외, 2010: 13).

3) 문화예술회관 설립 현황

전국의 문예회관은 209개관으로 1관당 인구수는 242,747명이다(2011년 12월말 기준). 전년도에 비해 문예회관은 17개관 증가하였고 1관당 인구수는 20,355명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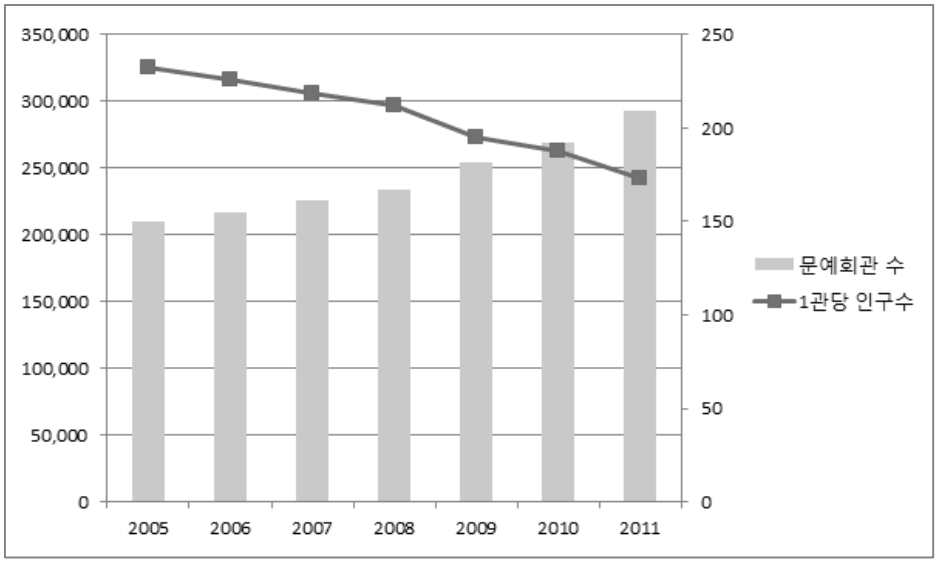
1997년부터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신장과 지방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공간 제공을 위해 지방 문예회관 건립비가 지원됨에 따라 문예회관은 1997년 83개관에서 2011년 209개관까지 매년 증가하였다.

〈표 II-1-6〉 문예회관 추이(2005~2011)

단위: 개관, 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문예회관	150	155	161	167	182	192	209
1관당 인구수	325,215	316,075	306,018	296,648	273,478	263,102	242,747

주: 1관당 인구수는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의 해당 연도 총인구수를 참고하여 계산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2a). 2012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p. 14



〔그림 Ⅱ-1-4〕 문예회관 수 및 1관당 인구수 추이(2005~2011)

다음의 〈표 Ⅱ-1-7〉에서 지역별 문예회관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28개, 경상북도 24개 순으로 문예회관이 많은 반면, 문예회관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대전으로 2개의 문예회관이 있다. 인구 백만명당 문예회관 수는 4.12개소를 기준으로 볼 때, 강원이 11.06개소로 가장 높으며 문예회관 수가 많은 서울과 경기는 평균에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1-7〉 지역별 문예회관 현황

단위: 개관

시도명	문예회관	인구 백만명당 문예회관 수
계	209	4.12
서울	16	1.56
부산	12	3.38
대구	9	3.59
인천	7	2.50
광주	6	4.10
대전	2	1.32
울산	4	3.52
경기	28	2.35
강원	17	11.06

(표 Ⅱ-1-7 계속)

시도명	문예회관	인구 백만명당 문예회관 수
충북	13	8.32
충남	16	7.61
전북	17	9.07
전남	17	8.88
경북	24	8.89
경남	18	5.44
제주	3	5.2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2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p. 3, p. 16.

4) 문화예술회관 이용 현황

문예회관 공연장 이용 전체 관람객에서 유료 관람객은 41.7%, 무료관람객이 58.3%로 무료관람객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으나(허은영 외, 2010: 22), 도서관, 박물관·미술관[11], 어린이놀이터의 이용 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문예회관의 이용 문턱은 공공문화시설로서 낮다고 보기 어렵다.

2. 어린이 문화인프라 설립 현황

영유아를 위한 문화인프라에 대한 관심과 실질적인 수요 증대는 곧 우리사회에서의 영유아의 위상 변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문화시설을 향유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영유아가 중요한 수요자로 떠오르면서 영유아를 위한 도서관, 박물관·미술관을 비롯한 다양한 공연, 놀이시설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가. 어린이도서관

1) 어린이도서관 설립의 필요성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이하, IFLA)과 유네스코(UNESCO)가 제시하는 공공도서관에서의 어린이를 위한 서비스 지침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자료와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어린

11) 국립박물관과 국립미술관은 2008년부터 무료 개방함. 이 장의 3절 참조.

이들에게 독서의 즐거움과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어린이들과 부모에게 도서관을 가장 잘 이용하는 방법과 인쇄 및 전자 매체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2001). 아울러 지침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어린이들을 도와주면 이후에도 꾸준히 도서관 이용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 IFLA에서는 또한, 전 세계 여러 국가의 공공도서관이 영유아 자녀를 둔 가족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영유아 서비스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영유아 서비스 지침에서는 어린이도서관의 사명, 영유아 서비스 목적, 영유아 서비스의 운영 방안 등 영유아 및 그 가족들을 위한 서비스의 제반 영역에 관한 기본 원리와 방침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도서관 서비스가 전혀 없는 지역의 어린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이동도서관 서비스 및 지역 내 시설들을 이용하여 소외 지역 어린이에게도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표 Ⅱ-2-1〉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의 도서관 영유아 서비스의 목적

영유아 서비스의 목적
• 도서관은 모든 영유아들과 그들의 부모 및 기타 가족 구성원, 보육 서비스 제공자 등 관련 성인들을 위한 놀잇감과 책, 멀티미디어, 기타 자원이 갖추어진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도록 한다.
• 인쇄매체가 풍부한 환경을 조성하여 독서와 책에 대한 애정이 생기도록 돕는다.
• 어릴 때부터 멀티미디어와 기술 활용 능력을 계발하도록 돕는다.
• 사회의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 영유아의 언어 발달을 돕는다.
• 소수 언어/민족 집단의 영유아들이 언어 능력과 2개 국어 사용 능력을 발달시키도록 돕는다.
• 소수 언어/민족 집단과 관련하여 영유아의 언어 및 읽기 능력의 발달에서 독서와 소리 내어 읽기가 갖는 중요성을 부모 등 관련 성인들이 인식하도록 돕는다.
• 어린이의 발달과 사전 독서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부모와 보호자들이 어린이에게 책을 읽어주도록 교육한다.
• 부모와 보호자들이 공공도서관에 있는 자녀의 연령에 적합한 자료와 자원을 이용하도록 교육한다.
• 어린이들과 부모들이 다른 가족과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소개한다.
• 도서관을 방문하는 습관을 형성하여 평생 문해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영유아와 함께 생활하고, 양육하고, 교육시킬 사람들을 지원한다.

(표 Ⅱ-2-1 계속)

영유아 서비스의 목적
• 영유아와 보호자들이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 영유아와 그 가족들에게 따뜻하고, 친근하며, 안전한 공간을 제공한다.

자료: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2007). 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s to babies and toddlers. p. 5.

2) 어린이도서관 설립 현황

어린이도서관이란 공공도서관 중에서 어린이를 위해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로서, 어린이 전용도서관을 의미한다. 국공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1990년대까지 어린이 전용도서관은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과 양평어린이도서관 2곳뿐이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12: 104).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은 1979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 대상 공공도서관으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조현성, 2006: 8).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 설립 이후의 공공영역에서 어린이 전용도서관은 거의 세우지 않았다. 그러다가 1995년 지방자치단체선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서서히 설립되기 시작하였으나, 2000년대 초반까지 부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도서관 '동화기차어린이도서관'(2001년 건립)과 서울시 노원구에서 설립한 '노원어린이도서관'(2003년 건립) 정도에 불과했다(조현성 외, 2006: 53). 어린이 전용도서관에 대해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MBC 방송프로그램 느낌표에서 진행한 '기적의도서관' 프로젝트였다.[12)]

어린이 전용도서관의 경우, 2003년 '기적의도서관' 프로젝트에 의해 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립 사업이 진행되면서 어린이 전용도서관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확산되었다. 어린이에게 최선의 창조적 성장환경을 제공하고 그 환경을 지속적으로 지켜주려는 건립 취지에 의해 도서관 건물의 설계에서부터 도서관 내 모든 가구와 시설을 어린이의 체격과 행동양태에 맞게 디자인한 기적의 도서관은 2013년 현재 전국에 총 11개관이 건립되었다.

12) 어린이도서관의 지속적인 증가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수요에 의한 공급의 증대라는 일반적인 수급과는 달리, 어린이도서관은 공급의 증대가 수요의 증가로, 수요증가가 다시 공급확대로 이어지는 현상이 2000년대 초중반에 발생했다는 점이다. 어린이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린이도서관 건립이 방송매체와 결합되면서 공급과 수요가 상호 상승을 일으킨 측면도 크다(조현성 외, 2006: 1).

〈표 II-2-2〉 기적의도서관 현황

도서관명	개관일	운영방식
순천 기적의도서관	2003년 11월 10일	시 직영
제천 기적의도서관	2003년 12월 15일	민간위탁
진해 기적의도서관	2003년 12월 22일	민간위탁
서귀포 기적의도서관	2004년 5월 5일	시 직영
제주 기적의도서관	2004년 5월 5일	시 직영
청주 기적의도서관	2004년 7월 15일	민간위탁
울산북구 기적의도서관	2004년 7월 28일	구 직영
금산 기적의도서관	2005년 5월 5일	군 직영
부평 기적의도서관	2006년 3월 10일	구 직영
정읍 기적의도서관	2008년 5월 23일	시 직영
김해 기적의도서관	2011년 11월 30일	시 직영

자료: 책읽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www.bookreader.or.kr: 검색일 2013년 3월)

전국의 어린이도서관은 78개관(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2010년에 비해 7개관이 증가하였으며, 2006년 이후 해마다 7~14개의 어린이도서관이 신설되었다. 2011년에는 7개의 어린이도서관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2010년 9개, 2009년 17개에 비해 미흡한 수치이며, 서울에 가장 많은 어린이도서관(4개관)이 신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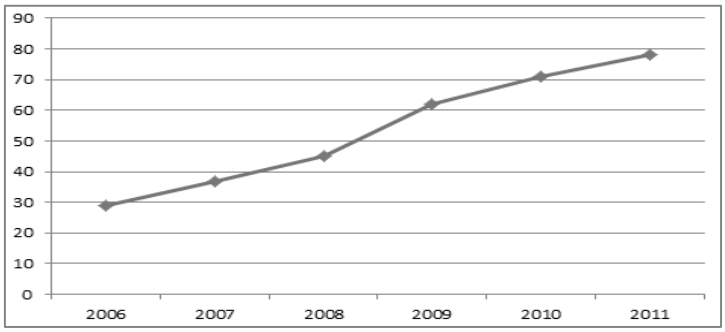
〈표 II-2-3〉 어린이도서관 추이(2006~2011)

단위: 개관, 명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어린이도서관(개)	29	37	45	62	71	78
1관당봉사대상인구(명)	310,305	236,883	189,311	133,048	112,957	91,507

주: 봉사대상 인구"란 도서관이 설치되는 해당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洞)지역에만 해당)·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洞)지역에만 해당)·읍·면지역의 인구를 말한다(도서관법 제3조 별표 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2 한국도서관연감. p. 105.



［그림 II-2-1］ 어린이도서관 설립추이(2006~2011)

전체 공공도서관에서 어린이도서관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06년 6.2%에서 2007년 6.3%, 2008년 7.1%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현재 9.92%를 차지한다. 이는 어린이 전용도서관 또는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공공도서관 내에서의 어린이 서비스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강정아 외, 2013: 25).

〈표 II-2-4〉 공공도서관 중 어린이도서관 증가율(2010. 12. 31 기준)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공공도서관	도서관수	564	600	644	703	759	786
어린이도서관	도서관수	35	38	46	62	71	78
	바율	6.20%	6.30%	7.10%	8.80%	9.35%	9.92%
어린이도서관 증가율(%)			0.1%	0.8%	1.7%	0.55%	0.57%

자료: 강정아 외(2013). 도서관의 첫발걸음, 영유아서비스. p. 25에 2011년 추가함.

지역별 어린이도서관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26개, 서울 15개, 인천 11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에 1~2개의 어린이도서관이 있으며, 경상북도는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설립주체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73개, 교육청이 1개, 사립이 4개의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청 소속은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이 유일하다. 어린이도서관이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88%가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며, 나머지 12%가 사립이다.

〈표 II-2-5〉 지역별·설립주체별 어린이도서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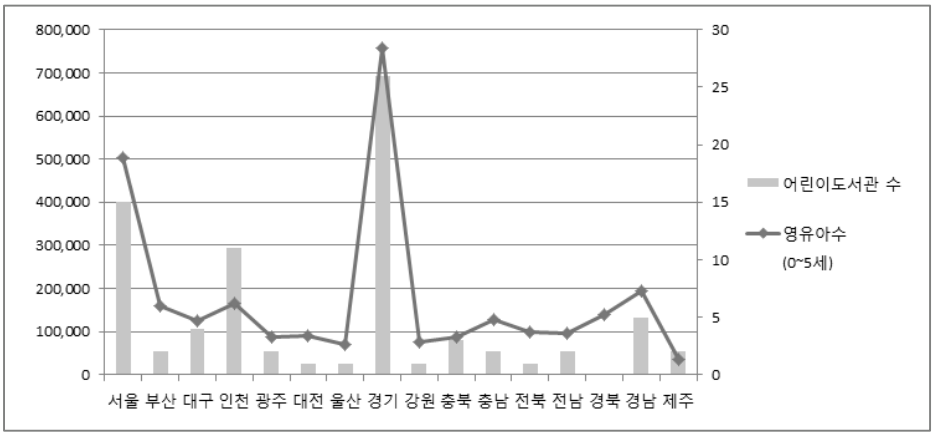
단위: 개관, 명

시도명	어린이도서관				영유아수
	지자체	교육청	사립	계	
계	73	1	4	78	2,816,103
서울	14	1	0	15	502,984
부산	2	0	0	2	160,319
대구	4	0	0	4	126,056
인천	11	0	0	11	164,473
광주	2	0	0	2	87,735
대전	1	0	0	1	90,620
울산	1	0	0	1	69,826
경기	23	0	3	26	758,105
강원	0	0	1	1	75,796

(표 Ⅱ-2-5 계속)

시도명	어린이도서관				영유아수
	지자체	교육청	사립	계	
충북	3	0	0	3	88,139
충남	2	0	0	2	127,571
전북	1	0	0	1	98,167
전남	2	0	0	2	97,468
경북	0	0	0	0	138,395
경남	5	0	0	5	195,016
제주	2	0	0	2	35,433

주: 영유아(0~5세) 수는 2012년 기준임.
자료: 1)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www.libsta.go.kr: 검색일 2013년 4월)
2)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인구통계(rcps.egov.go.kr:8081/jsp/stat: 검색일 2013년 3월)



〔그림 Ⅱ-2-2〕 지역별 어린이도서관 수 및 영유아수

영유아 인구수에 비해 어린이도서관이 많은 지역은 인천, 충북, 제주 정도이며 대부분의 지역이 영유아 인구수 대비 어린이도서관이 부족한 실정이다(그림 Ⅱ-2-2 참조).

3) 어린이도서관의 운영 프로그램

대부분의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들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에 따른 내용 구성으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가족프로그램의 운영으로 가족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어린이만이 아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표 II-2-6〉 어린이도서관의 영유아 프로그램

유형	프로그램명	내용
교육	북스타트	- 영유아용 도서, 북스타트 회원증, 북스타트 가방, 안내서 등을 무료 지급 - 영아기 때부터 책을 가까이함으로써 책 읽는 습관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음.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동화 구연	- 동화구연의 이론과 실연을 통해 직접 동화구연을 할 수 있는 능력 기르기
	유아 독서학교	-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독서기법 프로그램
	스토리텔링	- 다양한 이야기 들려주기
	마녀가 들려주는 그림책 이야기	- 동아리 자원봉사자들이 마녀 분장을 하고 그림책 이야기를 들려줌.
	그림책 슬라이드 상영	- 재미있는 그림책을 슬라이드로 제작하여 사서선생님이 재미있게 읽어줌.
	한자야 놀자	- 한자를 통해 우리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활동	동화나라 가베놀이 교실	- 프뢰벨이 창안한 놀이교구 “가베”를 이용한 놀이를 통해 유아들의 사고력을 기름.
	도서관 견학	- 견학 프로그램
	종이접기 교실	- 종이접기를 통해 어린이들의 손 근육을 발달시키고 창의력을 향상시킴.
	점토교실	- 창의력개발을 위한 오색점토공예
	CQ향상 표현놀이 교실	- 동화를 통해 손동작, 몸동작 등으로 표현력과 창의력 기르기
	전래놀이	- 전래놀이를 통해 선조들의 놀이문화와 지혜를 접함.
	풍선 아트	- 풍선의 다양한 연출로 두뇌발달을 도움.
	페이스페인팅	- 페인팅놀이를 통하여 무한한 상상력과 호기심을 유발함.
	미술놀이 교실	- 신나고 재미있는 미술놀이를 통해 풍부한 감성과 창의적 사고력을 키우며 정서적 안정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음.
	동요 부르기	- 동요를 배우고 그에 맞는 율동 배우기
탐사 탐구	놀면서 깨우치는 과학교실	- 쉽고 흥미로운 생활 속의 과학을 직접 실험하고 만들어 보면서 과학적 창의력과 사고력 키우기
공연	멀티동화 상영	- 많은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으며, 어린이의 그림 이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유아대상 영화상영	-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화상영
	출발! 교과서 클래식	-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클래식 명곡으로 어린이의 감성과 두뇌를 고루 발달시킴.
가족	영어동화여행	- 엄마와 함께 영어동화를 노래와 율동게임 등을 통해 재미있고 신나게 영어배우기
	엄마가 읽어주는 그림책	- 엄마의 목소리가 어린이의 귀를 통하여 어린이의 내면세계에 들어가도록 읽어줌.

자료: 홍현진 외(2009). 어린이도서관 프로그램 개발과 운용을 위한 도서관 실태조사 분석. p. 58.

나. 어린이박물관·미술관

1) 어린이박물관·미술관의 특징

미국의 어린이박물관 종사자 및 전문가들의 연합 모임인 미국어린이박물관협의회(Association of Children's Museums: ACM)의 어린이박물관 정의에 의하면, "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의 호기심을 촉진하고 학습동기를 고양시키는 전시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의 요구와 관심에 부응하는 교육적 학습기관"이다. 전통적인 박물관이 소장품의 수집, 보존, 연구 및 비체험적 전시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면 어린이박물관은 박물관의 교육적 역할을 중시하면서 어린이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관람객과의 맥락적이면서도 상호작용적인 체험적 전시체계와 프로그램을 강조한다(Association of Children's Museums, 1992/2012).

우리나라의 박물관(미술관 포함)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가 '유물'이 아닌 '어린이'가 중심이 되는 어린이박물관이다(이은미, 2012: 102). 박물관에서 어린이 대상 교육프로그램은 1987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어린이박물관 교실이 개설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89년부터는 '엄마와 함께 박물관을'이라는 가족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성인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에서 어린이, 가족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갔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어린이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은 '유물'이 중심이었다(이은미, 2012: 103).

박물관이 '유물'에서 '어린이'로 교육적 시선을 전환하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박물관인 삼성어린이박물관의 등장이라 하겠다. 호기심과 창의성을 촉진하며 즐겁게 탐색할 수 있는 체험적 전시와 흥미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미션 아래,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선진적인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설립되었다. 어린이의 발달과 성장을 촉진하는 핸즈온(Hands-on) 전시는 단순히 만지는 것을 허락하는 수준이 아니라, 오감을 사용해서 느끼는 마인즈온(Minds-on), 그리고 체험활동을 통한 공감으로 이어지는 하츠온(Hearts-on)으로 연결, 확장된다(이은미, 2012: 105).

일반박물관이 '만지지 마세요(Don't Touch)'라고 요구하고 있다면 어린이박물관은 '만져보세요(Please Touch)'라는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진 곳이다. 예를 들어 전통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유물의 전시가 전통문화에 대한 내용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어린이박물관은 전통문화를 직접 만지고 체험하면서 즐기는 어린이를 기르는데 그 목적을 둔다(이은미, 2012: 103).

2) 어린이박물관·미술관 설립 현황

1995년 삼성어린이박물관이 개관한 이래 어린이박물관 건립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98년 국립현대미술관 어린이미술관과 국립청주박물관 어린이전시관이 문을 연 이래 국공립 박물관의 부속기관 혹은 부속실로 많은 어린이박물관이 생겨났다. 2003년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2005년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 2006년 국립광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 터치뮤지엄, 국립김해박물관 체험학습식 등 2000년 중반 이후 전통적인 박물관을 기반으로 한 어린이박물관 또는 어린이를 위한 체험학습실의 성장이 눈에 띄는 어린이박물관의 추세이다(이은미, 2012: 102).

지역별 어린이박물관·미술관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도에 각각 5개관이 있으며 인천에 2개관이 있는 반면, 대구·울산·대전광역시를 비롯하여 강원도, 전라남도, 제주도 지역에는 어린이박물관이 건립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어린이박물관·미술관은 국립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국립박물관·미술관의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다.

〈표 II-2-7〉 어린이박물관·미술관 현황

순번	시설명	개관 연도	설립 구분	지역	역사/비고
1	삼성어린이박물관	1995	시립	서울	- 2006년부터 순회 전시 시작 - 2013년 5월 '서울 상상나라'로 새롭게 개관
2	국립현대미술관 어린이미술관	1997	국립	경기	- 2010년 어린이미술관 확대 개편
3	국립청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	1998	국립	충북	
4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2003	국립	서울	
5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2005	국립	서울	- 2009년 어린이에너지놀이터 개관 - 2009년 어린이박물관과 신설
6	국립경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	2005	국립	경북	
7	인천어린이박물관	2005	사립	인천	
8	어린이환경전시관 캐니빌리지	2005	사립	경기	- 한국금속캔자원협회
9	재미난박물관	2005	사립	인천	

(표 Ⅱ-2-7 계속)

순번	시설명	개관 연도	설립 구분	지역	역사/비고
10	롤링볼 어린이박물관	2006	사립	서울	
11	국립광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	2006	국립	광주	
12	국립전주박물관 터치뮤지엄	2006	국립	전북	
13	국립김해박물관 어린이박물관	2006	국립	경남	
14	국립생물자연관 체험학습실	2006	국립	인천	
15	헬로우뮤지움(어린이미술관)	2007	사립	서울	
16	국립과천과학관 어린이관	2008	국립	경기	
17	아해한국전통문화어린이박물관	2011	사립	경기	
18	경기도어린이박물관	2011	공립	경기	
기타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체험관	2010	시립	충남	
	부산박물관 체험학습관	-	공립	부산	

자료: 국성하(2010). 우리나라 어린이박물관의 설립과 변화에 관한 고찰. pp. 94-95 재구성.

다. 어린이놀이터

1) 정책 변천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놀이터의 설치기준과 관련한 법규는 1972년에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으로 복리시설 중 어린이놀이터의 정의가 처음으로 명시되었다. 「주택건설촉진법」은 2003년 「주택법」으로 법명을 개정되었고,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정의를 상세하게 분류하였다(김동찬 외, 2009: 29).

천편일률적이었던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를 위한 창의로운 공간으로 조성하려는 변화는 우리사회의 아파트 확충과 맥이 닿아 있다. 1990년대 초에는 공급위주, 부의 축적을 위한 수단으로 아파트가 인식되어졌으나, 점차 외부공간의 규모, 다양화 등이 아파트 차별화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김동찬 외, 2009: 27). 1996년 주차장법 개정으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면적이 지하화되면서 지상의 옥외공간을 활용할 수는 면적이 증가되었고, 이처럼 늘어난 옥외공간 중 어린이놀이터를 양적, 질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잠재력이 생겨났다(김동찬 외, 2009: 27). 마당이 없는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갖게 되면서 어린이놀이터는 자녀의 일상적인 놀이문화 공간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2013년 6월 11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이 국무회의에 통과하면서 앞으로 15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는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300가구 이상은 어린이집을, 500가구 이상은 운동시설과 도서관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새롭게 개정되었다(뉴스1, 2013. 6. 11.).

2) 법적 근거

일반적으로 동네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설립 근거법령에 따라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전자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공원 중에서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공원으로서, 일반적으로 주택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가 여기에 해당한다.

후자는 「주택법」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공동주택단지 내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로서, 쉽게 말해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가 여기에 해당한다.

〈표 II-2-8〉 서울시 어린이놀이터 설치현황: 도시공원 내 vs 공동주택단지 내

구분	도시공원내 어린이놀이터	공동주택단지내 어린이놀이터
현황	- 어린이놀이터 1,194개(공공관리) • 시 공원 131개 • 구 공원 1,063개	- 공동주택 단지내 5,156개 • 공공관리: 505개 • 민간관리: 4,651개
법적지위	- 도시계획시설(공원)	- 건축 부대시설(복리시설)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 주택법 제21조, 동법 제43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
설치기준	- 어린이공원 등 도시공원내 설치	- 5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설치
설치 및 관리	- 시 공원 • 자치구 사무위임 • 시직영공원: 여의도, 북서울꿈의숲 등 - 구 공원: 자치구 관리 어린이공원	- 공공아파트: 서울시소유, SH위탁관리 • SH 영구임대아파트: SH소유, 관리 - 민간아파트: 민간소유, 관리사무소 관리
예산지원 형태	- 시 공원 : 시 공원 관리예산 재배정 - 구 공원 : 구 자체재원, 시비 보조금	- 공공아파트: 시 자체재원 - 민간아파트: 자치구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의거 예산지원

자료: 서울특별시(2011). 상상어린이공원조성백서. p. 8.

놀이기구의 안전성을 점검하는 법령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있다. 동령에 따르면 어린이놀이기구란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것'으로 그네, 미끄럼틀, 정글짐 등 총 10개 품목이 명시되

어 있다. 이러한 놀이기구가 설치된 모든 공간—예를 들어, 유치원, 어린이집, 휴게시설, 도시공원, 초등학교 등—은 동령에 의거하여 안전관리를 받아야 한다.

3) 어린이놀이터 설치 현황

전국의 어린이놀이터는 10,822개소(2011년 기준)로 2010년에 비해 96개소가 증가하였으며, 2006년에 비해 2,452개소 증가하였다.

〈표 II-2-9〉 어린이놀이터(어린이공원) 추이(2005~2011)

단위: 개소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어린이공원 수	8,370	9,029	9,506	10,086	10,443	10,726	10,822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kr: 검색일 2013년 6월)

지역별 어린이놀이터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2,744개소로 가장 많은 어린이놀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그 뒤로 서울 1,184개소, 경상북도 877개소, 경상남도 860개소 순으로 어린이놀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영유아인구수와 비교해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많은 경기도와 서울이 영유아인구수 대비 적고,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은 인구수대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그림 Ⅱ-2-3 참조).

〈표 II-2-10〉 지역별 어린이놀이터(어린이공원) 수 및 영유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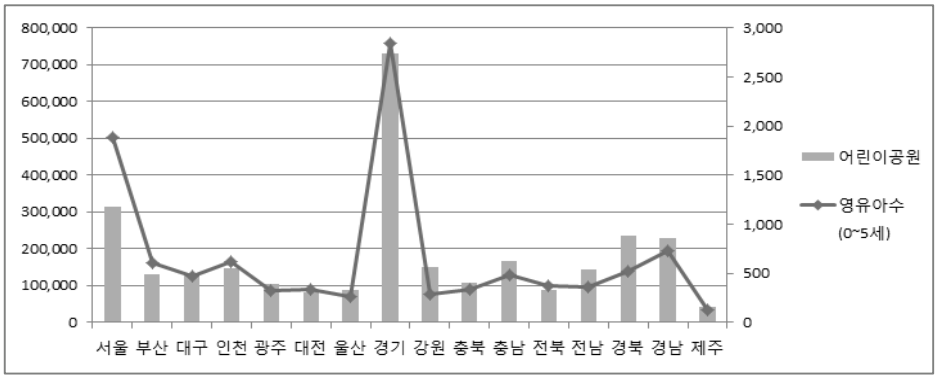
단위: 개소, 명

시도명	어린이놀이터	영유아(0~5세) 수
계	10,822	2,816,103
서울	1,184	502,984
부산	486	160,319
대구	483	126,056
인천	547	164,473
광주	395	87,735
대전	308	90,620
울산	326	69,826
경기	2,744	758,105
강원	566	75,796
충북	400	88,139
충남	630	127,571
전북	324	98,167
전남	537	97,468

(표 Ⅱ-2-10 계속)

시도명	어린이놀이터	영유아(0~5세) 수
경북	877	138,395
경남	860	195,016
제주	155	35,433

주: 1) 어린이공원 수는 2011년 조사 기준임; 2) 영유아(0~5세) 수는 2012년 기준임.
자료: 1) 국가통계포털(kosis.kr: 검색일 2013년 3월)
2)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인구통계(rcps.egov.go.kr:8081/jsp/stat: 검색일 2013년 3월)



〔그림 Ⅱ-2-3〕 영유아수 대비 지역별 어린이놀이터(어린이공원) 수

서울시의 경우, 2008년 3월부터 2011년 5월까지 3년간 서울 지역의 어린이놀이터(어린이공원) 1,063개소 중 오래되고 낡아서 시민들이 외면하는 어린이공원을 테마놀이공간으로 재조성하는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였다.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과 밀집 주택가를 우선으로 재조성하여 304개소의 상상어린이공원이 조성되었다.

〈표 Ⅱ-2-11〉 서울 지역 어린이놀이터(어린이공원) 및 상상어린이공원 현황

단위: 개소

자치구명	어린이놀이터	상상어린이공원
서울 전체	1,284	304
종로	24	3
중구	22	1
용산	32	3
성동	33	8
광진	35	15
동대문	52	4

(표 Ⅱ-2-11 계속)

자치구명	어린이공원	상상어린이공원
중랑	44	21
성북	36	6
강북	40	9
도봉	39	24
노원	92	36
은평	47	16
서대문	44	10
마포	55	13
양천	71	12
강서	125	20
구로	25	11
금천	41	13
영등포	32	4
동작	34	8
관악	70	25
서초	84	4
강남	61	6
송파	82	13
강동	64	19

자료: 서울특별시 서울의 공원(parks.seoul.go.kr: 검색일 2013년 4월)

3.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의 문화지원정책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상상력과 독창성이 중시되는 사회로 변화·발전하면서 점차 문화향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모든 국민들이 문화향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는 문화 소외지역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2009년 기준으로 총 62억원 지원, 182개 단체, 1,974회 순회사업으로 총 349천여명이 다양한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체험하였다. 또한 주민들의 능동적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통한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추진 등 문화소외지역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1,349억원을 투입하여 157개의 '희망 대한민국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09: 39).

가.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2004년부터 시작한 작은도서관이 실질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2006년

문화관광부 주요정책과제로 '마을마다 작은도서관 만들기'사업이 채택되면서부터이다. 이 사업은 문화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노후한 작은 도서관을 리모델링하거나 공공건물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생활밀착형 소규모 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국 읍면동 마다 1개의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민간자본인 기업후원을 통한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조성 사업도 함께 추진되었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총 413개의 작은도서관이 조성되었고,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은 32개관이 조성되었다(문화관광부, 2012b: 86). 국내에 조성 지원된 작은도서관은 경기가 58개(14.0%)로 가장 많고, 전남 44개(10.7%), 경남 42개(10.2%), 경북 37개(9.0%)가 조성되었으며 대전과 울산이 각각 7개(1.7%), 4개(0.9%)로 가장 적게 조성되었다(문화관광부, 2012b: 86).

작은도서관에서는 농산어촌 등 문화취약 지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을 2010년부터 시작하여 2011년까지 매년 8개월간(5~12월) 공공도서관 127개관에 순회사서 각 1명씩을 배치, 총 544개관의 작은도서관을 지원하였으며, 실태조사 결과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자 만족도 81%, 이용자 만족도 75%로 사업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문화관광부, 2012b, 2012: 61).

나. 국립박물관·미술관 무료개방

2008년부터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관람의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문화서비스 확대 방안으로 국립박물관·미술관의 무료 관람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14개 기관과 국립고궁박물관(문화재청 소관), 등대박물관(국토해양부 소관) 등 총 17개관에서 무료관람이 실시되고 있으며, 무료화 이전에 비해 관람객이 현저히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09: 40).

다. 문화바우처

문화바우처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4항)로서 문화이용권이라도 한다.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문화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여 계층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2005년도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실시하였다. 문화바우처 사업은 문화카드사업과 기획바우처사업으로 구분하는 데 일반적으로 문화바우처라 하면, 문화카드사업을 의미한다. 기획바우처는 일종의 프로그램 지원으로서 자발적 관람이 어렵거나 문화시설이 부족한 고령층, 중증장애인, 농어촌 지역민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다(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2년 10월 12일).

카드로 지급되는 문화바우처는 처음 2005년에는 1인당 3만원 이내로 지급하다가 5만원으로 증액되었다가, 2011년부터는 지급기준을 가구로 변경하여 현재 가구당 5만원(1년 기준)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라. 문화소외 어린이를 위한 사업[13)]

1) 북스타트 운동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이행하면서 지식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곧 경쟁력의 요건이 되었다. 따라서 지식정보사회에서 국가는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는 모든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현행 도서관법의 목적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담고 있다.

'북스타트 운동'은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여 평생 독서습관을 기르자"라는 취지로 비영리민간단체인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하, 책사회)이 2003년부터 펼치고 있는 독서운동이자 사회적 육아지원 운동이다.

세계 약 15개국에서 실시 중인 북스타트 운동은 책사회가 후원금을 모아 가방과 가이드북을 무상 지원하고 지자체가 그림책 2권과 손수건 및 후속 프로그램 비용을 마련하는 민관협력의 구도를 가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북스타트 운동을 '국민독서문화증진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1년 기준 북스타트 꾸러미 104,982개가 영유아 가정에 배포되었으며 북스타트 전문가 교육은 총 42개 기관, 266강이 진행되었고 영유아 독서정보 책장 총 50만권을 제작하여 209,964권을 배포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2: 64).

---

13) 해당 사업 관련 담당자와의 면담 자료 및 리플렛, 홈페이지 정보를 참고로 재구성한 것임.

〈표 Ⅱ-3-1〉 북스타트 시행 지자체 현황(2008~2011)

2008	2009	2010	2011	증감율
58개(25%)	88개(37%)	106개(46%)	111개(48%)	▲ 4.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2b). 2012 한국도서관연감. p. 64.

〈표 Ⅱ-3-2〉 북스타트 꾸러미 지원 대상 영유아수 현황(2008~2011)

2008	2009	2010	2011	증감율
62,475명	93,197명	104,125명	104,982명	▲ 0.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2b). 2012 한국도서관연감. p. 64.

2) 찾아가는 어린이도서관

가) 순천 어린이 이동도서관, 파란 달구지

전라남도 순천시는 도서관이 멀어 자주 찾지 못하는 소외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2007년부터 이동도서관인 '그림책 버스 파란 달구지'를 운영하고 있다. 파란 달구지 사업의 경우, 초창기에는 면 지역 등 도서관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학교나 마을을 방문해 책 문화를 전파하는 이동도서관 노릇을 해왔으나 점차적으로 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작은 도서관 증가, 호수 도서관 개관, 평생학습문화센터 개관 등 순천시에서 도서관으로부터 소외되는 지역이 줄어들면서 2012년 초부터 방식을 재정비하였다. 보통의 이동도서관이 몇 시간 머물렀다 가는 것에 반해 재정비된 파란 달구지는 2주 또는 1개월을 도서관 소외 지역에 있으면서 실질적인 마을 도서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파란 달구지에는 어린들을 위한 다양한 책과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며, 프로그램 작가와 전문 자원 봉사자들을 참여시켜 아이들의 독서의욕을 북돋워 주고 있다. 어린이들에게 실감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화구연과 책 읽고 스토리텔링 하기, 종이접기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밖에 농어촌 지역 어린이를 위한 한글과 기초 글쓰기 지도, 영유아를 위한 북스타트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그림책 버스 파란 달구지는 매월 신청을 받아 현장 실사를 통해 운영 지역을 선정한다.

나) 제천 찾아가는 북스타트

제천시의 찾아가는 북스타트 사업은 북스타트 연계 사업으로 도서관을 직접

찾아올 수 없는 시 외곽 지역에 살고 있는 영아 및 결혼이민자 가족의 자녀를 위해 북스타트 자원 활동가가 직접 가가호호 찾아가서 북스타트 가방 꾸러미를 전달하고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다. 2006년부터 시행된 찾아가는 북스타트는 다문화 가정, 지역아동센터, 읍·면 지역 도서관을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3)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의 이동박물관인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은 도서 지역과 산간오지 등 거주지역의 제한으로 인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적은 문화 소외지역 어린이를 위한 사업이다.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은 버스를 개조해서 진열장 전시 및 체험활동(활소기, 탁본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다.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의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은 지역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문화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어린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박물관 전시버스가 이동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 민속 악기의 전시 및 체험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4) 찾아가는 미술관 교육

국립현대미술관 어린이미술관은 찾아가는 미술관 교육 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1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문화 소외 지역 초등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진행되는 '찾아가는 미술 갤러리'로 어린이가 미술관에 가지 않아도 작가들의 작품을 직접 감상할 수 있는 움직이는 미술관이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작가와 함께하는 워크숍'과 '찾아가는 미술관 교육 버스를 활용한 수업'이 있다. '작가와 함께하는 워크숍' 프로그램은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미술작품을 이해하고 작가 본인의 작업을 이용하여 어린이 자신의 작품으로 창작하는 활동을 하면서 작품제작 과정을 이해하고 입체적인 작품을 만드는 미술교육활동이며, '찾아가는 미술관교육 버스를 활용한 수업'은 자화상 작품과 미술관의 다양한 조각 작품을 감상하면서 동·서양의 미술 흐름을 알아보고 친구의 모습을 표현하는 활동이다.

Ⅲ. 국내·외 어린이 문화인프라 사례

이 장에서는 국내·외의 우수한 어린이 문화인프라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어린이 문화인프라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향후 추진 방향의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국내의 어린이 문화인프라 사례를 선정한 기준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설립한 국공립 시설이거나 설립 시 재정분담 등 일정부분 관여한 공공성을 지닌 시설로 정했다.

1. 국내 어린이 문화인프라 사례

가. 어린이도서관

1)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가) 설립배경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 도서관 서비스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국립중앙도서관 소속기관으로 2006년 6월 28일 개관하였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설립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도서관 정책의 구체적인 대상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개관 이전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 정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정책 역시 없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법적으로 공공도서관의 하나로 어린이도서관이 있다는 것과 공공도서관에는 어린이 열람석이 전체 열람석의 20%이상 되어야 한다는 조항이[14] 전부였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설립은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도서관 서비스를 특화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조현성 외, 2006: 1).

국가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이란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특화된 도서관을 건

14) 전체 열람석의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를 위한 열람석으로 하여야 하고, 전체 열람석의 10퍼센트 범위의 열람석에는 노인과 장애인의 열람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 I).

립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른 국가에서도 어린이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중앙정부 차원의 도서관을 설립한 사례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설립한 것은 도서관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 도서관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나) 설립목표 및 운영 현황

(1) 설립목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비전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미래를 열어가는 도서관"이다. 이에 목표는 1)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발전을 선도하는 도서관 2)역량있는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전문가를 양성하는 도서관 3)어린이청소년도서관 협력의 중심이 되는 도서관을 설정하였다(조현성 외, 2006: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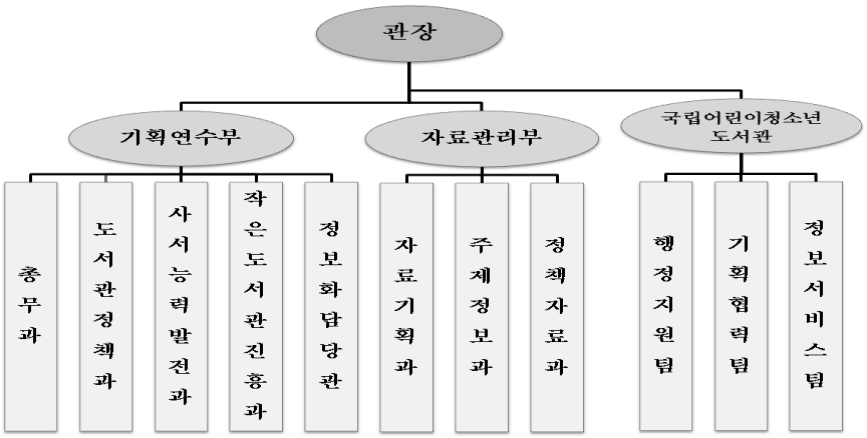
목표에서 알 수 있듯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역할은 자관의 발전보다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도서관 서비스 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세 가지 목표를 보면 핵심 고객은 공중(公衆), 다시 말해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내방자(來訪者)가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도서관 서비스를 실시하는 기관이다. 결국,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현재의 목표에 비추어 볼 때 '도서관의 도서관' 또는 '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조현성 외, 2006: 17).

(2) 법적위상과 운영현황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속기관이다. 조직도에서 보듯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의 부(部) 정도에 해당하는 위상을 갖는다. 하지만 국립중앙도서관의 어린이청소년부가 아니라 독립된 관(館)으로 구성된 것은 어린이청소년 대상 도서관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정책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조현성 외, 2006: 1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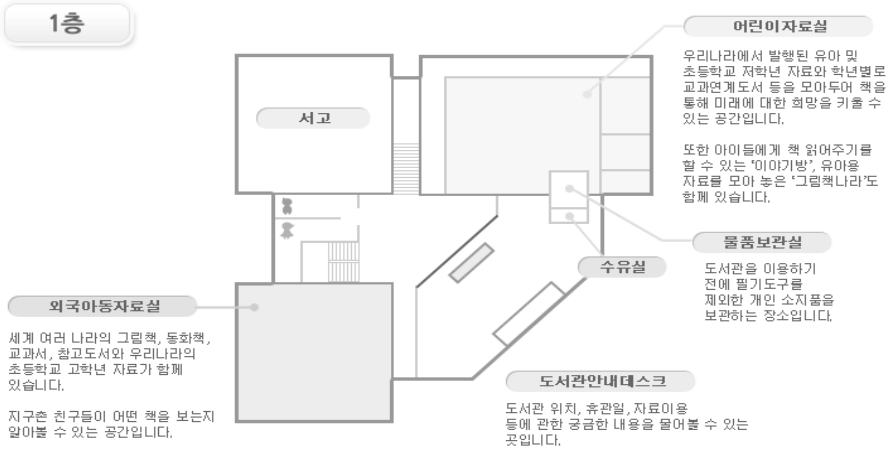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지상 4층 지하 2층으로 1층에 어린이자료실과 외국아동자료실이, 2층에는 멀티미디어실과 전시실이, 3층에는 청소년자료실, 연구자료실이, 4층에는 강당, 세미나실, 독서토론실, 서고자료실이 있다. 어린이자료실은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위한 국내도서가 비치된 공간으로 책읽어주기 공간(이야기방)과 유아용 자료를 모아 놓은 공간(그림책나라)도 마련되어 있다. 1층에는 수유실 공간도 별도로 설치하였다(그림 Ⅲ-1-2 참조).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으로는 동화구연, 영어그림책story time, 연극으로 읽는 동화 등을 운영하고 있다(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홈페이지, 검색일: 2013년 6월).



자료: 조현성 외(2005).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중장기 발전방안. p. 15.

〔그림 III-1-1〕 국립중앙도서관 조직도



〔그림 III-1-2〕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1층 시설

2) 민관 협력의 어린이도서관: 기적의도서관

가) 설립목적

기적의도서관은 다음의 세 가지 기본적인 의도와 정신을 담고 있다(정기용, 2011: 12).

1. 아이들을 잘 키우는 책임과 육아의 경비는 온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것
2. 어린이도서관은 아이들의 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회적 기본시설이며 우리사회는 그런 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에 마땅히 투자해야 한다는 것
3. 어린이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를 일구는 풀뿌리 운동의 중심부라는 것

기적의도서관을 처음으로 설계한 정기영은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이건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이건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책을 접하고 만나고 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어린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상상하고 탐험하고 꿈꾸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정기용, 2010: 13)라고 설계목적을 밝힌 바 있다.

새로운 '민관협력'의 모델을 구축한 것도 기적의도서관이 처음으로 이룩한 혁신이다(정기용, 2011: 12). 지자체는 도서관을 지을 집터를 제공하고 공사비의 반만 부담하면, (재)책사회는 나머지 공사비 반을 지원하고 도서관 건축설계까지 해주는 '파격적'인 조건,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기적의 도서관은 탄생하였다. 시민들은 한 살짜리 꼬맹이들도 안방에서처럼 기고 뒹굴고 놀 수 있는 어린이 도서관, 아이들이 보고 싶은 책 보면서 즐겁게 꿈꾸고 상상하고 몽상에 잠길 수 있는 도서관, 책 말고도 노래, 춤, 공작 같은 여러 가지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요구하였고(정기용, 2011: 9) 이러한 시민들의 바람을 최대한 반영해서 탄생한 도서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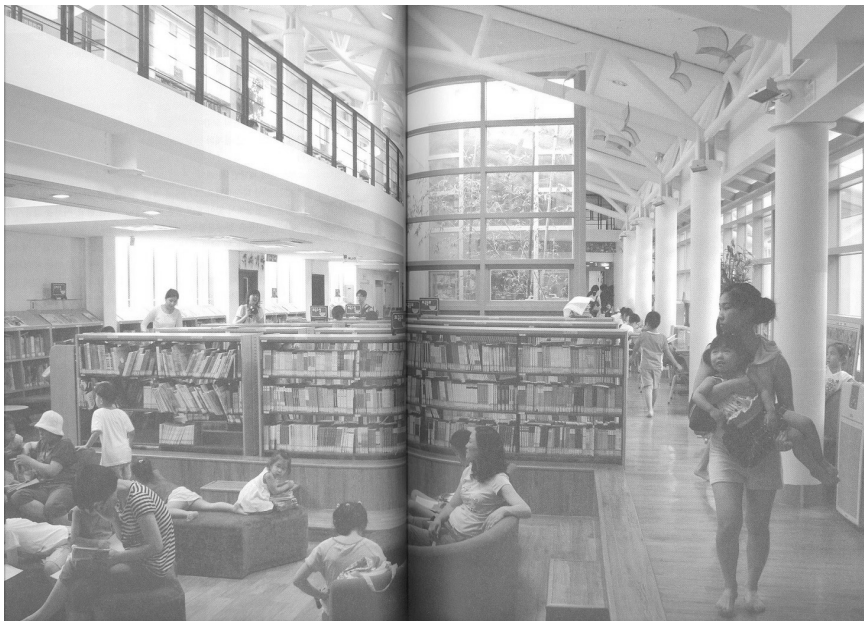
나) 설립추진 및 이용 현황: 순천시 기적의도서관 중심으로

본고에서는 최초의 기적의도서관인 순천시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MBC 방송국 프로그램에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서 설립을 추진한 기적의도서관의 설립 조건은 "접근성, 중소도시, 민관협력, 주민참여"이었다. 당시 50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는데, 4개 조건을 충족한 지역을 우선으로 지어졌다. 중소도시인 순천시는 2004년부터 작은도서관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독서문화가 확산

되면서 도서관 설립에 대한 열망이 높았고, 지자체장의 의지가 강력했으며, 학생들의 '소망저금통'운동 등의 시민의 자발적 참여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처음으로 기적의도서관을 설립하게 되었다(현장전문가 사례 3 인터뷰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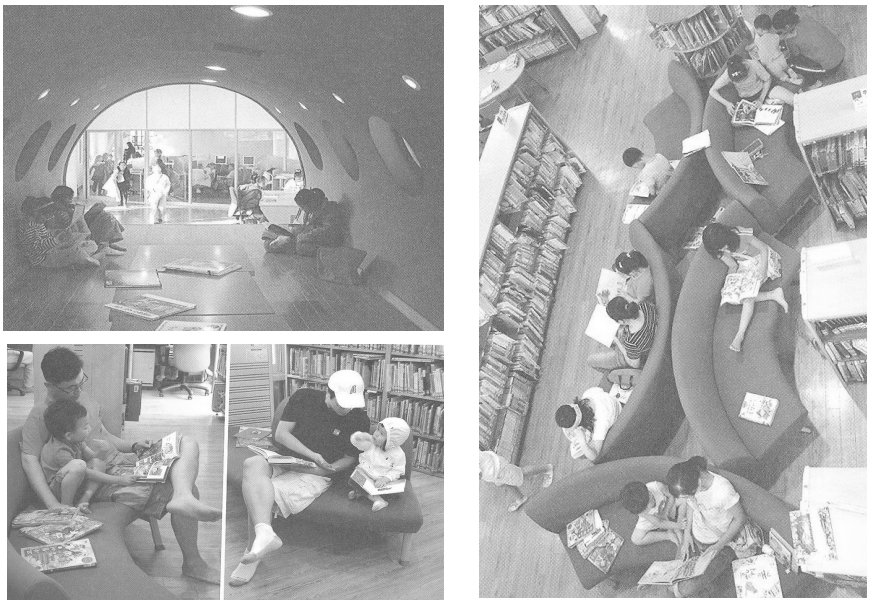
기적의도서관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정기용은 "어린이 전용도서관이란 어떤 곳이며, 어떤 공간이 왜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와 "전체가 어떤 규모일 때 공사비 내에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가"의 질문에 답을 구하고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정기용, 2010: 26)고 회상하였다. 순천 기적의도서관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탄생하였다.

순천 기적의도서관은 공공도서관에서는 최초로 전관 온돌마루를 깔았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락과 토굴 같은 유희성 공간을 연출하고 복층구조를 만들고, 푹신한 소파와 쾌적한 가구, 다목적 공간, 이야기방, 영아 수유실과 수면실, 세수대 등을 도입해서 공간의 혁신을 창출하였다(정기용, 2010: 12).



[그림 III-1-3] 순천 기적의도서관의 다양한 책읽기 모습들

(그림 Ⅲ-1-3 계속)



자료: 정기용(2010). 기적의도서관: 정기용의 어린이 도서관. 서울: 현실문화.

［그림 Ⅲ-1-3］ 순천 기적의도서관의 다양한 책읽기 모습들

기적의도서관의 주요 고객은 유아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다. 주중에는 주변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견학으로 많이 오고 있으며 주말에는 가족단위 이용객이 많다. 그렇지만 기적의도서관은 어린이만 이용하는 곳도 아니며 사서나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곳도 아니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온 가족이 이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었다.

> 기적의도서관은 어린이 전문도서관 전용 도서관이긴 하지만 어린이만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엄마하고 손잡고 와요. 근데 조금 지나면 아빠하고 와요. 할머니하고도 오다가 조금 지나면 할아버지하고도 와요. 할아버지가 노인정에 안 가시고 손주 손잡고 도서관에 오면 우리는 레벨 4정도라 해요. 그리고 온 가족이 오면 레벨 5(최고 레벨)가 되는 거죠(현장전문가 사례 3)

> 기적의 도서관이 단순히 어린이만 가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젊은 엄마들이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어떤 분은 음악, 어떤 분은 미술, 영어 전문가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어요. 자원봉사자가 한 100명쯤 되요(현장전문가 사례 5).

그러나 기적의도서관을 설립한 지 10년이 되면서 도서관 운영에서 예산, 인력, 프로그램 부족 등의 문제점들이 하나 둘 씩 생겨나면서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로 남아있다.

나. 박물관·미술관

1) 경기도 어린이박물관

가) 설립목적과 공간구성

2011년 9월에 개관한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최초로 설립한 공립 어린이 전용 박물관이자 체험식 박물관이다. 건립비 전액은 경기도비로 설립되었고, 현재 운영비도 도비지원을 받고 있다. 서비스 대상은 3세 (36개월)~12세 어린이와 가족 및 동반보호자이다. 경기도 어린이박물관의 미션은 '놀이를 통한 학습으로 어린이의 미래를 꿈꾼다'이며 비전으로는 어린이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육성시키는 혁신적인 학습박물관으로서 가족, 박물관, 지역사회, 세계와의 소통을 통해 함께 성장 발전한다'이다(경기도 어린이박물관 홈페이지, 검색일 2013년 6월).

국립박물관 부속의 어린이박물관이 역사, 고고, 민속 등 모박물관의 주제에 충실한 전문 어린이박물관이라면,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환경, 문화, 과학, 미술 등 종합적인 주제의 체험중심의 어린이박물관이다(이은미, 2012: 106).

> 어린이박물관은 다양한 주제가 박물관에 들어와서 체험전시를 이제 만든 겁니다.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민속에 관심 없는 아이들을 거기에서 관심 있게 놀 수가 어렵고, 과학에 관심없는 아이들은 사이언스 디스커버리센터 가서는 그만큼 재미있게 못 노는데, 여기는 다양한 주제가 있으니까 과학에 관심이 있는 애는 과학에 가서 더 많이 놀 수가 있고 또 어떤 아이는 뭐 이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거에 더 많이 놀 수가 있어요. 애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먼저 놀고, 그렇지만, 거기가 정복이 되면, 그 다음 새로운 것을 찾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숙한 것과 좋아하는 것과 새로운 것들이 여기는 여러 가지 주제로 다 공유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어린이박물관은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현장전문가 사례 2).

이처럼 종합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호기심 많은 아이, 환경을 생각하는 어린이, 세계 속의 어린이, 튼튼한 어린이라는 네 가지 대주제 하에 다양한 전시가 구성되어 있다. 지상 총 3층(지하 수장고 외)으로 1층에는 만 2세~4세에 적합한 공간인 자연놀이터 및 튼튼놀이터가 있으며 2층에는 한강과 물, 우리 몸은 어떻게, 건축작업장의 체험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층에는

에코 아틀리에, 동화속 보물찾기,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미니씨어터 등이 구성되어 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의 운영방향은 이야기하는 박물관, 살아있는 박물관, 미래지향적 교육을 선도하는 박물관, network 박물관, global value를 구현하는 박물관이다(경기도 어린이박물관 홈페이지, 검색일 2013년 6월).

자료: 경기도 어린이박물관 홈페이지(www.gcmuseum.or.kr: 검색일 2013년 6월)

〔그림 Ⅲ-1-4〕 경기도 어린이박물관 1층 전시장

자료: 경기도 어린이박물관 홈페이지(www.gcmuseum.or.kr: 검색일 2013년 6월)

〔그림 Ⅲ-1-5〕 경기도 어린이박물관 2층 전시장

자료: 경기도 어린이박물관 홈페이지(www.gcmuseum.or.kr: 검색일 2013년 6월)

〔그림 Ⅲ-1-6〕 경기도 어린이박물관 3층 전시장

나) 이용현황

개관 43일 만에 10만명의 관람객을 돌파하는 성공적인 출발은 경기 북부(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함)에 어린이박물관 설립 논의에 기폭제가 되었고, 고양시와 동두천시에 추가로 어린이박물관을 설립하기로 최종 확정되었다(고양신문, 2012년 9월 20일). 경기도민은 이용료 2,000원, 이외 지역 이용자는 4,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다. 이용 부담이 거의 없어서 누구나 체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이용의 애로점은 비용이 아니라 접근성이라 하겠다.

> 관람객들 조사를 해 보니 경기도 북부에서는 거의 안와요. 경기 남부지역에서 1시간 거리내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가족들이 대부분 이용해요(현장전문가 사례 2).

> 유사한 키즈카페같은 데는 비싸서 취약계층들은 못가요. 그런데 여기는 온가족이 와도 경기도민 4인 가족은 8천원이면 와서 이런 체험을 다 할 수 있어요. 박물관은 문화거든요. 교육도 중요한 곳이지만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신경쓴 미적 환경에서 주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오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현장전문가 사례 2).

어린이박물관은 아이들이 무엇을 꼭 해야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미적 디자인을 고려한 환경 속에서 지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는 문화시설이다. 경기도 어린이박물관이 풀어가야 할 과제로는 예산확보, 인근 초등학생 저학년들의 이용율 제고, 새로운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 등이다(현장전문가 사례 2 면담조사).

2)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가) 설립목적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은 국공립 최초의 어린이박물관으로 2003년 2월 17일에 개관하였다. 2009년 4월 17일에「대통령령 제21423호」에 의거하여 국립어린이민속박물관으로 독립하였다가, 2010년 2월 11일부터 직제가 축소되어 국립민속박물관의 어린이박물관과로 축소되었다.

국립어린이민속박물관의 설립목적은 “어린이 전문박물관으로서, 문화의 새싹이자 소중한 희망인 어린이들이 다양한 문화경험을 통해 자유로운 꿈을 키우며 문화의 주체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긍정적 환경’제공을 목표”로 한다(국립민속박

물관 어린이박물관 홈페이지, 검색일: 2013년 6월).

나) 이용현황

전시장 200평 규모의 국립민속어린이박물관은 체험형 전시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은 실시하고 있다. 연간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연간 1,600회 이상이다. 프로그램 참여 연령대는 5세~9세 정도이며 초등학교 저학생의 참여가 더 많다. 아직까지 영아대상 프로그램은 없지만, 영아를 데리고 오는 가족단위의 관람객이 많아서 영아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2012년에는 15만명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관람객 수는 31만명 정도이다(현장전문가 사례 9 면담조사).

다) 어린이 프로그램

다양한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2008년 12월에 '심청 이야기'를 주제로 스토리텔링 방식의 상설 전시를 시작하였다. 이는 무형문화를 전시관으로 이끈 첫 번째 사례로서, 현재는 '홍부 이야기 속으로'를 전시 중이며 내년에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를 전시할 계획이다.

국립어린이민속박물관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다문화꾸러미(Culture Discovery Box)'를 꼽을 수 있다. 우리사회가 급속도로 다문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다문화시대에 박물관의 역할은 무엇일 있을까? 특히, 국가의 문화정책을 수행하는 국립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이 다문화 시대에 조화롭게 더불어 살아가는 어린이를 육성하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다문화꾸러미 사업의 구상이 시작되었다(이은미, 2012: 107).

다문화꾸러미는 다문화 가정이 낯설지 않은 다문화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문화정책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프로젝트로서, 실물자료와 오감체험을 통해 진정성(Authenticity) 있는 다문화 체험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베트남, 몽골, 필리핀 등 다른 문화를 알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자료를 하나의 전시 상자로 구성하여 제작하고, 박물관 자체 교육 및 학교, 박물관, 다문화 관련 기관 등 원하는 기관에 다문화꾸러미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꾸러미는 다문화 교육자료가 필요한 전국의 관련 기관이라면 누구나가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2010년 9월부터 2011년 말에 이르기까지 186건의 다문화꾸러미 대여 운영이 이루어졌으며 5만여명이 다문화꾸러미를 체험하였다(이은미, 2012: 107-108).

자료: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다문화꾸러미 홈페이지(kidsnfm.go.kr:8080/culturebox: 검색일 2013년 6월)

〔그림 III-1-7〕 국립중앙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의 어린이프로그램: 다문화꾸러미

3) 국립현대미술관 어린이미술관: Edu-Studio

가) 설립(개편)목적 및 공간구성

1997년에 개관한 국립현대미술관 어린이미술관은 국내 유일의 국립어린이미술관이다. 당시에는 2, 3층에서 어린이미술관을 운영하다가 아이들의 동선을 고려하여 2010년 1층(제7전시실)으로 옮겼다. 그리고 2012년도에 '전시'에서 '교육'을 강조하면서 교육중심의 공간으로 공간을 개편하면서, 이름도 Edu-Studio를 별도로 명명하였다.[15]

> 현대미술을 쉽게 접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 때는 작품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인터액티브(interactive) 아트처럼 직접 내가 만져보고 할 수 있는 작품들 중심으로 많이 있었고, 물론 교육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운영이 됐구요.

15) 2013년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개관을 앞두고 과천관에서는 어린이와 가족 대상의 교육적 역할을 대비하여 Edu-Studio의 성격으로 리모델링함(박신의 외, 2012: 13).

> 그러다가 지금 현재 어린이미술관은 2012년 5월 개편을 해서 오픈을 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이전에는 전시 중심이었다면 여기는 저희가 뒤에 edu-studio라고 이름을 붙인 것처럼 교육 중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험이고 파격적인 선택이기도 하죠(현장전문가 사례 10).

Edu-Studio는 관람과 체험의 교육적 효과를 위해 제7전시실을 창의적이고 독창적으로 구성하고자 가변적 공간, 교육콘텐츠 중심의 공간, 해석적 교육매체 관람 및 체험이 가능한 입체적 공간으로 (0)에서 공간(5)까지 구성하였다(표 Ⅲ-1-1 참조). 전시 추진 방향에 있어서도 획일적이고 나열적인 전시가 아닌 "교육중심" 공간으로 성격을 전환하여 현대미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하였으며, IT 기술 및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동시대적 감각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관람객의 자기 주도적 선택 학습을 유도하고 있다(박신의 외, 2012: 11).

> 이제 교육 중심 공간이다 라는 게 큰 전제가 포함이 된 거에요. 그래서 교육공간이되 어린이들이 그래도 좀 재미있게 현대미술의 다양성이라든지 내가 몰랐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으면서도 또 어떤 교육적인 기능을 충실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몇 개의 공간으로 구별을 해서 교육주제별로 만든 거죠(현장전문가 사례 11).

〈표 Ⅲ-1-1〉 Edu-Studio 공간 개요

스토리	명칭	공간기능	콘텐츠	기대효과
소통의 시작 (0)	입구 및 정보 검색 공간	관람정보 제공 및 검색		기대감 및 흥미유발
낯선 만남 (공간 1)	작가 연계 교육 공간	작가의 작품전시 및 아이디어 체험	백남준	직관적 이해, 창의성 발견
소통의 준비 (2)	상설전시 연계 교육 공간	작품해설을 돕는 총제적인 내용 전달	김환기, 박생광	관계 이해를 통한 예술과의 교감 형성, 지적 이해
소통의 경험 (3)	미디어 랩	미디어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소통경험	미디어 아트	의식의 유연성 확장, 미디어에 대한 총제적 이해
자아 성립 (4)	아틀리에	교육실 및 창작 활동 공간		이해력 및 창의력 발산
소통의 장 또 다른 만남 (5)	어린이교육활동 결과물 전시	전시 및 아카이브	백남준 미디어아트	상호교류 및 창의성 증폭

자료: 박신의 외(2012). 2012 국립현대미술관 어린이미술관 Edu-Studio 활성화 방안 연구. pp. 12-13.

나) 이용현황

교육공간으로 개편하면서 초등학생 4, 5, 6학년을 교육의 주요 대상으로 정했다. 그러나 프로그램은 미취학, 초등학생 저학년, 고학년으로 크게 3개로 운영하고 있다. 단체 관람은 초등학생보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많이 이용하며, 가족단위의 방문객은 미술관(과천관)과 가까운 지역에서 대부분 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자체적으로 관람객 분포도 조사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가 많아요. 안양, 평촌 이쪽 그 다음에 서초, 강남 이쪽, 그리고 관악구에서 굉장히 참여가 많았어요.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이니까 접근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현장전문가 사례 12).

입장료와 프로그램 이용료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다) 어린이 프로그램

교육공간으로 재구성한 Edu-Studio에서는 현대미술관에 설치되어 있는 백남준 작가의 미디어아트와 연계한 통합·창의교육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은 Edu-Studio 투어프로그램, <백남준의 ART LAB> 심화과정, TV 속 나의 모습 상상하기, 현대예술 똑!똑! 영화 감상 등이 있다.

> 미취학 같은 경우에는 인지보다는 아무래도 표현활동이라든지, 오감을 자극하는 수업 위주로 진행해요. 전시관 감상도 하지만, 아이들이 이해하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아이들에 맞게 작품도 쉬운 이야기를 통해서 동화를 통해서 작품을 감상하게 한다든지 신체표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감각을 이용해서 뭔가 표현을 하게 한다던지, 그런 수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현장전문가 사례 10).

〈표 III-1-2〉 Edu-Studio 정기교육프로그램

프로그램 명	주요내용
Edu-Studio 투어프로그램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대상 전시장 투어 프로그램 - 40명 정원, 90분 소요
현대예술의 이해를 돕는 탐구 학습프로그램	- 조형원리를 바탕으로 한 이미지 읽기 훈련(시각적 문해력) - 단체(50명), 개인(40명) 정원, 50~90분 소요
<백남준의 ART LAB> 심화과정	- 백남준 작가, 미디어 아트와 연계한 통합·창의교육 • 미취학 아동: 내가 TV 라면

(표 Ⅲ-1-2 계속)

프로그램 명	주요내용
	• 초등학교 저학년: TV 공작소 • 초등학교 고학년: Art + Tech - 36명 정원, 90분 소요
미디어 아트 워크숍	- 신진작가들의 창작아이디어와 기법 등을 통한 미디어 아트의 이해 및 창작활동 - 40명 정원, 90분 소요
현대미술작가 워크숍	- 현대미술작가를 통한 현대미술의 개념과 요소, 기법 등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험활동 - 40명 정원, 90분 소요
어린이 직업탐방 프로그램	- 미술관 탐방을 통한 미술관 내의 직업군에 대한 이해 및 체험 - 40명 정원, 120분 소요
어린이·교사 자문단 대상 프로그램	- 자문단 대상 프로그램으로 강연회 및 심화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
방과후 학교 대상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 미술관 소개 및 미술작품 제작 체험
TV 속 나의 모습 상상하기	- <백남준의 Art Lab> 공간 연계 프로그램 • 종이 위에 도장을 찍고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통해 어린이들은 새로운 매체로 소통하려 한 작가의 작업 방식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음. - 미취학 아동 대상
현대예술 똑!똑! 영화 감상	- 1970년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영화(애니메이션)의 역사와 예술성을 담고 있는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음. - 미취학 아동 대상

자료: 박신의 외(2012). 2012 국립현대미술관 어린이미술관 Edu-Studio 활성화 방안 연구. pp. 1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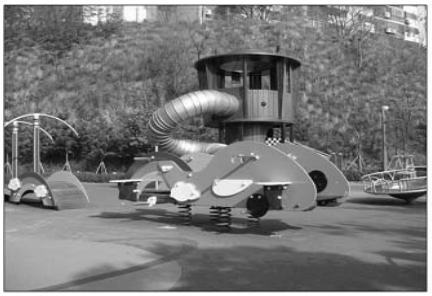
다. 서울시 상상어린이공원

서울시는 낙후되고 천편일률적인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와 시민들이 직접 설계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2008년부터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공급자 중심의 낡은 틀을 깨고 시민고객 중심의 새로운 접근 틀을 마련하고자 시민과 대학생 대상의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다. 추진 과정에서는 실제 이용자인 어린이와 주민들의 의견을 공청하는 '주민의견수렴회'자리를 마련하여 이용자 중심의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어린이·주민 의견 수렴시 다수 제안 의견'은 다음과 같다(서울특별시, 2011: 41).

1. 그네를 많이 설치하고, 길고 구불구불한 미끄럼틀을 설치해 주세요.
2. 어린이와 유아들의 놀이공간을 따로 구분해 주세요.
3. 노숙자와 불량 청소년 출입금지, 소음발생을 막아주세요.
4. 공원 바닥은 안전하게, 공원등·방범 CCTV를 설치해 주세요.
5. 동물모양·만화캐릭터 놀이시설을 만들어 주세요.
6. 꽃나무를 많이 심고, 녹지를 늘려주세요.
7. 어린이와 부모를 위한 쉼터를 만들어 주세요.
8. 주민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게시판을 설치해 주세요.
9. 어른들을 위한 간단한 운동기구도 설치해 주세요.
10. 공원을 깨끗하게 관리해 주세요.

현재 서울시에는 304개의 상상어린이공원이 설치되어 있다. 공원마다 주제가 다른데 예를 들어, 강변상상어린이공원의 공원주제는 '너울거리는 강변의 물결을 모티브로 한 바다풍경 재현'으로 꽃게모양의 조합놀이기구를 설치하였다. 성동구의 미소상상어린공원의 공원주제는 '바람아 불어라, 비행기야 날아라"로서 이에 맞는 비행기 모형의 놀이기구를 설치하였다. 이외에도 공룡들이 살던 선사시대를 상상하며 조성한 '구돌상상어린이공원' 우주공간 체험을 가상하여 만든 '해오름 상상어린이공원' 등 서울시의 304개 상상어린이공원은 각각의 특색을 지니고 있다.

〔그림 Ⅲ-1-8〕 강변상상어린이공원의 꽃게조합놀이대



〔그림Ⅲ-1-9〕 성동미소상상어린이공원의 비행기조합놀이대

자료: 서울특별시(2001). 상상어린이공원조성백서. pp. 55-64.

〔그림 III-1-10〕 광진구돌상상어린이 공원의 공룡뼈터널

〔그림 III-1-11〕 중곡해오름상상어린이 공원의 우주공간조합놀이대

서울시는 2009년에 2차에 거쳐 상상어린이공원의 이용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상상어린이공원 이용자 1,920명) 중 94%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상상어린이공원이 좋은 점은 '조합놀이대가 좋아서' 20%, 유아용 놀이시설이 있어서 17%, 유아전용모래놀이터가 있어서 13% 순으로 나왔다(서울특별시 내부자료, 2009: 1). 이는 상상어린이공원의 설치 과정에서 주민들의 "어린이와 유아의 놀이공간을 분리해 주세요"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라 하겠다.

2. 국외 어린이 문화인프라 사례

가. 어린이도서관[16)]

1) 영국 버밍엄 중앙도서관 어린이센터(Centre for the Child in Birmingham Central Library)

영국은 전용 어린이도서관은 없으며,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일반 서비스의 한 부분으로서 어린이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에서 전용 어린이도서관이 없는 이유는 일찍부터 많은 수의 공공도서관이 동네마다 설립되어서 이들 도서관에서 어린이도서관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홍현진

16)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2008)의 '2008 세계도서관 현황: 어린이서비스 중심' 내용을 참고로 작성한 것임.

외, 2009: 64). 어린이 이용자의 경우 도서를 늦게 반납해도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사서의 동의 없이 성인자료를 대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어린이의 비율에 근거해서 도서관의 어린이자료 구입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어린이 서비스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홍현진 외, 2009: 64).

버밍엄 중앙도서관 1층에 위치하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인 어린이센터(Center for the child)는 유럽에서 가장 큰 어린이도서관 중 하나이다. 어린이센터는 1991년 화재로 구 어린이도서관이 소실된 후 재정비하여 1995년에 새롭게 개관하였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93,861권 이상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52개국 언어로 된 다양한 어린이 도서를 보유하고 있다. 어린이센터는 부드러운 쿠션과 빈백(bean bag)을 갖춘 영유아를 위한 공간 및 수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으며,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북스타트, 이야기구연, 동시구연, 공예활동, 작은 곡예사 프로그램, 어린이를 위한 이동도서관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자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2008). 2008 세계도서관 현황: 어린이서비스 중심. p. 50.

〔그림 III-2-1〕 영국 버밍엄중앙도서관 어린이센터 활동 사례

2) 영국 노포크앤노위치 밀레니엄도서관(Norfolk & Norwich Millennium Library)

영국의 대표적인 어린이도서관으로 노프크앤노위치 밀레니엄도서관을 꼽을 수 있다. 이 도서관은 한해에 영국에서 가장 많은 1,500,000명 이상의 방문자를 기록하는 도서관으로, 어린이도서관이 1층에 위치하고 있다. 노프크앤노위치 밀레니엄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은 조용하기를 강요하지 않아 영유아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노포크에서 가장 많은 어린이청소년 도서를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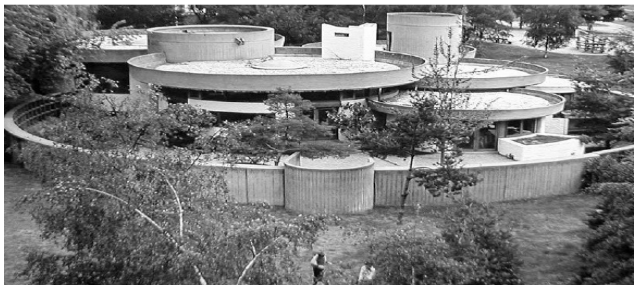
장하고 있으며 2세 이하 영아를 위한 이야기구연과 동요 부르기 프로그램(Tiny tots), 5세 이하 유아를 위한 이야기구연 프로그램 및 매주 일요일에 열리는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교육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3) 프랑스 동그라미도서관(La Petite Bibliothèque Ronde)

프랑스에는 전용 어린이도서관은 14개관이 있으며, 어린이들이 도서관의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책을 읽고 즐길 수 있도록 열람책상과 의자를 많이 두지 않는다(홍현진 외, 2009: 64-64).

프랑스의 유명한 어린이도서관으로 동그라미도서관이 있다. 사서들이 책을 담은 바구니를 들고 어린이 이용자를 찾아나서는 '담장 없는'도서관으로 유명한 동그라미도서관은 1965년에 개관하여 어린이 독서진흥에 획기적인 역할을 한 '클라미르도서관: 책 읽는 즐거움 도서관(La Bibliothèque de Clamart: La Joie par livres)'의 후신이다.

2007년 La Joie par Les Livres가 어린이청소년 문학에 관한 전문 연구 지원 센터로 독립한 이후 폐관의 위기에 처했으나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반발 및 제청으로 프랑스 문화부, 클라마르시, 클라마르 어린이도서관 협회의 지원 하에 새롭게 개관하였다. 동그라미도서관은 2007년부터 프랑스 문화부 프로그램 일환인 '사회적 소외계층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도서관의 역할을 위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린이, 특히 소외계층 어린이와 그 가족들에게 독서진흥을 통한 삶의 장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동그라미도서관은 국내외의 연구자, 출판사, 지역 기관들, 협회들과 긴밀한 교류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독서를 통한 어린이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모색하고 있는 실험적 도서관이다.



자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2008). 2008 세계도서관 현황: 어린이서비스 중심. p. 91.

〔그림 III-2-2〕 프랑스 동그라미도서관 전경

4) 독일 뮌헨시립중앙도서관(Münchner Stadtbibliothek)

독일에서 가장 큰 지방자치구 도서관 시스템인 뮌헨시 도서관은 매일 18,600명 이상의 방문객의 방문을 자랑하며 뮌헨시의 문화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도서관 내에 위치한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약 60,000권의 도서, 만화, 잡지, 비디오, DVD, 슬라이드쇼, CD, 카세트테이프, 보드게임 등을 소장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다양한 주제와 매체 유형의 추천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도서관은 뮌헨독서세계협회, 유치원, 학교 등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어린이 자료 목록을 만들고 있으며 어린이를 향한 도서관 이용교육 및 미디어 사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나. 박물관·미술관

1) 미국 브루클린 어린이박물관(Brooklyn Children's Museum)

브루클린 어린이박물관은 1899년에 개관한 세계 최초의 어린이박물관이다. 브루클린 어린이박물관은 약 3만여 점의 문화적 유물 및 자연사관련 표본들을 소장하고 있으며 어린이를 위한 오감 중심의 상호작용 전시를 기획하여 다양한 세계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풍부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도록 구성하였다. 어린이와 성인이 함께 활동하면서 생각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동반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영유아들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 및 탐구정신을 자극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같은 전시를 하더라도 나이와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한 자연 친화적 박물관(Green Museum)을 실천하기 위하여 친환경적으로 전시를 구성하고 있으며 어린이가 환경 보존의 중요성과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박물관 운영에 있어서는 뉴욕시와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입장료를 낮추었고, 연간 관람객 25만여 명 중 40%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해 무료로 입장하고 있다.[17]

17) 미국 브루클린 어린이박물관 홈페이지(http://www.brooklynkids.org) 내용을 참고로 함.

자료: 브루클린 어린이박물관 홈페이지(www.brooklynkids.org: 검색일 2013년 6월)

［그림 Ⅲ-2-3］ 미국 브루클린 어린이박물관 전경

2) 프랑스 퐁피두센터 어린이 아틀리에(L'Atelier des enfants de Centre geore Pompidou)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국립 조르주 퐁피두 예술문화센터는 예술·문화 활동의 여러 기능을 집결해 놓은 유럽 최고의 현대미술센터로, 어린이 아틀리에는 이 센터의 1층에 위치하고 있다. 퐁피두센터가 1977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어린이 아틀리에는 '놀이'를 핵심으로 하며, 형태·리듬·색상 등의 미술작품 요소를 놀이의 일부로 강조하고 있다. 아틀리에는 3가지 워크숍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2~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전시 및 전시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 일반적인 미술교육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고 있다.[18]

3) 일본 키즈 플라자 오사카(Kids Plaza Osaka)

1977년에 개관한 일본 키즈 플라자 오사카는 일본 최초의 어린이박물관이다. 키즈 플라자 오사카는 박물관의 기본이념으로 박물관에서 어린이가 즐겁게 놀며 체험을 통해 학습하면서 자신의 창조성을 발달시키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체험 중심 어린이박물관인 키즈 플라자 오사카는 5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층은 관람객을 맞이하는 공간으로, 3층은 창의성을 기르는 체험공간으로, 4층은 어린이 거리를 중심으로 마음껏 놀 수 있는 탐험공간으로, 5층은 발견을 통해 배우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 프로그램은 기획과에서 이루어지며 프로그램 교체주기는 3개월이다. 전시 체험물

18) 프랑스 퐁피두센터 홈페이지(http://www.centrepompidou.fr) 내용을 참고로 함.

의 교체 시기는 손상정도에 따라 교체물이 선정되며, 6개월에 1번씩 관람객 설문조사를 통해 교체되기도 한다.[19]

자료: 키즈 플라자 오사카(www.kidsplaza.or.jp: 검색일 2013년 6월)

〔그림 III-2-4〕 일본 키즈 플라자 오사카 활동 사례

다. 어린이놀이터

1) 호주 멜버른의 스키너스 놀이터(Skinners Playground)

호주 멜버른의 Skinners Playground는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어린이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Skinners Playground는 버려진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하여 어린이를 위한 모험놀이터로 디자인되었으며 창문, 바닥재, 이음새 등 거의 모든 자재를 재활용품으로 구성하여 어린이의 상상력을 유발하고 있다.

Skinners Playground 전경 | Skinners Playground의 놀이시설

자료: 김원주(2009). 상상과 창의를 유발하는 어린이공원 개선 전략. p. 10.

〔그림 III-2-5〕 호주 Skinners Playground

19) 일본 키즈 플라자 오사카 홈페이지(http://www.kidsplaza.or.jp) 내용을 참고로 함.

구조물 자체는 나무 위의 집이나 요새와 같은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활용 자재에 대한 원래 모습 및 용도를 설명해두어 스토리텔링 소재로도 활용 가능하다.

2) 뉴질랜드 왕거누이의 콰이 공원(Kowhai Park)

뉴질랜드 Kowhai Park는 1960년대 조성 당시부터 시대를 앞서는 놀이기구를 설치하였으며, 2005년 리모델링이 된 후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어린이공원으로 재탄생하였다. Kowhai Park는 어린이의 필요와 욕구에 맞추어 종래의 놀이터에 있는 그네, 미끄럼틀, 시소 등의 놀이기구를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디자인하여 설치하였다.

또한 공원 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모든 놀이기구는 신체적·환경적으로 위해가 없는 페인트를 사용하여 밝고 뚜렷한 색채를 띠고 있다. 공원 개선비용으로 총 200만~300만불(NZ$)이 소요되었으며, 조성 진행과정에 주민, 로타리클럽, 라이온스 등 시민단체의 자원봉사활동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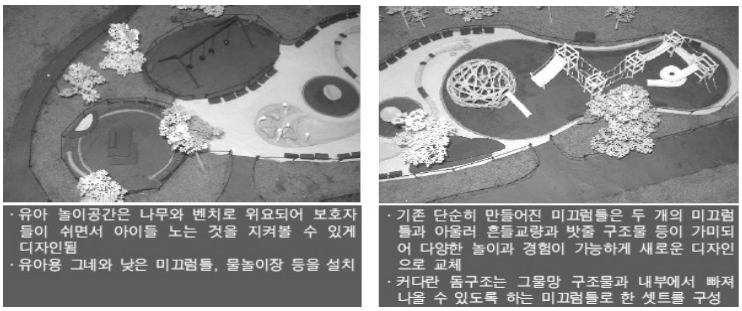
자료: 김원주(2009). 상상과 창의를 유발하는 어린이공원 개선 전략. p. 11.

〔그림 Ⅲ-2-6〕 뉴질랜드 Kowhai park

3) 미국 뉴욕의 반터빌티(Vanderbilt Playground)

미국 뉴욕의 Vanderbilt Playground는 공원 개선과 확충을 전문으로 하는 시

민단체인 Prospect Park Alliance(PPA)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조성된 사례이다. Vanderbilt Playground는 공원 디자인에 지역주민의 견해를 반영하여 수차례의 변경 과정을 거쳐 순수 어린이놀이터로 재단장되었으며, 어린이의 연령대에 맞는 복합 체험 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재미와 협동성을 갖추었다.



자료: 김원주(2009). 상상과 창의를 유발하는 어린이공원 개선 전략. p. 12.

〔그림 III-2-7〕 미국 Vanderbilt Playground

3. 소결

지금까지 국내외의 어린이 문화인프라 중에서 모범적인 사례가 될 만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어린이놀이터 각 시설별로 소개하였다.

미국이나 영국 등의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의 문화기반시설들을 설립해 나갔다. 미국의 경우 1875년에 이미 188개의 공공도서관을 설립한 역사를 갖고 있다(A. P., Stuart, 2009; 윤영애 역, 2012: 219).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문화기반시설의 설립이 1970년대 이후부터 본격화되면서 선진국에 비해 출발이 늦었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늘어나고 주 5일 근무의 확대로 인해 시민들은 문화를 향유하고 여가를 누리는 등 삶의 질을 중시하면서 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소자녀화, 핵가족화, 맞벌이 가족의 증가로 자녀를 가정 내에서 양육하기 어려워진 현실, 자녀의 질 높은 교육에 대한 욕구 증대, 아동중심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으로 일반적인 문화시설과 더불어, 어린이 문화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2000년 이후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이 빠르게 생겨나기 시작했다.

Ⅱ장에서 고찰했듯이, 공공도서관, 박물관과 미술관의 1관당 인구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문화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문화정책이 추진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 상황이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1개 도서관당 인구수는 66,556명으로 독일의 9,902명, 영국의 13,589명, 미국의 32,845명, 일본 40,068명보다 여전히 높다.

그렇지만 2006년에 개관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례로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도서관 서비스의 중요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이들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할 수 있겠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는 수유실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서 갓난아이 때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기적의도서관 역시, 갓난아이부터 도서관을 일상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컨셉으로 설립되었다. 2003년 한 방송국의 프로그램에서 출발하나 기적의도서관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민관이 협력하여(지자체가 도서관의 부지와 공사비의 절반을 지급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책사회가 설계, 시공함) 설립한 공공도서관이란 점에서 어린이도서관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도서관은 조용하고 엄숙해야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어린이 특히, 영유아가 일반도서관을 마음껏 이용하기란 쉽지 않았다. 최초의 기적의도서관인 순천기적의도서관에서 사례를 보면, 집에서 처럼 기고 뒹굴고 놀 수 있도록 도서관 전체가 온돌마루로 깔려 있으며 책도 자신이 원하는 자세로 누워서도 보고, 엎드려서도 볼 수 있도록 편안하게 열람실을 조성하였다. 기적의도서관은 책을 읽으러 오는 곳이 아니라 옆집의 친구네 놀러오는 것처럼, 영유아들에게 새로운 개념의 놀이터 도서관이다.

도서관이 발달한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어린이 전용도서관은 거의 없다. 이는 일찍부터 마을 구석구석 공공도서관이 설치되었고 어린이 대상 서비스를 만족스럽게 제공하기 때문에 설립의 필요성을 굳이 없었기 때문이다. 해외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어린이도서관은 일반도서관의 1층에 설립된 경우가 많았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어린이미술관인 퐁피두센터 어린이 아틀리에도 퐁피두센터의 1층에 위치하고 있다.

문화인프라의 설치 수준이 낮은 사회에서 어린이 전용문화시설은 더 많이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설립 시 “왜 특정 연령대 대상의 특화된 도서관이 필요하냐”라는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어린이 전용문화

시설 설립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처럼 새로운 문화시설의 설치는 많은 예산의 소요 및 반대 여론에 부딪칠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기존의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에 소속형태로 적극적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이미화 외, 2013: 501).

또한 현재 문화인프라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설치되어있지만, 오히려 도시지역이 영유아 인구수 대비 문화시설수는 열악하다.[20] 문화인프라 설립 시,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 중심으로 확충도 필요하지만, 인구규모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문화시설별로 설립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박물관과 미술관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시설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역지자체를 대표하는 성격의 시설과 모든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중소규모의 시설로 구분하여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도서관은 기초 생활 인프라의 성격이 강하므로 도서관 서비스가 지역 주민 모두에게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이원태 외, 2004: 18).

어린이 문화인프라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설치하느냐가 이용자 입장에서는 더욱 필요한 조건이다. 일본은 보통 걸어서 15분 이내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립되어 있으며 미국도 도서관의 입지조건으로 간선도로변에 위치하며 상가 및 근린지구 중심지 등 접근성을 중시하고 있다(김광식, 1993: 27; 이원태 외, 2004: 67 재인용). 도서관 뿐 아니라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도 대부분의 구도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역사가 오랜된 특징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런던의 대영박물관, 프랑스의 루브르박물관, 워싱턴의 스미소니안 박물관, 베를린의 오페라하우스 등이 구도심지에 입지하고 있어서 도시 주민뿐 아니라 국민 전체, 그리고 외국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이원태 외, 2004: 67).

향후 어린이 문화시설뿐 아니라 일반 문화시설도 영유아들이 부모와 함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가장 중요한 입지기준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문화경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 영유아 가정에게는 접근성이 문화시설 이용에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다. 과천에 위치한 국립현대미술관의 접근성 문제는 오랜 논란거리였다. 2012년에 개관한 국립대한민국역사박물관(광화문)과 2013년 11월에 개원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경복궁 터 옛 기무사 터)을 서울 도심 한복판에 건립함으로서 시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한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

20) 부록 5 참조.

Ⅳ. 가정에서의 문화인프라 이용실태

이 장에서는 본 설문조사에 응답한 1,000사례 가구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정리하였다. 응답자 가구·부모·자녀 특성, 부모의 문화인프라 이용 경험, 영유아의 문화인프라 이용 경험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고찰하면서 특히,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응답가구의 자녀 및 부모 특성

가. 자녀 특성

응답가구의 자녀 특성을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평균 총 자녀수는 일반가구는 1.57명, 저소득 가구는 1.69명으로 저소득가구의 자녀수가 조금 더 많았다. 영유아 자녀도 일반가구보다 저소득 가구에서 다소 많아서, 일반가구의 영유아 자녀수는 평균 1.37명이며, 저소득 가구에서는 1.41명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가장 연령이 높은 아동을 질문의 대상으로 지정하였는데, 대상 영유아가 현재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일반가구는 76.5%, 저소득 가구는 73.4%로 대부분의 영유아들이 기관 이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1〉 응답가구 자녀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구분	일반가구		저소득 가구	
	비율	평균	비율	평균
전체	100.0(782)		100.0(218)	
총 자녀수				
1명	48.2		41.3	
2명	46.8	1.57명	48.2	1.69명
3명 이상	4.9		10.6	

(표 Ⅳ-1-1 계속)

구분	일반가구		저소득 가구	
	비율	평균	비율	평균
영유아 자녀수				
1명	64.6	1.37명	61.9	1.41명
2명 이상	35.4		38.1	
대상자녀 연령				
영아	30.1	3.29세	31.2	3.3세
유아	69.9		68.8	
기관이용 여부				
이용	76.5		73.4	
미이용	23.5		26.6	

나. 부모의 특성

1) 일반적 특성

다음 <표 Ⅳ-1-2>는 응답대상인 영유아가 있는 가구 부모의 일반적 특성이다.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 부모의 연령대는 거의 비슷하나, 학력 차이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구의 부모 모두 대졸 이상의 학력 비중이 높아서 응답자 본인은 고졸이하가 27.4%, 배우자는 16.9%에 불과하였으나, 저소득가구에서는 응답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고졸이하의 학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각각 70.2%, 59.6%를 차지하였다.

직업은 응답자 본인은 전업주부의 비중이 가장 커서 일반가구의 응답자는 68.4%, 저소득가구 응답자는 71.1%가 이에 해당하나, 배우자는 가구특성별로 종사하는 직업의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가구의 배우자는 사무・관리・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49.6%로 가장 높았으나 저소득가구의 배우자는 생산/기능직에 33.2%로 가장 많이 종사하며, 그 다음으로 판매/영업/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컸다(23.8%). 또한 무직의 비율도 14.5%로 일반 가구의 1.9%에 비해 무직인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 본인이 영유아기에 거주한 지역을 알아보았는데, 일반가구의 응답자는 대도시에 거주했던 경우가 가장 많았고 저소득가구의 응답자는 중소도시가 가장 많았다. 배우자는 가구특성에 상관없이 중소도시가 가장 많았다.

〈표 Ⅳ-1-2〉 응답가구 부모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구분	일반가구		저소득가구	
	본인(응답자)	배우자	본인(응답자)	배우자
전체	100.0(782)	100.0(780)	100.0(218)	100.0(193)
연령				
30세 미만	10.6	3.3	11.0	3.6
30~34세	44.1	28.7	37.6	22.3
35~39세	36.2	46.8	41.3	48.2
40세 이상	9.1	21.2	10.1	25.9
평균(세)	34.1세	36.3세	34.5세	36.9세
최종학력				
고졸이하	27.4	16.9	70.2	59.6
전문대졸	31.5	23.1	22.0	24.4
대졸	36.3	51.3	6.4	14.5
대학원 이상	4.9	8.3	1.4	1.6
비해당(부재, 이혼)	0.0	0.4	0.0	0.0
직업				
자영업	5.6	14.7	2.8	9.8
전업주부	68.4	2.3	71.1	2.6
판매/영업/서비스직	9.2	17.1	14.2	23.8
생산/기능직	2.0	11.2	4.1	33.2
사무/관리/전문직	13.0	49.6	4.1	11.9
농/임/어업	0.5	2.1	0.5	0.5
무직	0.5	1.9	0.5	14.5
기타	0.5	1.2	2.8	3.6
영유아기 거주지역				
대도시	40.5	37.4	31.7	35.8
중소도시	39.4	38.5	47.2	38.3
읍면지역	20.1	24.1	21.1	25.9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2) 부모의 문화인프라 이용 경험 특성

여기서는 주로 30대 중반인 이들 부모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을 살펴보았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놀이공원, 극장 등 5종의 문화시설을 대상으로 부모의 지금까지의 이용 경험 여부 및 최초 이용 시기, 이용 경험의 정도를 알아보았다.

다음 <표 Ⅳ-1-3>에 따르면, 이용경험이 가장 많은 문화시설은 극장으로 94.6%가 이용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미술관의 이용 경험은 56%로 가장 낮았다. 대체로 극장과 놀이공원 같은 소비성 문화시설의 이용 경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화시설별 이용 경험은 가구특성과 지역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가구에 비해 일반가구의 전반적인 이용률이 높고, 문화시설 종류별로는 놀이공원과 극장의 이용경험은 저소득가구나 일반가구 모두 90%를 상회하게 높지만,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의 이용 경험은 일반가구가 10~20%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거주하는 지역규모에 따라 문화시설 이용 경험이 달리 나타나는데, 문화인프라가 풍부한 도시 지역에서의 경험률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읍면지역에서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Ⅳ-1-3〉 부모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

단위: %(명)

구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놀이공원	극장	계
전체	87.6	79.5	56.0	93.6	94.6	100.0(1,000)
가구특성						
일반	90.8	83.8	60.4	94.4	95.7	100.0(782)
저소득	76.1	64.2	40.4	90.8	90.8	100.0(218)
지역규모(현재)						
대도시	86.7	76.9	57.3	93.5	96.4	100.0(445)
중소도시	86.5	81.6	53.3	93.5	92.1	100.0(430)
읍면지역	94.4	81.6	60.8	94.4	96.8	100.0(125)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다음으로 문화시설 종류별로 부모의 최초 이용 경험 시기와 이용 경험 정도를 살펴보았다(표 Ⅳ-1-4 참조). 문화시설을 최초로 이용하기 시작한 시기는 초중고, 즉 학령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영유아기부터 시작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영유아기에 가장 많이 이용한 문화시설은 놀이공원으로 24.5%를 차지했으며, 이에 비해 가장 늦게 이용한 문화시설은 미술관으로 29.5%가 고교 졸업 후에 처음 이용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요컨대 부모들이 가장 일찍 이용하기 시작한 문화시설은 '놀이공원'이며, 학령기에는 도서관과 박물관을 이용하기 시작한 경우가 많고, 미술관은 가장 늦게 이용한 것으로서 생애주기별 차이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들이 응답한 각 문화시설 이용 경험의 정도를 살펴보면, 이용 경험이 '매우 적다'는 응답은 '미술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45.4%가 이에 응답하였고, '박물관'도 38.1%가 이용 경험이 매우 적다고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이용 경험이 매우 많다는 응답은 희소하여, 부모들은 자신들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을 대체로 적은 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중 이용 경험이 많은 편에 속하는 문화시설은 극장으로 '많은 편+매우 많음'이 29.5%에 해당하였고 그 다음으로'도서관 21.8%, 놀이공원 15.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용 시기가 가장 늦은 미술관이 이용 경험 정도에서도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Ⅳ-1-4〉 부모의 문화시설 최초 이용 시기와 경험 정도

단위: %(명)

구분	최초 이용 시기				이용 경험 정도				계(수)
	영유아기	초중고 시기	고교 졸업후	잘모름	매우 적음	적은편	많은편	매우 많음	
도서관	9.1	78.4	11.9	0.6	20.4	57.8	20.4	1.4	100.0(876)
박물관	8.2	76.5	15.1	0.3	38.1	53.2	8.1	0.6	100.0(795)
미술관	5.2	63.6	29.5	1.8	45.4	47.3	6.3	1.1	100.0(560)
놀이공원	24.5	53.6	20.1	1.8	25.2	58.9	14.3	1.6	100.0(936)
극장	10.3	66.5	21.9	1.4	11.8	58.7	24.8	4.7	100.0(946)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다음 <표 Ⅳ-1-5>는 부모의 문화시설별 최초 이용시기와 이용경험 정도를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별로 살펴본 결과이다. 최초 이용 시기를 영유아기와 영유아기 이후(학령기 이후)로 살펴보았는데, 최초 이용 시기는 현재 일반가구/저소득가구에 따른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저소득가구 중에서도 부모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이 더 빠른 경우가 있었다.

문화시설 이용 경험의 정도는 4점 척도(매우 적음 1점에서 매우 많음 4점까지)로 측정하여 평균을 산출, 비교하였다. 문화시설 종류별에 따른 부모의 최초 이용 시기는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이용 경험 정도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놀이공원, 극장 모두 일반가구 부모가 저소득 가구의 부모보다 이용 경험이 많았다.

〈표 Ⅳ-1-5〉 가구특성에 따른 부모의 문화시설 최초 이용 시기와 경험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가구 특성	최초 이용 시기		이용 경험 정도		계(수)
		영유아기	영유아기 이후	평균(4점)	*t*	
도서관	일반	8.9	91.1	2.06	9.765**	100.0(710)
	저소득	10.2	89.8	1.88		100.0(166)

(표 Ⅳ-1-5 계속)

구분	가구 특성	최초 이용 시기		이용 경험 정도		계(수)
		영유아기	영유아기 이후	평균(4점)	*t*	
박물관	일반	8.4	91.6	1.75	12.186**	100.0(655)
	저소득	7.1	92.9	1.54		100.0(140)
미술관	일반	5.1	94.9	1.68	18.094***	100.0(472)
	저소득	5.7	94.3	1.36		100.0(88)
놀이공원	일반	23.8	76.2	1.96	12.660***	100.0(738)
	저소득	26.8	73.2	1.77		100.0(198)
극장	일반	10.6	89.4	2.28	19.839***	100.0(748)
	저소득	9.1	90.9	2.03		100.0(198)

주: 평균 점수가 클수록 이용을 많이 했다는 의미임.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일반가구에서 이용 경험 정도가 가장 많은 문화시설은 극장이며(2.28점), 미술관의 이용 경험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1.68점), 이러한 경향은 저소득가구에서도 동일하여 극장의 이용 경험 정도가 가장 많고(2.03점) 미술관의 이용 경험 정도가 가장 낮았다(1.36점)(표 Ⅳ-1-5 참조).

이러한 문화시설 이용 경험 정도에 대해 동년배(동세대)와 비교해서 충분한지 내지는 부족한지의 정도를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결과는 다음 <표 Ⅳ-1-6>과 같다.

〈표 Ⅳ-1-6〉 동년배(동세대)와 비교시 문화시설 이용 경험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부족	충분	계	평균(4점 만점)	*t/F*
전체	76.3	23.7	100.0(1000)	2.1	
가구특성					
일반	73.9	26.1	100.0(782)	2.2	4.296***
저소득	84.9	15.1	100.0(218)	2.0	
지역규모					
대도시	71.9	28.1	100.0(445)	2.2	
중소도시	78.4	21.6	100.0(430)	2.1	5.163**
읍면지역	84.8	15.2	100.0(125)	2.0	

주: 부족(매우 부족+부족), 충분(충분+매우 충분); 점수가 클수록 경험이 충분하다는 의미임.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응답자인 부모들은 대체로 자신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이 부족한 편이라 인식하고 있어, '매우 부족+ 부족'이 76.3%, '충분+매우 충분'이 23.7%로 응답되었고, 4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평균 2.1점에 불과하였다.

문화시설 이용 경험 정도는 가구특성, 지역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저소득가구에 비해 일반가구의 이용 경험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2.2점, 중소도시 2.1점, 군지역 2.0점 순으로 문화시설 이용 경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동년배(동세대)와 비교한 문화시설 이용 경험의 정도는 비록 주관적으로 측정된 것이나 어느 정도 실제 이용 경험이 반영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부모들은 자신들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에 대해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또한 부모의 이용 경험이 자녀의 문화시설 이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Ⅳ-1-7>에 따르면 부모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경우가 78.9%이며, 이를 점수로 환산하면 4점 만점에 평균 2.9점으로 부모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비교적 높게 인식되고 있었다.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경우도 11.8%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특성이나 대상자녀의 연령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지역규모별에서 도시보다는 읍면지역의 부모가 자신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7〉 부모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이 자녀에 미치는 영향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없음	없음	있음	매우 있음	종합		계	평균	t/F
					없음	있음			
전체	1.9	19.2	67.1	11.8	21.1	78.9	100.0(1,000)	2.9	
가구특성									
일반	1.9	18.3	67.8	12.0	20.2	79.8	100.0(782)	2.9	1.075
저소득	1.8	22.5	64.7	11.0	24.3	75.7	100.0(218)	2.9	
대상자녀 연령									
영아	2.6	18.2	67.7	11.6	20.8	79.2	100.0(303)	2.9	-.232
유아	1.6	19.7	66.9	11.9	21.2	78.8	100.0(697)	2.9	
지역규모									
대도시	2.5	22.7	63.4	11.5	25.2	74.8	100.0(445)	2.8	13.041***
중소도시	1.9	18.6	70.7	8.8	20.5	79.5	100.0(430)	2.9	

(표 Ⅳ-1-7 계속)

구분	전혀 없음	없음	있음	매우 있음	종합		계	평균	t/F
					없음	있음			
읍면지역	0.0	8.8	68.0	23.2	8.8	91.2	100.0(125)	3.1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 $p < .001$

2. 영유아의 문화인프라 최초 이용 경험

이 절에서는 응답가구의 영유아 자녀 중 가장 연령이 높은 아동이 출생 후 어떠한 문화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가. 출생 후 이용한 문화시설 종류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정의한 문화인프라는 집근처 놀이터를 제외하고는 출생 후 지금까지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표 Ⅳ-2-1〉 영유아의 문화시설 종류별 이용 경험

단위: %(명)

구분	이용함	이용하지 않음	계
일반도서관	23.8	76.2	100.0(1,000)
어린이도서관	22.6	77.4	100.0(1,000)
일반박물관	23.9	76.1	100.0(1,000)
어린이박물관	18.9	81.1	100.0(1,000)
일반미술관	8.4	91.6	100.0(1,000)
어린이미술관	6.2	93.8	100.0(1,000)
문예회관	14.3	85.7	100.0(1,000)
(집근처) 놀이터	95.3	4.7	100.0(1,000)
극장	47.7	52.3	100.0(1,000)
놀이공원	70.5	29.5	100.0(1,000)
사설 키즈카페	48.8	51.2	100.0(1,000)
과학관/천체관	21.0	79.0	100.0(1,000)
수족관/동·식물원	62.2	37.8	100.0(1,000)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영유아의 이용 경험이 가장 높았던 문화시설은 집근처 놀이터로 대부분의 영유아들이 이용하였다(95.3%). 다음으로 놀이공원 70.5%, 수족관·동식물원 62.2%,

사설 키즈카페 48.8%, 극장 47.7% 순으로 영유아의 이용 경험이 많았다. 집근처 놀이터의 높은 이용을 통해, 영유아기에 문화시설의 이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마음껏 놀이할 수 있으며 언제든 이용 가능한 거리에 있는 접근성이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 받을 수 있었다.

어린이미술관은 6.2%만이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이용이 가장 낮은 문화시설로 나타났고, 일반미술관 8.4%, 문예회관 14.3%, 어린이 박물관 18.9% 등으로 전체 응답자 중 경험률이 2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어린이도서관 22.6%, 일반도서관 23.8%, 일반박물관 23.9% 정도만이 이용했다고 응답해, 이용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영유아의 이용이 많은 문화시설은 공공재적인 문화시설보다는 소비적인 문화시설이라 할 수 있다. 소비재적인 성격이 강한 놀이공원이나 사설 키즈카페 등은 고액의 이용료를 지불해야 이용 가능한 놀이시설이다. 놀이공원의 입장료와 놀이시설 이용료, 수족관·동식물원의 입장료가 1인당 1만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으며, 1회 이용 시 1~2시간의 시간제한을 두면서 역시 1인당 적게는 몇 천원에서 1~2만원에 이르는 이용료가 소요되는 사설 키즈카페의 이용이 48.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영유아기에 '놀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어린 아동의 놀이문화가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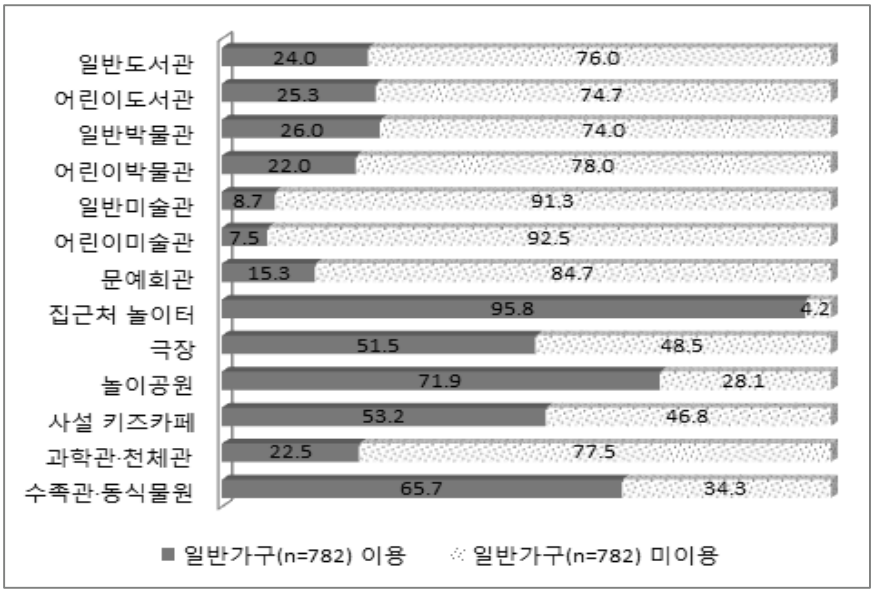
다음의 <표 Ⅳ-2-2>는 이러한 문화시설 이용 경험을 가구특성별로 살펴본 결과이다.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를 불문하고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과학관/천체관의 이용률은 낮은 편이고, 극장, 놀이공원, 키즈카페, 수족관/동·식물원의 이용경험은 모두 높은 편에 속하였다. 영유아의 특성으로 인해 놀이를 즐기며 체험이 가능한 문화시설 위주로 이용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앞서 지적했듯이 공공재적인 문화시설보다는 소비재인 문화시설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놀이터는 일반가구와 저소득 가구 모두 95%를 전후한 높은 이용 경험을 보였다. 다만, 모든 문화시설에 있어 저소득가구의 이용 경험이 일반가구보다 낮게 나타났다. 특히 극장이나 사설 키즈카페, 수족관/동·식물원처럼 이용 비용이 높은 문화시설 이용경험에서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이 눈에 띈다. 즉, 영화나 연극, 뮤지컬 등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극장의 이용 경험이 일반 가구는 51.5%로 나타났으나, 저소득가구는 33.9%에 불과했다. 사설 키즈카페는 일반가구 53.2%, 저소득가구 33.0%이며, 수족관·동식물원은 일반가구 65.7%, 저소득가구 49.5%로 저소득가구가 일반가구보다 현저히 낮은 이용 경험을 보였다.

〈표 Ⅳ-2-2〉 가구특성별 문화시설 종류별 이용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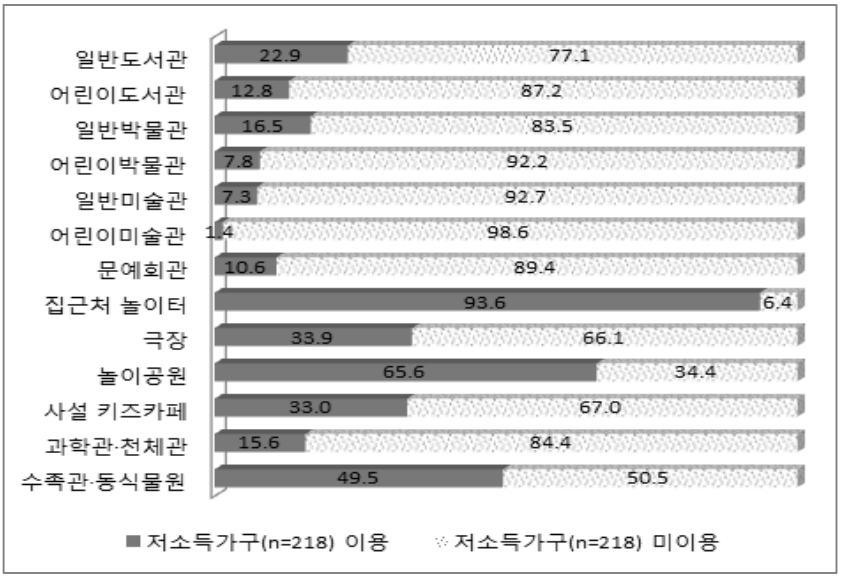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일반가구			저소득가구		
	이용	미이용	계(수)	이용	미이용	계(수)
일반도서관	24.0	76.0	100.0(782)	22.9	77.1	100.0(218)
어린이도서관	25.3	74.7	100.0(782)	12.8	87.2	100.0(218)
일반박물관	26.0	74.0	100.0(782)	16.5	83.5	100.0(218)
어린이박물관	22.0	78.0	100.0(782)	7.8	92.2	100.0(218)
일반미술관	8.7	91.3	100.0(782)	7.3	92.7	100.0(218)
어린이미술관	7.5	92.5	100.0(782)	1.4	98.6	100.0(218)
문예회관	15.3	84.7	100.0(782)	10.6	89.4	100.0(218)
놀이터	95.8	4.2	100.0(782)	93.6	6.4	100.0(218)
극장	51.5	48.5	100.0(782)	33.9	66.1	100.0(218)
놀이공원	71.9	28.1	100.0(782)	65.6	34.4	100.0(218)
사설 키즈카페	53.2	46.8	100.0(782)	33.0	67.0	100.0(218)
과학관/천체관	22.5	77.5	100.0(782)	15.6	84.4	100.0(218)
수족관/동·식물원	65.7	34.3	100.0(782)	49.5	50.5	100.0(218)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Ⅳ-2-1〕 문화시설 종류별 최초 이용 경험(일반가구)



〔그림 Ⅳ-2-2〕 문화시설 종류별 최초 이용 경험(저소득 가구)

나. 영유아의 문화시설 최초 이용 시기 및 인지 경로

영유아가 이용한 문화시설별 최초 이용 시기를 살펴보았다. 문화시설별로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영유아가 몇 세부터 그 시설을 이용하였는지를 알아보았다.

다음 <표 Ⅳ-2-3>에 의하면, 대체로 영아기보다는 유아기에 문화시설 이용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놀이터, 놀이공원, 사설 키즈카페, 수족관/동·식물원은 영아기에 최초로 이용한 사례가 더 많았다.

놀이터는 가장 일찍 경험하는 대표적인 문화시설이다. 만 0세에 13.5%가 이용을 시작하였고, 만 1세에 이미 60.1%가 이용을 시작하는 등 걸음마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용하며 걷기 시작하면서는 본격적으로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영아문화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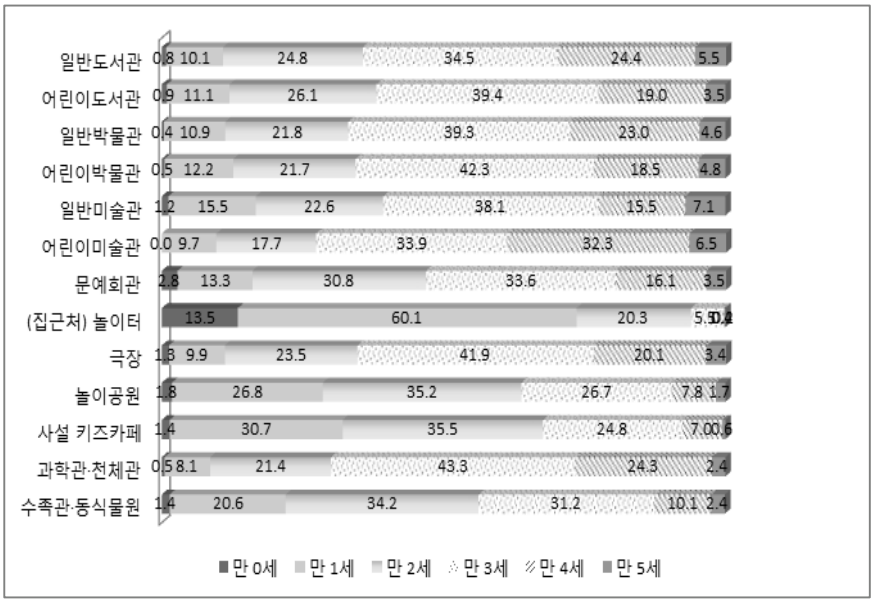
영유아기에 이용 경험이 많은 문화시설일수록 이용을 시작하는 시기도 대체로 빨라서, 영아기부터 시작되는 경향이 있고, 반면 이용 경험이 낮은 문화시설은 이용 시작시기도 늦어져 유아기(만 3세부터)부터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 Ⅳ-2-3〉 최초 이용 시기

단위: %(명)

구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종합 영아	종합 유아	계
일반도서관	0.8	10.1	24.8	34.5	24.4	5.5	35.7	64.3	100.0(238)
어린이도서관	0.9	11.1	26.1	39.4	19.0	3.5	38.1	61.9	100.0(226)
일반박물관	0.4	10.9	21.8	39.3	23.0	4.6	33.1	66.9	100.0(239)
어린이박물관	0.5	12.2	21.7	42.3	18.5	4.8	34.4	65.6	100.0(189)
일반미술관	1.2	15.5	22.6	38.1	15.5	7.1	39.3	60.7	100.0(84)
어린이미술관	0.0	9.7	17.7	33.9	32.3	6.5	27.4	72.6	100.0(62)
문예회관	2.8	13.3	30.8	33.6	16.1	3.5	46.9	53.1	100.0(143)
놀이터	13.5	60.1	20.3	5.5	0.4	0.2	93.9	6.1	100.0(953)
극장	1.3	9.9	23.5	41.9	20.1	3.4	34.6	65.4	100.0(477)
놀이공원	1.8	26.8	35.2	26.7	7.8	1.7	63.8	36.2	100.0(705)
사설 키즈카페	1.4	30.7	35.5	24.8	7.0	0.6	67.6	32.4	100.0(488)
과학관/천체관	0.5	8.1	21.4	43.3	24.3	2.4	30.0	70.0	100.0(210)
수족관/동·식물원	1.4	20.6	34.2	31.2	10.1	2.4	56.3	43.7	100.0(622)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Ⅳ-2-3〕 최초 이용 시기

요컨대 전체적으로 만 0세와 만 5세에 이용을 시작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놀이터'를 제외하면 만 0세에 이용을 시작한 비율은 문화시설 종류별로 3% 미만으로 나타났고 만 5세에 이용을 시작하는 경우도 각 문화시설 종류별로 8% 미만인 것으로 나타난다. 문화시설별로 최초로 이용하는 시기는 만 2~4세에 가장 높게 나타나며, 특히 만 3세 때 최초 이용을 하는 문화시설이 가장 많았다.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문예회관과 같은 공공 문화인프라는 만 3세에 처음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문화시설 종류별 최초 이용 시기를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표 Ⅳ-2-4 참조). 일부 문화시설을 제외(놀이터, 어린이도서관, 극장, 사설 키즈카페)하고는 대부분 문화시설을 저소득가구보다 일반가구가 이용하는 시기가 빨라서 영아기부터 이용을 시작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Ⅳ-2-4〉 가구특성별 문화시설 최초 이용 시기

단위: %(명)

구분	일반가구			저소득가구		
	영아기	유아기	계(명)	영아기	유아기	계(명)
일반도서관	38.3	61.7	100.0(188)	26.0	74.0	100.0(50)
어린이도서관	37.9	62.1	100.0(198)	39.3	60.7	100.0(28)
일반박물관	36.0	64.0	100.0(203)	16.7	83.3	100.0(36)
어린이박물관	34.9	65.1	100.0(172)	29.4	70.6	100.0(17)
일반미술관	44.1	55.9	100.0(68)	18.8	81.3	100.0(16)
어린이미술관	28.8	71.2	100.0(59)	0.0	100.0	100.0(3)
문예회관	49.2	50.8	100.0(120)	34.8	65.2	100.0(23)
(집근처) 놀이터	93.9	6.1	100.0(749)	94.1	5.9	100.0(204)
극장	34.0	66.0	100.0(403)	37.8	62.2	100.0(74)
놀이공원	64.9	35.1	100.0(562)	59.4	40.6	100.0(143)
사설 키즈카페	66.8	33.2	100.0(416)	72.2	27.8	100.0(72)
과학관/천체관	30.1	69.9	100.0(176)	29.4	70.6	100.0(34)
수족관/동·식물원	59.1	40.9	100.0(514)	42.6	57.4	100.0(108)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다음으로 이용한 문화시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인지 경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표 Ⅳ-2-5 참조),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대부분의 문화시설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다음은 '집근처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높았다. 영유아의 부모들은 또래 아동의 엄마 등 주변 지인들을 통해 문화시설 정보를 얻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사설 키즈카페의 경우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60%에 달하였다. 이밖에도 다양한 경로로 문화시설을 접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문화시설 종류별로는 인지경로가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 즉, 이용 경험이 가장 많은 놀이터는 '집주변에 위치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알게 됨'이라는 응답이 93.4%로 가장 많았고, 일반도서관도 동일한 이유가 알게 된 인지경로였다.

어린이 전용을 포함한 박물관, 미술관 등의 공공 문화시설은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통해,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높았다. 놀이공원, 극장, 과학관/천체관, 수족관/동·식물원은 '지인의 소개'가 가장 주된 인지경로이나 그 다음으로는 '대중매체'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표 Ⅳ-2-5〉 문화시설의 최초 인지 경로

단위: %(명)

구분	지인 소개	자체 홍보	인터넷 카페 블로그등	어린이집 유치원	대중 매체	접근처 위치	기타	계
일반도서관	31.1	18.9	2.9	6.7	1.3	38.2	0.8	100.0(238)
어린이도서관	39.8	22.1	8.4	7.5	4.0	18.1	0.0	100.0(226)
일반박물관	35.1	11.7	11.3	20.5	15.1	5.9	0.4	100.0(239)
어린이박물관	34.4	13.8	18.5	18.0	13.8	1.6	0.0	100.0(189)
일반미술관	36.9	8.3	22.6	15.5	10.7	3.6	2.4	100.0(84)
어린이미술관	30.6	12.9	22.6	19.4	9.7	4.8	0.0	100.0(62)
문예회관	29.4	14.7	13.3	16.1	14.7	11.2	0.7	100.0(143)
놀이터	4.5	0.8	0.4	0.6	0.2	93.4	0.0	100.0(953)
극장	30.0	8.0	15.1	9.4	19.5	17.8	0.2	100.0(477)
놀이공원	34.0	5.0	5.7	7.1	35.5	11.2	1.6	100.0(705)
사설 키즈카페	60.0	2.7	10.2	5.1	4.3	17.4	0.2	100.0(488)
과학관/천체관	34.3	7.1	11.0	20.5	22.9	4.3	0.0	100.0(210)
수족관/동·식물원	37.6	9.5	6.8	12.1	27.2	6.4	0.5	100.0(622)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다음으로 문화시설 선택 시 고려한 기준을 살펴보았다(표 Ⅳ-2-6 참조). 공공문화시설을 선택할 때 도서관과 놀이터를 제외하고는 '제공하는 프로그램 수준'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과 놀이터는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이었다. 이에 비해 소비재적인 문화시설인 극장, 놀이공원, 사설 키즈카페, 수족관/동·식물원은 '이용자의 경험담'이 선택의 주요 기준이었다.

〈표 Ⅳ-2-6〉 문화시설 선택시 가장 고려한 기준

단위: %(명)

구분	교통 편리성	접근성	편의 시설	비용	시설 유명도	프로 그램	이용 시간	안전성	경험담	계
일반도서관	18.9	42.4	3.4	1.7	2.9	13.9	6.7	1.7	8.4	100.0(238)
어린이도서관	15.5	25.7	8.8	1.3	6.2	21.2	8.4	0.9	11.9	100.0(226)
일반박물관	17.6	10.0	3.3	3.8	16.3	24.3	5.0	4.2	15.5	100.0(239)
어린이박물관	10.1	4.8	3.7	3.7	14.3	40.7	5.8	4.2	12.7	100.0(189)
일반미술관	14.3	3.6	8.3	1.2	17.9	33.3	8.3	13.1	0.0	100.0(84)
어린이미술관	6.5	3.2	6.5	1.6	24.2	37.1	3.2	6.5	11.3	100.0(62)
문예회관	14.0	7.0	5.6	4.9	12.6	44.8	0.7	2.1	8.4	100.0(143)
집근처놀이터	5.4	67.2	0.9	0.1	0.3	1.2	6.0	16.6	2.4	100.0(953)
극장	11.7	13.8	3.8	6.7	11.1	29.4	2.5	2.3	18.7	100.0(477)
놀이공원	14.2	3.8	7.8	7.0	16.3	11.1	9.6	10.6	19.4	100.0(705)
사설 키즈카페	7.8	12.5	23.4	4.9	3.1	9.4	7.0	13.5	18.4	100.0(488)
과학관/천체관	6.7	2.4	3.8	3.8	23.8	31.4	6.7	3.3	18.1	100.0(210)
수족관/동식물원	14.3	2.6	4.3	4.8	16.9	21.2	4.5	5.8	25.6	100.0(622)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3. 영유아의 최근 1년 문화인프라 이용 현황

지난 1년 동안(설문조사 실시 기준으로) 영유아 자녀와 함께 문화시설을 이용했는지, 이용했다면 이용횟수·목적·만족도 등을 알아보았다.

가. 문화시설별 이용 여부

1) 개요

지난 1년 동안 영유아 자녀가 가장 많이 이용한 문화시설로는 집근처 놀이터 94.6%로 대다수 영유아들이 이용했다. 다음으로 놀이공원 60.5%, 수족관·동식물원 47.1%, 사설 키즈카페 44.0%, 극장 42.1% 순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과 같이 공공재 문화시설을 이용한 경우는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앞서 본 장의 2절에서 살펴본 처음 이용 경험과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표 Ⅳ-2-1 참조).

영유아들이 뛰고 놀 수 있는 시설들이 구비된 시설을 주로 이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수족관·동식물원의 이용률이 높게 나온 것은 살아 움직이는 동(식)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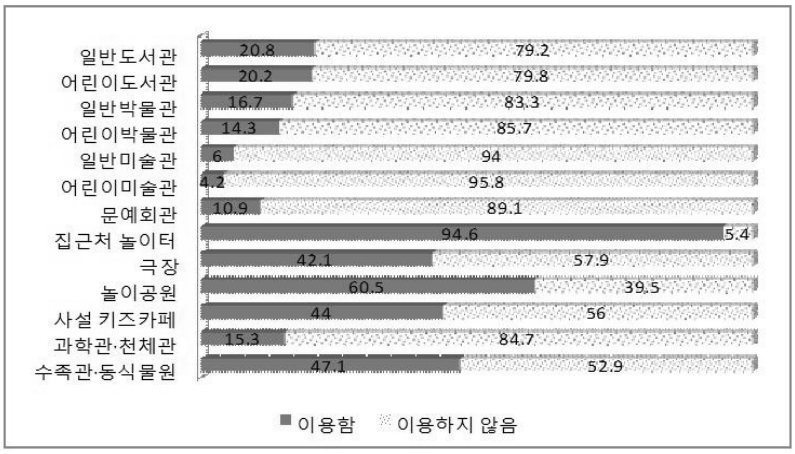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흥미를 유발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통해 영유아 자녀에게는 전시, 관람과 같이 정적인 문화활동보다는 자발적으로 신체를 움직이고 물체나 동식물을 탐색할 수 있는 문화활동이 더 적절하다고 부모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3-1〉 문화시설 종류별 지난 1년 이용여부

단위: %(명)

구분	이용함	이용하지 않음	계
일반도서관	20.8	79.2	100.0(1000)
어린이도서관	20.2	79.8	100.0(1000)
일반박물관	16.7	83.3	100.0(1000)
어린이박물관	14.3	85.7	100.0(1000)
일반미술관	6.0	94.0	100.0(1000)
어린이미술관	4.2	95.8	100.0(1000)
문예회관	10.9	89.1	100.0(1000)
집근처 놀이터	94.6	5.4	100.0(1000)
극장	42.1	57.9	100.0(1000)
놀이공원	60.5	39.5	100.0(1000)
사설 키즈카페	44.0	56.0	100.0(1000)
과학관/천체관	15.3	84.7	100.0(1000)
수족관/동·식물원	47.1	52.9	100.0(1000)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Ⅳ-3-1] 문화시설 종류별 지난 1년 이용여부

지난 1년 동안 문화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를 알아보았다. 문화시설 종류에 따라 미이용 이유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자녀가 어려서', '근처에 이용할 만한 시설이 없어서',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미이용의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그런데 어린이 전용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의 미이용 이유는 '가까운 곳에 이용할 만한 시설이 없어서'가 많이 나왔다. 일반도서관·박물관의 미이용 이유는 '자녀가 어려서'가 더 많이 나온 결과와 연결지어 볼 때, 어린이 전용 문화인프라가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면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정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표 Ⅳ-3-2〉 문화시설 종류별 지난 1년 동안 미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근처에 이용 가능한 시설이 없어서	비용 부담	시간 부족	이용 필요 못 느껴서	시설 수준 불만족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 부족	자녀가 어려서	기타	계
일반도서관	21.9	2.6	10.2	19.8	1.3	4.0	39.5	0.6	100.0(798)
어린이도서관	43.2	3.6	10.8	13.9	1.0	2.0	24.6	0.9	100.0(798)
일반박물관	30.5	5.6	11.4	15.2	1.3	4.6	30.9	0.5	100.0(833)
어린이박물관	48.7	6.0	10.4	11.0	0.8	2.0	20.3	0.9	100.0(857)
일반미술관	33.7	6.7	8.1	17.9	0.2	4.3	28.8	0.3	100.0(940)
어린이미술관	50.1	5.2	10.0	11.8	0.1	2.6	19.3	0.7	100.0(958)
문예회관	29.1	11.0	9.2	15.9	0.4	5.8	28.1	0.4	100.0(891)
놀이터	24.1	1.9	13.0	22.2	5.6	0.0	33.3	0.0	100.0(54)
극장	11.7	12.8	10.7	11.1	0.7	9.7	43.4	0.0	100.0(579)
놀이공원	31.4	20.3	12.2	6.1	2.0	0.5	27.3	0.3	100.0(395)
사설 키즈카페	30.4	28.9	10.0	13.4	2.5	1.4	13.4	0.0	100.0(560)
과학관/천체관	36.8	12.5	10.4	9.9	0.5	3.1	26.2	0.6	100.0(847)
수족관/동식물원	32.1	16.3	17.0	9.5	2.1	1.9	20.6	0.6	100.0(529)

주: 기타에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이용, 관련 정보 부족이 포함됨.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2) 가구유형에 따른 이용여부

가구유형에 따라 최근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데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모든 문화시설에서 일반가구가 저소득가구보다 문화시설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난 문화시설은 어린이도서관, 어린이박물관, 어린이미술관, 극장, 사설 키즈카페, 수족관/동·식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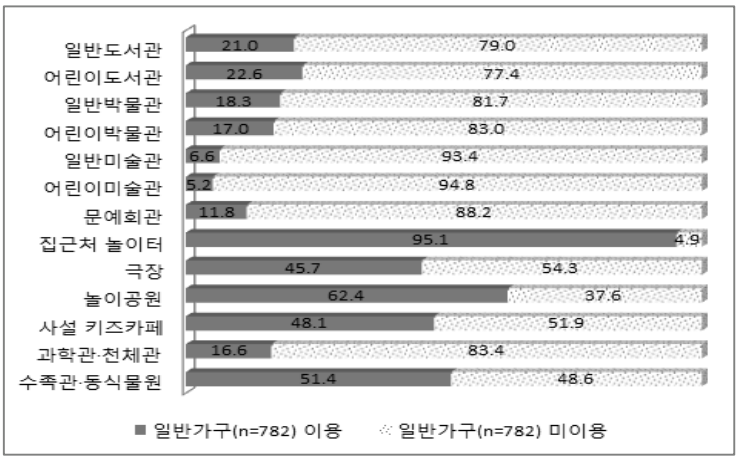
으로 보고되었다.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 이용에서 가구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소득가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문화시설을 접하는 경우가 일반가구의 자녀에 비해 적으며 특히,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이라든가 또는 사설 키즈카페, 수족관/동·식물원과 같이 이용료가 비싼 시설에 대한 이용은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3〉 가구특성별 문화시설 종류별 지난 1년 이용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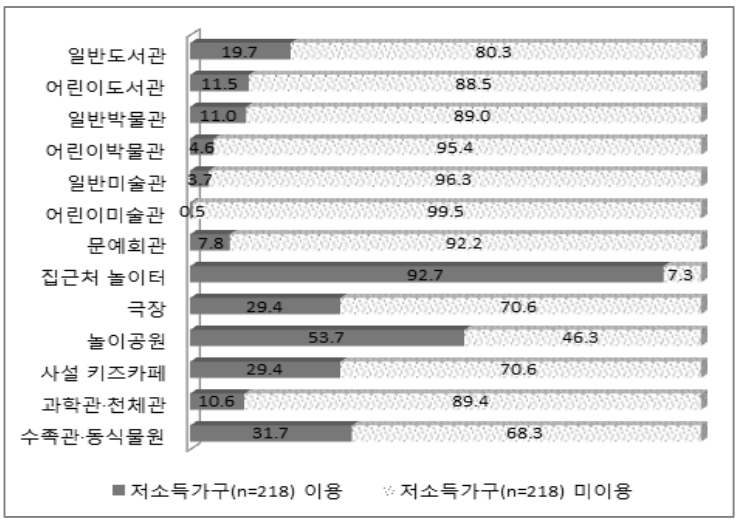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일반가구(n=782)		저소득가구(n=218)	
	이용	미이용	이용	미이용
일반도서관	21.0	79.0	19.7	80.3
어린이도서관	22.6	77.4	11.5	88.5
일반박물관	18.3	81.7	11.0	89.0
어린이박물관	17.0	83.0	4.6	95.4
일반미술관	6.6	93.4	3.7	96.3
어린이미술관	5.2	94.8	0.5	99.5
문예회관	11.8	88.2	7.8	92.2
집근처 놀이터	95.1	4.9	92.7	7.3
극장	45.7	54.3	29.4	70.6
놀이공원	62.4	37.6	53.7	46.3
사설 키즈카페	48.1	51.9	29.4	70.6
과학관/천체관	16.6	83.4	10.6	89.4
수족관/동·식물원	51.4	48.6	31.7	68.3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Ⅳ-3-2〕 영유아의 문화시설 종류별 이용(일반가구)



［그림 Ⅳ-3-3］ 영유아의 문화시설 종류별 이용(저소득가구)

놀이터를 제외한 공공 문화시설의 이용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문화시설의 이용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시설종류별, 가구특성별로 분석해 보았다(표 Ⅳ-3-4 참조). 일반도서관은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 모두 '자녀가 어려서'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일반도서관이 대개 실내정숙을 요구하며 영유아를 위한 도서가 많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도서관의 미이용 이유는 일반도서관의 미이용 이유와 달리, '근처에 이용가능한 시설이 없어서'를 일반·저소득 가구 모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어린이도서관은 일반도서관과는 분명히 다른 차별성이 있는 문화시설임을 알 수 있는 조사결과로서, 어린이도서관이 집 주변 가까이에 설립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박물관은 일반가구·저소득가구 간의 미이용 이유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일반가구에서 일반박물관은 '자녀가 어려서', 어린이박물관은 '근처에 이용가능한 시설이 없어서'이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저소득가구는 두 시설 모두 '근처에 이용가능한 시설이 없어서'를 가장 많이 꼽으면서 '비용부담'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일반가구에 비해 높게 나왔다. 국립박물관은 현재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기타 박물관은 입장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저소득 가구가 이용할 경우 부담을 가질 수 있다.

공공문화시설 중 이용이 가장 낮은 일반미술관과 어린이미술관도 '근처에 없어서' '자녀가 어려서' 순으로 가구특성에 상관없이 미이용 이유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저소득가구는 '비용부담'과 '이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일반가구보다 높게 나왔다.

문예회관은 가구특성별로 이용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일반가구는 '자녀가 어려서' '근처에 이용가능한 시설이 없어서' '이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순으로 응답한 반면, 저소득가구는 '근처에 이용가능한 시설이 없어서'와 '비용부담'의 거의 비슷한 비율로 많이 나왔다. 문예회관의 경우 '비용부담'의 응답비율이 일반가구보다 4배 이상 많았다. 음악회, 뮤지컬, 작품전시회 등 관람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문예회관의 경우 공연료·관람비가 대체로 비싸기 때문에 저소득가구가 영유아와 함께 가족단위로 이용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표 Ⅳ-3-4〉 문화시설 종류별·가구특성별 지난 1년 미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근처에 이용 가능한 시설이 없어서	비용 부담	시간 부족	이용 필요를 못느껴서	시설 수준 불만족	프로그램 부족	자녀가 어려서	기타	계
일반도서관									100.0(798)
일반가구	22.3	2.1	10.4	18.4	1.0	4.4	40.8	0.7	100.0(618)
저소득가구	20.6	4.6	9.7	24.6	2.3	2.9	34.9	0.6	100.0(175)
$\chi^2(df)$=10.609(9)									
어린이도서관									100.0(798)
일반가구	42.8	2.6	10.6	14.5	1.2	1.7	25.8	0.9	100.0(605)
저소득가구	44.6	6.7	11.4	11.9	0.5	3.1	20.7	1.0	100.0(193)
$\chi^2(df)$=12.103(8)									
일반박물관									100.0(833)
일반가구	29.9	3.3	11.1	15.3	1.6	5.3	33.0	0.5	100.0(639)
저소득가구	32.5	13.4	12.4	14.9	0.5	2.1	23.7	0.5	100.0(194)
$\chi^2(df)$=36.896(8)***									
어린이박물관									100.0(857)
일반가구	52.1	3.4	9.1	10.6	0.8	1.8	21.3	0.9	100.0(649)
저소득가구	38.0	13.9	14.4	12.0	1.0	2.4	17.3	1.0	100.0(208)
$\chi^2(df)$=45.528(8)***									
일반미술관									100.0(940)
일반가구	35.1	4.5	8.6	17.3	0.3	3.8	30.1	0.3	100.0(730)
저소득가구	29.0	14.3	6.2	20.0	0.0	5.7	24.3	0.5	100.0(210)

(표 Ⅳ-3-4 계속)

구분	근처에 이용 가능한 시설이 없어서	비용 부담	시간 부족	이용 필요를 못느껴서	시설 수준 불만족	프로그램 부족	자녀가 어려서	기타	계
$\chi^2(df)$=30.916(7)***									
어린이미술관									100.0(958)
일반가구	52.8	3.2	9.3	10.7	0.1	3.0	20.1	0.8	100.0(741)
저소득가구	41.0	12.0	12.4	15.7	0.0	1.4	16.6	1.0	100.0(217)
$\chi^2(df)$=41.235(9)***									
문예회관									100.0(891)
일반가구	29.6	6.5	9.4	16.1	0.3	6.5	31.2	0.4	100.0(690)
저소득가구	27.4	26.4	8.5	15.4	1.0	3.5	17.4	0.5	100.0(201)
$\chi^2(df)$=70.886(7)***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나. 문화시설별 이용 현황

지난 1년 동안 문화시설을 이용한 경우에 이용 횟수, 주로 이용한 교통수단, 집에서 문화시설까지 이동시간 등을 알아보았다.

1) 이용 횟수

집근처 놀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문화시설들은 대부분 1년에 1회 내지는 2~5회 정도 이용한다고 응답하여 이용횟수가 잦지 않았다. 공공재적 문화시설 중 박물관·미술관은 1년에 1회 이용했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도서관은 1년에 2~5회 이용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와서 생활밀착형 공공 문화시설이라 볼 수 있다. 소비재적 문화시설 중에는 극장과 사설 키즈카페가 연 2~5회 이용으로 가장 많았고, 이용이 많았던(그림 Ⅳ-3-1 참조) 수족관/동·식물원은 연 1회 이용이 주를 이루어서 자주 이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5〉 문화시설 종류별 지난 1년 동안 이용 횟수

단위: %(명)

구분	1회	2~5회	6~12회	한달에 2~3회	한달에 4회 이상	계
일반도서관	13.5	48.8	20.8	14.5	2.4	100.0(207)

(표 Ⅳ-3-5 계속)

구분	1회	2~5회	6~12회	한달에 2~3회	한달에 4회 이상	계
어린이도서관	14.4	53.5	19.3	8.9	4.0	100.0(202)
일반박물관	61.7	31.7	3.6	1.8	1.2	100.0(167)
어린이박물관	69.9	28.7	0.7	0.7	0.0	100.0(143)
일반미술관	65.0	31.7	0.0	1.7	1.7	100.0(60)
어린이미술관	59.6	38.1	2.4	0.0	0.0	100.0(42)
문예회관	42.2	45.9	11.0	0.9	0.0	100.0(109)
집근처 놀이터	1.6	1.6	3.4	16.1	77.4	100.0(946)
극장	21.1	61.5	12.8	3.3	1.2	100.0(421)
놀이공원	49.4	44.5	4.6	1.3	0.2	100.0(605)
사설 키즈카페	10.2	49.8	23.4	13.2	3.4	100.0(440)
과학관/천체관	75.8	20.3	2.6	0.0	1.3	100.0(153)
수족관/동·식물원	61.6	35.9	1.9	0.2	0.4	100.0(471)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2) 이용하는 주된 교통수단 및 이동시간

집근처 놀이터를 제외한 모든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개인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재 문화시설은 도서관이, 소비재 문화시설은 사설 키즈카페가 도보 이용자가 많았다. 영유아 자녀를 데리고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집 근처에 위치해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개인차량 이용이 많다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편하게 이용할 만한 문화시설들이 집 주변에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목할 만 한 점은 문화시설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이 매우 저조하다는 사실이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셔틀버스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와 운영하더라도 이용자가 불편해서 이용하지 않는 경우이다. 셔틀버스 이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이 중요하다. 문화시설들이 영유아와 함께 도보 이용이 가능하지 않는 거리에 위치한 경우가 많으므로 대중교통의 이용을 제고하려면 대중교통과 연계를 용이하게 셔틀버스를 운행해야 하겠다.

〈표 Ⅳ-3-6〉 문화시설 종류별 지난 1년 이용한 주된 교통수단

단위: %(명)

구분	도보	개인차량	대중교통	셔틀버스	계
일반도서관	33.8	54.6	10.6	1.0	100.0(207)
어린이도서관	17.3	56.9	23.8	2.0	100.0(202)

(표 Ⅳ-3-6 계속)

구분	도보	개인차량	대중교통	셔틀버스	계
일반박물관	8.4	81.4	6.6	3.6	100.0(167)
어린이박물관	2.1	72.7	18.2	7.0	100.0(143)
일반미술관	3.3	83.3	6.7	6.7	100.0(60)
어린이미술관	2.4	71.4	26.2	0.0	100.0(42)
문예회관	8.3	82.6	8.3	0.9	100.0(109)
집근처 놀이터	95.7	3.8	0.3	0.2	100.0(946)
극장	2.1	72.2	24.0	1.7	100.0(421)
놀이공원	0.7	82.3	13.9	3.1	100.0(605)
사설 키즈카페	19.8	57.0	22.3	0.9	100.0(440)
과학관/천체관	0.0	88.9	8.5	2.6	100.0(153)
수족관/동·식물원	0.2	84.5	12.5	2.8	100.0(471)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가구특성별로 이용한 교통수단을 보면, 저소득가구에서 도보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박물관을 이용할 때 일반가구의 도보 이용은 2.8%였다면 저소득가구는 41.7%가 도보를 이용하였다. 대중교통 이용은 문화시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도서관을 이용할 때 대중교통 이용을 일반가구가 더 많이 했다면, 박물관은 저소득가구가 더 많이 했다. 그러나 저소득가구의 이용사례가 많지 않아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표 Ⅳ-3-7〉 가구특성별 문화시설 종류별 지난 1년 이용한 주된 교통수단

단위: %(명)

구분	일반가구					저소득가구				
	도보	개인차량	대중교통	셔틀버스	소계	도보	개인차량	대중교통	셔틀버스	소계
일반도서관	31.1	55.5	12.2	1.2	(164)	44.2	51.2	4.7	0.0	(43)
어린이도서관	14.7	58.8	24.3	2.3	(177)	36.0	44.0	20.0	0.0	(25)
일반박물관	2.8	88.1	6.3	2.8	(143)	41.7	41.7	8.3	8.3	(24)
어린이박물관	1.5	75.2	16.5	6.8	(133)	10.0	40.0	40.0	10.0	(10)
일반미술관	3.8	84.6	5.8	5.8	(52)	0.0	75.0	12.5	12.5	(8)
어린이미술관	2.4	70.7	26.8	0.0	(41)	0.0	100.0	0.0	0.0	(1)
문예회관	6.5	85.9	6.5	1.1	(92)	17.6	64.7	17.6	0.0	(17)
집근처 놀이터	95.3	4.0	0.4	0.3	(744)	97.0	3.0	0.0	0.0	(202)
극장	2.2	72.3	24.4	1.1	(357)	1.6	71.9	21.9	4.7	(64)
놀이공원	0.4	87.3	9.6	2.7	(488)	1.7	61.5	31.6	5.1	(117)
사설 키즈카페	18.1	57.7	23.1	1.1	(376)	29.7	53.1	17.2	0.0	(64)
과학관/천체관	0.0	88.5	10.0	1.5	(130)	0.0	91.3	0.0	8.7	(23)

(표 Ⅳ-3-7 계속)

구분	일반가구					저소득가구				
	도보	개인 차량	대중 교통	셔틀 버스	소계	도보	개인 차량	대중 교통	셔틀 버스	소계
수족관/동·식물원	0.2	87.8	9.2	2.7	(402)	0.0	65.2	31.9	2.9	(69)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문화시설 중 이동시간이 가장 짧은 문화시설은 집근처 놀이터로서 이동시간이 6분대로 집계되었다. 다음으로 이동시간이 짧은 문화시설은 도서관으로서, 일반도서관 약 17분, 어린이도서관 약 20분 정도가 소요되며 가장 긴 문화시설은 놀이공원과 수족관/동·식물원으로 거의 1시간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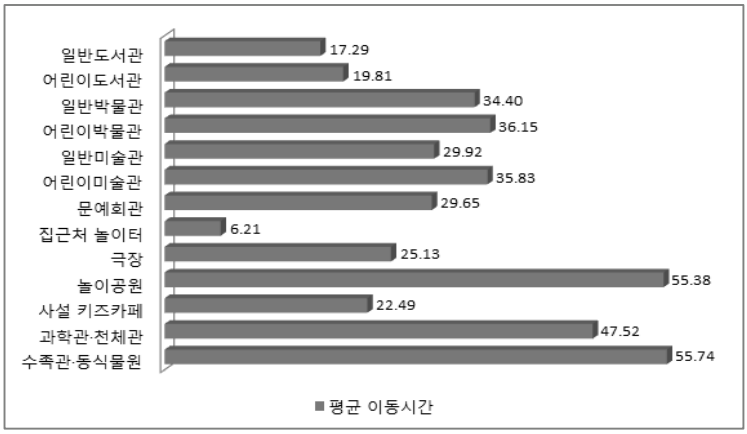
놀이공원과 수족관/동·식물원이 이동 소요시간은 가장 길지만, 지난 1년동안 이용을 많이 한 문화시설이란 점에서(그림 Ⅳ-3-1 참조)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는 이동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1년에 최소 1회 이상 이용하는 인기있는 문화시설이라 볼 수 있다. 놀이터 다음으로 극장과 사설 키즈카페가 이동의 소요시간이 짧은 문화시설로서 약 20분대로 집계되었다.

〈표 Ⅳ-3-8〉 지난 1년 동안 문화시설 이용을 위한 이동시간

단위: 분(명)

구분	평균 이동시간	수
일반도서관	17.29	(207)
어린이도서관	19.81	(202)
일반박물관	34.40	(167)
어린이박물관	36.15	(143)
일반미술관	29.92	(60)
어린이미술관	35.83	(42)
문예회관	29.65	(109)
집근처 놀이터	6.21	(946)
극장	25.13	(421)
놀이공원	55.38	(605)
사설 키즈카페	22.49	(440)
과학관/천체관	47.52	(153)
수족관/동·식물원	55.74	(471)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Ⅳ-3-4〕 지난 1년 문화시설 이용을 위한 이동시간

다. 문화시설별 이용 목적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그 문화시설의 설립목적에 부합되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은 독서·대출을 위해, 박물관과 미술관은 전시 관람을 목적으로 문화시설은 이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문화시설의 설립목적이 아닌, 편안하게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또는 '자녀의 놀이활동'을 위해 이러한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어린이 전용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은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이용한 경우가 일반 도서관·박물관·미술관보다 많았다.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에서는 어린이 대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독서·대출'이나 '관람'이 아닌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은 '가족과 시간을 같이 보내기'보다는 책을 빌리거나, 전시를 관람하는 등의 특정한 이유로 이용한다면, 지난 1년 동안 이용이 많았던 놀이공원이나 수족관/동·식물원은 '가족과 시간을 함께 보내기'위해서 이용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다. 이는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문화시설을 자주 이용하려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편안하고도 재미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마찬가지로 지난 1년 이용이 많았던 사설 키즈카페의 경우도 '부모의 휴식'을 위해 이용한다는 응답이 10.0%로 다른 문화시설보다 높게 나왔다. 사설 키즈카페의 경우 부모를 동반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

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문화시설의 이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활동을 하면서도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나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을 뜻한다. 물론, 부모가 동반하지 않고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영유아의 안전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겠다.

〈표 Ⅳ-3-9〉 지난 1년 동안 이용한 문화시설별 이용목적

단위: %(명)

구분	관람	프로그램 참여	놀이 활동	독서·대출	지식 습득	가족과 시간 향유	부모 휴식	계
일반도서관	3.9	8.7	2.4	77.3	1.4	5.8	0.5	100.0(207)
어린이도서관	5.0	7.9	2.5	76.2	4.5	3.5	0.5	100.0(202)
일반박물관	52.7	3.0	2.4	6.6	11.4	22.2	1.8	100.0(167)
어린이박물관	56.6	15.4	2.1	2.1	10.5	12.6	0.7	100.0(143)
일반미술관	71.7	8.3	1.7	6.7	5.0	5.0	1.7	100.0(60)
어린이미술관	66.7	19.0	0.0	0.0	9.5	4.8	0.0	100.0(42)
문예회관	57.8	15.6	8.3	0.0	0.9	17.4	0.0	100.0(109)
집근처 놀이터	0.4	0.4	80.9	0.4	0.1	14.7	3.1	100.0(946)
극장	74.3	1.9	7.1	0.0	0.5	14.3	1.9	100.0(421)
놀이공원	4.1	1.2	47.3	0.0	0.5	44.3	2.6	100.0(605)
사설 키즈카페	2.0	3.9	74.8	0.2	1.1	8.0	10.0	100.0(440)
과학관/천체관	39.9	9.8	3.9	0.0	24.2	20.9	1.3	100.0(153)
수족관/동·식물원	22.9	2.5	7.9	0.2	7.4	55.2	0.4	100.0(471)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라. 문화시설별 이용 만족도

1) 개요

이용한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만족스러워했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이 나온 문화시설을 보면, 일반미술관 18.3%, 일반박물관 16.8%, 어린이박물관 14.0%로 상대적으로 불만족도가 높았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집근처 놀이터의 이용 만족도는 92.3%로 높게 나왔다. 이용이 많은 사설 키즈카페, 수족관/동·식물원의 만족도가 각각 89.3%, 89.0%로 놀이터보다 낮았다. 사설 키즈카페와 수족관/동·식물원이 이용은 많이 하지만,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표 Ⅳ-3-10〉 지난 1년 이용한 문화시설별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만족함	만족하지 않음	계
일반도서관	92.8	7.2	100.0(207)
어린이도서관	89.6	10.4	100.0(202)
일반박물관	83.2	16.8	100.0(167)
어린이박물관	86.0	14.0	100.0(143)
일반미술관	81.7	18.3	100.0(60)
어린이미술관	90.5	9.5	100.0(42)
문예회관	91.7	8.3	100.0(109)
집근처 놀이터	92.3	7.7	100.0(946)
극장	91.7	8.3	100.0(421)
놀이공원	90.6	9.4	100.0(605)
사설 키즈카페	89.3	10.7	100.0(440)
과학관/천체관	90.8	9.2	100.0(153)
수족관/동·식물원	89.0	11.0	100.0(471)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 문화시설의 이용 만족도는 저소득가구가 더 높았으며(놀이터 제외), 놀이공원과 사설 키즈카페의 이용 만족도는 일반가구가 더 높았다.

〈표 Ⅳ-3-11〉 가구특성별 지난 1년 이용한 문화시설별 만족도

단위: %(명)

구분	일반가구			저소득가구		
	만족	불만족	소계	만족	불만족	소계
일반도서관	91.5	8.5	(164)	97.7	2.3	(43)
어린이도서관	89.8	10.2	(177)	88.0	12.0	(25)
일반박물관	81.1	18.9	(143)	95.8	4.2	(24)
어린이박물관	85.7	14.3	(133)	90.0	10.0	(10)
일반미술관	78.8	21.2	(52)	100.0	0.0	(8)
어린이미술관	90.2	9.8	(41)	100.0	0.0	(1)
문예회관	91.3	8.7	(92)	94.1	5.9	(17)
집근처 놀이터	93.8	6.2	(744)	86.6	13.4	(202)
극장	92.4	7.6	(357)	87.5	12.5	(64)
놀이공원	91.4	8.6	(488)	87.2	12.8	(117)
사설 키즈카페	90.2	9.8	(376)	84.4	15.6	(64)
과학관/천체관	91.5	8.5	(130)	87.0	13.0	(23)
수족관/동·식물원	89.6	10.4	(402)	85.5	14.5	(69)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2) 만족 및 불만족 이유

이용사례가 가장 많은 집근처 놀이터의 주된 이용 만족이유는 '자녀가 좋아해서'(54.4%)와 '교통의 편리성'(33.1%)을 꼽았다. 한편, 공공재 문화시설의 이용 만족 이유와 소비재 문화시설의 이용 만족 이유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박물관·미술관·문예회관과 같은 공공재 문화시설을 이용한 경우, 공연이나 전시, 독서 등이 '영유아 자녀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어서' 또는 '다양한 전시물이나 프로그램이 있어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많이 나왔다. 이에 비해 놀이공원이나 사설 키즈카페와 같은 소비재 문화시설들은 '자녀가 좋아해서' 또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어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Ⅳ-3-12〉 지난 1년 이용한 문화시설별 주된 만족 이유

단위: %(명)

구분	교통 편리	영유아 동반에 편리한 시설 구비	관람/독서 등 영유아 자녀에 적합	비용 저렴	다양한 프로그램 및 전시물 구비	자녀 선호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어서	계
일반도서관	33.3	15.1	23.4	3.1	5.7	11.5	7.8	100.0(192)
어린이도서관	17.1	29.8	26.5	3.3	7.2	14.9	1.1	100.0(181)
일반박물관	12.2	14.4	20.1	9.4	23.7	7.2	12.9	100.0(139)
어린이박물관	5.7	22.0	34.1	2.4	22.8	9.8	3.3	100.0(123)
일반미술관	4.1	14.3	32.7	2.0	28.6	12.2	6.1	100.0(49)
어린이미술관	5.3	18.4	44.7	0.0	21.1	7.9	2.6	100.0(38)
문예회관	18.0	16.0	21.0	1.0	7.0	22.0	15.0	100.0(100)
집근처 놀이터	33.1	4.0	1.4	1.6	0.5	54.4	5.0	100.0(873)
극장	8.5	11.1	19.9	0.0	3.4	36.5	20.5	100.0(386)
놀이공원	3.8	11.1	4.9	3.1	5.7	40.5	30.8	100.0(548)
사설 키즈카페	6.6	26.5	6.1	1.5	3.8	51.1	4.3	100.0(398)
과학관/천체관	4.3	7.9	15.8	0.7	23.0	28.1	20.1	100.0(139)
수족관/동·식물원	1.2	6.7	6.7	2.9	11.2	35.8	35.5	100.0(419)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다음의 <표 Ⅳ-3-13>은 지난 1년 이용한 문화시설별로 불만족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대체로 사례 수들이 많지 않아서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공공재 문화시설에 대해 불만족했던 이유로는 '영유아 자녀를 동반하기에 편리한 시설이 없어서'와 '자녀가 지루해해서'를 가장 많이 꼽았다.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나 미술관에서 이

러한 이유로 인해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이라 하기에 무색하기는 하나, 사례가 적으므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앞서 살펴본 공공재 문화시설의 만족스러운 이유가 주로 영유아를 위한 편의시설을 잘 갖추었거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들에게 적합하다고 응답했다는 점에서, 거의 동일한 이유에서 만족하거나 또는 불만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소비재 문화시설에 대한 불만족 이유는 비용이 비싸거나(놀이공원, 사설 키즈카페) 불편한 교통(과학관/천체관, 수족관/동·식물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공공재 문화시설과 다른 이유로 불만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영유아 자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집근처 놀이터가 영유아 자녀를 동반하기에 편리한 시설이 없어서 불만족했다는 응답결과가 흥미롭다. 아마 놀이터가 실외에 위치하여 기저귀 갈기나 모유수유, 흙 등의 오염이 묻어 물 사용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표 Ⅳ-3-13〉 지난 1년 이용한 문화시설별 주된 불만족 이유

단위: %(명)

구분	교통 불편	영유아 자녀동반에 편리한 시설이 없어서	관람/독서 등자녀 연령에 부적합	프로그램/전시물이 단조로워서	이용시간 제약	비용이 비싸서	자녀가 지루해해서	계
일반도서관	0.0	40.0	13.3	13.3	13.3	0.0	20.0	100.0(15)
어린이도서관	4.8	38.1	9.5	14.3	19.0	0.0	14.3	100.0(21)
일반박물관	10.7	39.3	3.6	25.0	14.3	0.0	7.1	100.0(28)
어린이박물관	25.0	35.0	0.0	15.0	5.0	15.0	0.0	100.0(20)
일반미술관	18.2	18.2	9.1	18.2	18.2	0.0	18.2	100.0(11)
어린이미술관	25.0	25.0	0.0	25.0	0.0	0.0	25.0	100.0(4)
문예회관	11.1	22.2	33.3	0.0	0.0	22.2	11.1	100.0(9)
집근처 놀이터	2.7	61.7	0.0	20.5	0.0	2.7	12.3	100.0(73)
극장	14.3	37.1	0.0	5.7	11.4	25.7	5.7	100.0(35)
놀이공원	26.3	14.0	3.5	15.8	7.0	29.8	3.5	100.0(57)
사설 키즈카페	6.4	6.4	0.0	6.4	4.3	74.5	2.1	100.0(47)
과학관/천체관	42.9	14.3	0.0	0.0	0.0	21.0	7.1	100.0(14)
수족관/동·식물원	34.6	15.4	3.8	28.8	1.9	13.5	1.9	100.0(52)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4.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문화인프라 이용 경험

가. 이용 중인 어린이집·유치원 종류

응답자의 75.8%가 영유아 자녀를 기관에 보내고 있었다. 민간어린이집 이용자가 27.1%로 가장 많고, 국공립어린이집 15.9% 사립유치원 15.1% 순으로 집계되었다. 기관 미이용은 저소득가구와 비취업모에서 많았다. 일반가구에서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30.3%)을, 유치원은 사립유치원(17.0%)을 국공립보다 많이 이용하는 반면, 저소득가구는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28.0%)을 유치원도 국공립유치원(20.6%) 이용이 더 많았다. 모취업 여부에 따라 이용기관 종류에서 차이는 거의 없었는데,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다.

〈표 IV-4-1〉 현재 이용하는 어린이집·유치원

단위: %(명)

구분	이용							미이용	계
	유치원		어린이집						
	국공립	사립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직장		
전체	7.8	15.1	15.9	5.0	27.1	4.8	0.1	24.2	100.0(1,000)
가구특성									
일반	7.0	17.0	12.5	4.7	30.3	4.7	0.1	23.5	100.0(782)
저소득	10.6	8.3	28.0	6.0	15.6	5.0	0.0	26.6	100.0(218)
$\chi^2(df)$=52.052(7)***									
모취업 여부									
취업모	6.0	17.9	16.1	6.7	30.9	6.7	0.4	15.4	100.0(285)
비취업모	8.4	14.0	15.8	4.3	25.6	4.1	0.0	27.7	100.0(714)
$\chi^2(df)$=25.978(7)**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나. 지난 1년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

1) 이용 횟수

현재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지난 1년 간 문화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4.2%에 불과했다. 영아(22.3%)와 대도시(4.9%)에서 방문하지 않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횟수는 1년에 4~5회(31.8%) 내지는 2~3회(30.2%)가 많았다. 영아는 2~3회가 가장 많았고 유아는 4~5회가 많았는데, 연령특성이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문화시설을 '방문 안함'은 대도시가 중소도시나 읍면지역보다 많았으나, 방문한 경우에는 대도시는 6~12회,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이보다 방문 횟수가 적었다. 문화인프라가 잘 구비되어 있는 대도시에서의 문화시설 방문이 수월함을 알 수 있다.

〈표 Ⅳ-4-2〉 지난 1년 기관에서 문화시설 이용 횟수

단위: %(명)

구분	1회	2-3회	4-5회	6-12회	13회 이상	방문 안함	계	$\chi^2(df)$
전체	4.0	30.2	31.8	25.9	4.0	4.2	100.0(758)	
가구특성								
일반가구	3.5	27.8	32.3	27.3	4.8	4.3	100.0(598)	15.213(5)**
저소득가구	5.6	39.4	30.0	20.6	0.6	3.8	100.0(160)	
대상자녀연령								
영아	6.4	31.9	18.1	21.3	0.0	22.3	100.0(94)	96.605(5)***
유아	3.6	30.0	33.7	26.5	4.5	1.7	100.0(664)	
지역규모								
대도시	3.7	23.1	27.5	34.9	5.9	4.9	100.0(324)	
중소도시	5.3	36.5	35.9	16.0	2.4	3.9	100.0(337)	48.573(10)***
읍면지역	0.0	32.0	32.0	29.9	3.1	3.1	100.0(97)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2) 이용한 문화시설 종류

다니고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공공 문화시설보다는 소비적 문화시설의 이용이 훨씬 많았다.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이용한 문화시설은 놀이공원(55.9%), 수족관/동·식물원(52.3%), 극장(51.0%) 순으로 소비적 문화시설들이 상위를 차지하였다. 어린이박물관(30.4%), 어린이미술관(15.3%), 어린이도서관(15.2%) 등의 어린이 전용 공공재 문화시설의 이용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자녀 연령별로 보면, 대체로 문화시설의 이용이 유아가 영아보다 더 많았으나 어린이 도서관과 사설 키즈카페는 영아의 이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3〉 지난 1년 기관에서 이용한 문화시설 종류

단위: %(명)

구분	일반 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일반 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일반 미술관	어린이미술관	문예회관	극장	놀이공원	사설 키즈카페	과학관천체관	수족관동식물원	계
전체	9.1	15.2	21.1	30.4	7.4	15.3	17.5	51.0	55.9	22.7	27.0	52.3	(726)
가구특성													
일반	8.2	15.2	22.4	32.0	7.7	16.6	16.6	51.4	56.3	21.5	25.0	55.8	(572)
저소득	12.3	14.9	16.2	24.7	6.5	10.4	20.8	49.4	54.5	27.3	34.4	39.6	(154)
대상자녀연령													
영아	2.7	19.2	17.8	30.1	2.7	5.5	13.7	42.5	45.2	27.4	20.5	46.6	(73)
유아	9.8	14.7	21.4	30.5	8.0	16.4	17.9	51.9	57.1	22.2	27.7	53.0	(653)
지역규모													
대도시	8.8	15.6	21.1	36.0	9.4	21.4	15.6	59.4	65.9	18.2	32.1	56.5	(308)
중소도시	9.0	13.3	24.1	24.7	6.8	8.6	14.8	38.3	49.1	30.6	24.7	44.8	(324)
읍면지역	10.6	20.2	10.6	31.9	3.2	18.1	33.0	67.0	46.8	10.6	18.1	64.9	(94)

주: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3) 1회 이용 문화시설 비용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현장학습 차원에서 문화시설을 견학할 때 지불하는 1회 비용은 1만원 미만이 약 50%로 주를 이루는 가운데, 응답자의 약 13%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했다. 가구특성에 따라 지불 비용의 차이가 있었는데 저소득가구에서 무료 이용이 2배 이상 많았으며 2만원 이상은 일반가구의 8.0%에 비해 저소득가구는 1.9%에 그쳤다.

영아보다 유아의 비용이 많았으며 읍면지역이 1만원 미만이 69.1%로 가장 저렴했으나, 중소도시(56.2%)보다 대도시(67.5%)에서 1만원 미만이 더 많았다. 2만원 이상이 읍면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읍면지역의 경우 문화인프라가 적어서 문화시설을 체험하려면 인근 도시로 오랜 시간 차량이동을 해야 하므로 비용이 상승된 것으로 풀이된다.

〈표 Ⅳ-4-4〉 지난 1년 문화시설 이용 시 1회당 지불 비용

단위: %(명)

구분	무료	5천원 미만	5천원-1만원 미만	1만원-1만5천원미만	1만5천원-2만원미만	2만원 이상	계	$\chi^2(df)$
전체	12.8	20.2	29.6	16.5	14.0	6.7	100.0(726)	
가구특성								
일반	10.3	19.8	28.0	17.8	16.1	8.0	100.0(572)	33.276
저소득	22.1	22.1	35.7	11.7	6.5	1.9	100.0(154)	(5)***
대상자녀 연령								
영아	20.5	26.0	32.9	5.5	5.5	9.6	100.0(73)	16.632
유아	11.9	19.6	29.2	17.8	15.0	6.4	100.0(653)	(5)**
지역규모								
대도시	17.9	21.4	28.2	13.0	11.4	8.1	100.0(308)	58.640
중소도시	9.0	15.1	32.1	23.8	16.0	4.0	100.0(324)	(10)***
읍면지역	9.6	34.0	25.5	3.2	16.0	11.7	100.0(94)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다.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문화시설 이용에 대한 의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견학한 문화시설 종류의 많고 적음을 알아본 결과, '적당하다'는 응답이 51.7%로 가장 많았고 '적다'가 45.0%로 많이 나왔다. '많다'라는 의견은 3.3%에 불과했다. 이로써 학부모들은 기관에서 다양한 문화시설 이용을 희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아보다는 유아의 경우,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의 학부모들이 좀 더 다양한 문화시설을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다. 학부모들은 영아기보다는 유아기가 다양한 문화경험이 중요하며 또 문화인프라가 빈약한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서 다양한 문화시설 이용에 대한 수요가 더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학부모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다양한 문화시설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표 Ⅳ-4-5〉 지난 1년 이용한 문화시설 종류에 대한 의견

단위: %(명), 점

구분	적음	적당	많음	계	평균 (5점 만점)	t/F
전체	45.0	51.7	3.3	100.0(726)	2.52	

(표 Ⅳ-4-5 계속)

구분	적음	적당	많음	계	평균 (5점 만점)	*t/F*
가구특성						
일반	44.9	51.4	3.7	100.0(572)	2.53	.973
저소득	45.5	52.6	1.9	100.0(154)	2.47	
대상자녀연령						
영아	37.0	58.9	4.1	100.0(73)	2.66	2.08*
유아	45.9	50.8	3.2	100.0(653)	2.51	
지역규모						
대도시	35.1	60.7	4.2	100.0(308)	2.66	
중소도시	52.2	44.8	3.1	100.0(324)	2.45	13.195***
읍면지역	53.2	45.7	1.1	100.0(94)	2.32	
모취업 여부						
취업모	43.2	54.1	2.6	100.0(229)	2.52	.11
비취업모	46.0	50.4	3.6	100.0(496)	2.52	

주: 적음(너무 적음+다소 적음), 많음(다소 많음+너무 많음)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방문한 문화시설종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문화시설의 방문빈도에 대해서는 적당함이 57.2%가 가장 많았고 적음이 약 40%이며 많음은 2.9%에 불과했다. 학부모들은 다양한 문화시설 종류 체험을 희망하는 것처럼 이용도 자주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특성별로는 일반가구가 방문빈도가 많다는 응답이 약간 많았으나, 거의 차이가 없었다. 자녀연령별로는 유아인 경우 방문빈도가 적다는 응답이 좀 더 많이 나왔다. 지역별로는 문화시설이 적은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서 이용빈도가 적다는 응답이 대도시보다 많이 나왔다. 이는 중소도시와 읍면지역 거주 학부모들은 거주 지역에 문화시설이 부족해서 자녀들이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표 Ⅳ-4-6〉 지난 1년 이용한 문화시설 방문빈도에 대한 의견

단위: %(명), 점

구분	적음	적당함	많음	계	평균(5점만점)	*t/F*
전체	39.9	57.2	2.9	100.0(726)	2.58	
가구특성						
일반	39.0	58.0	3.0	100.0(572)	2.60	1.577

(표 Ⅳ-4-6 계속)

구분	적음	적당함	많음	계	평균(5점만점)	*t/F*
저소득	43.5	53.9	2.6	100.0(154)	2.50	
대상자녀연령						
영아	37.0	61.6	1.4	100.0(73)	2.63	.864
유아	40.3	56.7	3.1	100.0(653)	2.57	
지역규모						
대도시	31.2	64.6	4.2	100.0(308)	2.69	
중소도시	48.8	48.8	2.5	100.0(324)	2.48	9.26***
읍면지역	38.3	61.7	0.0	100.0(94)	2.52	
모취업 여부						
취업모	38.4	59.0	2.6	100.0(229)	2.58	.004
비취업모	40.7	56.3	3.0	100.0(496)	2.58	

주: 적음(너무 적음+다소 적음), 많음(다소 많음+너무 많음)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방문빈도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 $p < .001$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용한 문화시설에 대한 정보가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데 '영향이 있다'라고 71.8%가 응답하여 기관에서의 제공하는 정보가 유용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7〉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제공한 문화시설 정보가 가정에서 문화시설 선택 시 미치는 영향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영향없음	영향있음	계	평균(4점 만점)	*t/F*
전체	28.2	71.8	100.0(726)	2.8	
가구특성					
일반	29.2	70.8	100.0(572)	2.8	-.774
저소득	24.7	75.3	100.0(154)	2.8	
대상자녀 연령					
영아	37.0	63.0	100.0(73)	2.7	-1.48
유아	27.3	72.7	100.0(653)	2.8	
지역규모					
대도시	29.5	70.5	100.0(308)	2.8	
중소도시	27.8	72.2	100.0(324)	2.8	5.379**
읍면지역	25.5	74.5	100.0(94)	3.0	
모취업 여부					
취업모	32.3	67.7	100.0(229)	2.7	-2.886**
비취업모	26.2	73.8	100.0(496)	2.8	

주: 영향없음(전혀 영향 없음+거의 영향 없음), 영향있음(약간 영향+ 매우 영향)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영향이 많다는 것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문화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문화시설의 이용 다양화, 저렴한 비용, 문화시설에 대한 정보제공, 문화시설 방문시 부모참여 확대 등을 주로 꼽았다. 변인별로 보면, 저소득가구에서 저렴한 비용을,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서는 문화시설의 다양화를, 비취업모는 저렴한 비용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응답하였다.

〈표 IV-4-8〉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문화시설 이용 개선점(1순위)

단위: %(명)

구분	문화시설 다양화	저렴한 비용	문화시설 정보제공	부모참여 확대	시설 이용시 부모의 견학조	이용 횟수 증가	이용 어려운 시설방문추진	이동식 문화서비스 실시	기타	계
전체	35.1	19.6	12.9	8.8	6.2	5.1	7.6	4.5	0.1	100.0(726)
가구특성										
일반가구	35.1	18.4	12.6	9.1	6.3	5.2	8.7	4.4	0.2	100.0(572)
저소득가구	35.1	24.0	14.3	7.8	5.8	4.5	3.2	5.2	0.0	100.0(154)
$\chi^2(df)=7.938(8)$										
지역규모										
대도시	27.6	17.5	17.9	9.7	4.2	6.2	11.4	5.2	0.3	100.0(308)
중소도시	40.1	21.3	9.3	7.4	8.0	4.6	4.9	4.3	0.0	100.0(324)
읍면지역	42.6	20.2	9.6	10.6	6.4	3.2	4.3	3.2	0.0	100.0(94)
$\chi^2(df)=38.693(16)$**										
모취업여부										
취업모	35.4	18.3	11.4	8.7	8.7	5.2	7.9	3.9	0.4	100.0(229)
비취업모	35.1	20.0	13.7	8.9	5.0	5.0	7.5	4.8	0.0	100.0(496)
$\chi^2(df)=6.827(8)$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 $p < .01$

중복응답의 결과에서도 문화시설의 이용 다양화, 저렴한 비용, 문화시설에 대한 정보제공 순으로 상위 3순위를 차지하여 순위는 바뀌지 않았다. 다만, 이용이 어려운 문화시설 방문 추진이 1순위에서는 5순위였다면, 중복응답에서는 4순위로 올라갔다. 학부모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시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Ⅳ-4-9〉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문화시설 이용의 개선점(1+2순위)

단위: %(명)

1순위	비율	1+2순위	비율
전체(726명)	100.0	전체(726명)	100.0
문화시설 이용다양화	35.1	문화시설 이용다양화	25.6
저렴한 비용으로 문화시설 체험	19.6	저렴한 비용으로 문화시설 체험	20.0
문화시설에 대한 정보제공	12.9	문화시설에 대한 정보제공	13.4
문화시설 방문 시 부모참여 확대	8.8	이용이 어려운 문화시설 방문추진	11.2
이용이 어려운 문화시설 방문추진	7.6	문화시설 방문 시 부모참여 확대	9.0
문화시설 이용시 부모의견 참조	6.2	문화시설 이용시 부모의견 참조	7.8
문화시설 체험 횟수 증가	5.1	문화시설 체험 횟수 증가	6.6
이동식문화서비스를 기관에서 초청실시	4.5	이동식문화서비스를 기관에서 초청실시	6.3
기타	0.1	기타	0.1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요컨대, 학부모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다양한 문화시설을 저렴한 비용으로 자주 이용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문화시설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방문 시 학부모 참여를 희망하는 등 문화시설 이용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큼을 알 수 있다.

5. 영유아기 문화인프라 이용 제고를 위한 학부모 의견

가. 영유아기 문화시설의 중요성

응답자의 92.2% 학부모들이 영유아기의 문화시설 이용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저소득가구보다는 일반가구에서, 영아보다는 유아에서, 도시보다는 읍면지역에서 영유아기 문화시설 이용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이 나왔다.

〈표 Ⅳ-5-1〉 영유아기 문화시설 이용 경험의 중요성

단위: %(명)

구분	중요함	중요하지 않음	계	$\chi^2(df)$
전체	92.2	7.8	100.0(1000)	
가구특성				
일반가구	95.0	5.0	100.0(782)	39.464(1)***
저소득가구	82.1	17.9	100.0(218)	
대상자녀연령				

(표 Ⅳ-5-1 계속)

구분	중요함	중요하지 않음	계	$\chi^2(df)$
영아	88.8	11.2	100.0(303)	7.075(1)**
유아	93.7	6.3	100.0(697)	
지역규모				
대도시	92.1	7.9	100.0(445)	
중소도시	90.9	9.1	100.0(430)	4.645(2)
읍면지역	96.8	3.2	100.0(125)	
모취업 여부				
취업모	93.0	7.0	100.0(285)	.267(1)
비취업모	92.0	8.0	100.0(714)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영유아기에 문화시설 이용이 중요한 이유로는 사회·정서발달과 창의성 계발이 각각 27.2%, 26.6%의 비슷한 수치로 가장 많이 나왔다. 다음으로 인지발달, 흥미와 재능 발견에 도움 순으로 나왔다. 흥미로운 사실은 집근처 놀이터, 놀이공원, 사설 키즈카페 등 놀이 위주의 문화시설을 주로 이용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건전한 놀이 기회 제공'이 2.8%에 불과하다는 점이다(표 Ⅳ-5-2의 1순위 기준).

〈표 Ⅳ-5-2〉 영유아기 문화시설 이용 경험이 중요한 이유(1순위, 1+2순위)

단위: %

1순위	비율	1+2순위	비율
전체(1,000명)	100.0	전체(1,000명)	100.0
사회·정서적 발달을 위해	27.2	사회·정서적 발달을 위해	27.1
창의성 계발을 위해	26.6	창의성 계발을 위해	18.8
인지(지능)발달을 위해	15.7	흥미와 재능 발견에 도움	17.3
흥미와 재능 발견에 도움	15.1	인지(지능)발달을 위해	15.9
신체발달을 위해	7.7	신체발달을 위해	8.6
문화생활을 어릴 때부터 익숙하는데 도움	4.9	문화생활을 어릴 때부터 익숙하는데 도움	7.3
건전한 놀이 기회 제공	2.8	건전한 놀이 기회 제공	5.0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나. 영유아기 문화시설의 이용 지원에 필요한 정책

영유아기의 문화시설 이용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정책으로 '문화시설에서의 프로그램 다양화'(25.5%)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중요한 지원정책은 1순위만 꼽을 때는 '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접근성 제고'(20.4%)였으나, 중복응답에

서는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 확충'(15.5%)이 더 많이 나왔다. '기존 문화시설 내의 어린이 전용 공간 설치'에 대해서는 3.8%만이(1순위 기준) 응답하여 수요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린이 전용 시설에 대한 욕구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밖에 '지역 간의 균형적 배치', '문화시설 이용에 대한 정보 및 기회제공' 등이 필요한 정책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Ⅳ-5-3〉 문화시설 이용 제고를 위한 정책(1순위, 1+2순위)

단위: %

1순위	비율	1+2순위	비율
전체(1,000명)	100.0	전체(1,000명)	100.0
문화시설에서의 프로그램 다양화	25.5	문화시설에서의 프로그램 다양화	22.3
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접근성 제고	20.4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 확충	15.5
문화시설의 지역 간 균형 배치	18.4	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접근성 제고	14.3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 확충	14.5	문화시설의 지역 간 균형 배치	13.8
문화시설 이용 정보 및 기회 제공	7.0	문화시설 이용 정보 및 기회 제공	11.0
영유아 자녀 동반 시 비용 지원	5.1	영유아 자녀 동반 시 비용 지원	8.1
기존 시설 내 어린이 전용공간 설치	3.8	기존 시설 내 어린이 전용공간 설치	6.8
문화시설 이용 시간 확대	3.3	문화시설 이용 시간 확대	5.9
문화바우처 지급대상 및 비용확대	2.0	문화바우처 지급대상 및 비용확대	2.3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영유아기의 문화시설 이용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변인별로 분석해 보았다(표 Ⅳ-5-4 참조).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 모두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저소득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문화시설에 영유아 자녀 동반시 비용지원이나 문화바우처 비용확대와 같은 비용지원을 더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바우처의 지원확대는 일반가구보다 6배 가량 많이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일반가구는 어린이 전용 공간을 포함한 시설확충의 필요성과 이용 정보 제공을 상대적으로 더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프로그램 다양화'를 가장 희망했다면, 읍면지역은 '문화시설의 지역 간 균형배치'(28.1%), '시설확충을 통한 접근성 제고'(26.4%)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취업여부에 따라 희망정책이 달랐는데 취업모는 시설확충을, 비취업모는 프로그램 다양화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IV-5-4〉 문화시설 이용 제고를 위한 정책(1순위): 변인별

단위: %(명)

구분	시설 확충을 통한 접근성 제고	지역 간 균형 배치	프로그램 다양화	어린이 전용시설 확충	기존 시설내 어린이 전용공간 설치	이용 정보 제공	이용 시간 확대	자녀 동반 이용 시 비용 추가	바우처 지원 비용 확대	계
전체	20.4	18.4	25.5	14.5	3.8	7.0	3.3	5.1	2.0	100.0(922)
가구특성										
일반	21.4	17.9	26.0	14.8	4.0	7.4	3.0	4.7	0.8	100.0(743)
저소득	16.2	20.7	23.5	13.4	2.8	5.6	4.5	6.7	6.7	100.0(179)
$\chi^2(df)$=32.147(8)***										
지역규모										
대도시	18.5	16.6	23.9	15.9	4.1	8.0	3.2	7.1	2.7	100.0(410)
중소도시	20.5	17.4	29.7	13.6	2.8	7.2	3.3	3.8	1.8	100.0(391)
읍면지역	26.4	28.1	17.4	13.2	5.8	3.3	3.3	2.5	0.0	100.0(121)
$\chi^2(df)$=32.025(16)*										
모취업여부										
취업모	23.4	20.4	21.1	13.6	3.4	5.3	3.8	6.8	2.3	100.0(265)
비취업모	19.2	17.7	27.2	14.9	4.0	7.8	3.0	4.4	1.8	100.0(657)
$\chi^2(df)$=9.798(8)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다. 거주지 내 설치 희망 문화시설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설치 또는 확충이 필요한 문화시설로는 어린이도서관을 가장 희망하였다. 다음으로 어린이박물관과 수족관/동·식물원이 설치되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비해 일반도서관·박물관·미술관은 하위 순위를 차지하였다. 이용 경험이 많은 소비재적인 문화시설인 놀이공원과 사설 키즈카페가 상위 5번째와 6번째로 많이 나왔다. 수족관/동·식물원을 제외한, 평소에 이용을 많지 않는 어린이도서관·박물관·미술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학부모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표 IV-5-5〉 현재 지역에서 설치가 필요한 문화시설(1순위, 1+2순위)

단위: %

1순위	비율	1+2순위	비율
전체(1,000명)	100.0	전체(1,000명)	100.0

(표 Ⅳ-5-5 계속)

1순위	비율	1+2순위	비율
어린이도서관	25.7	어린이도서관	19.1
어린이박물관	12.5	어린이박물관	12.6
수족관/동·식물원	10.7	수족관/동·식물원	11.7
집근처 놀이터	8.6	놀이공원	8.6
놀이공원	6.9	어린이미술관	8.4
사설 키즈카페	6.8	집근처 놀이터	7.9
어린이미술관	6.3	극장	7.2
문예회관	5.9	과학관/천체관	7.1
극장	5.7	사설 키즈카페	6.4
과학관/천체관	4.0	문예회관	4.8
일반도서관	3.2	일반도서관	2.4
일반박물관	2.4	일반박물관	2.3
일반미술관	1.1	일반미술관	1.4
기타	0.2	기타	0.1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설치를 희망하는 문화시설을 변인별로 분석할 결과(표 Ⅳ-5-6 참조),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 모두 어린이도서관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어린이박물관이 차지했다. 눈에 띄는 결과로는 저소득가구의 경우 집근처 놀이터(15.1%)와 수족관/동·식물원(15.1%)에 대한 수요가 많이 나왔다는 점이다.

영아 자녀를 둔 경우, 놀이터(10.2%)와 수족관/동·식물원(14.9%)에 대한 응답이 많이 나왔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놀이터는 영아기부터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므로 이에 대한 수요가 유아보다 많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어린이 도서관을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희망하였다. 읍면지역의 경우 2순위로 집근처 놀이터를 꼽아서(12.8%) 놀이터가 가장 보편적인 영유아의 문화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읍면지역에서 이에 대한 수요가 나왔다는 것은 지역간의 문화시설 분포 차이가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대도시에서 사설 키즈카페에 대한 수요가 11.0%로 중소도시와 읍면보다 수요가 많이 나왔다.

취업모는 어린이 도서관, 어린이 박물관, 놀이터 순으로 비취업모는 어린이도서관, 어린이 박물관, 수족관·동식물원 순으로 나왔는데, 사설 키즈카페에 대해 비취업모의 수요가 취업모보다 2배 가량 높게 나온 점이 흥미롭다.

〈표 Ⅳ-5-6〉 현재 지역에서 확충이 필요한 문화시설: 변인별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기타	계
전체	3.2	25.7	2.4	12.5	1.1	6.3	5.9	8.6	5.7	6.9	6.8	4.0	10.7	0.2	100.0(1,000)
가구특성															
일반	3.5	27.0	2.4	11.5	1.2	7.0	6.0	6.8	6.6	6.9	7.2	4.3	9.5	0.1	100.0(782)
저소득	2.3	21.1	2.3	16.1	0.9	3.7	5.5	15.1	2.3	6.9	5.5	2.8	15.1	0.5	100.0(218)
$\chi^2(df)$=36.428(13)**															
자녀연령															
영아	3.6	25.7	1.7	13.9	0.3	4.3	3.3	10.2	4.0	6.9	9.6	1.7	14.9	0.0	100.0(303)
유아	3.0	25.7	2.7	11.9	1.4	7.2	7.0	7.9	6.5	6.9	5.6	5.0	8.9	0.3	100.0(697)
$\chi^2(df)$=34.459(13)**															
지역규모															
대도시	3.1	25.8	1.8	11.2	2.2	5.4	6.5	7.6	5.6	5.6	11.0	3.6	10.1	0.2	100.0(445)
중소도시	3.3	26.0	3.3	15.1	0.0	6.3	5.6	8.4	5.6	7.9	3.0	3.7	11.6	0.2	100.0(430)
읍면지역	3.2	24.0	1.6	8.0	0.8	9.6	4.8	12.8	6.4	8.0	4.8	6.4	9.6	0.0	100.0(125)
$\chi^2(df)$=10.399(26)**															
모취업여부															
취업모	1.8	30.9	2.5	14.4	0.7	4.2	5.6	12.3	4.6	7.0	3.9	3.5	8.8	0.0	100.0(285)
비취업모	3.8	23.7	2.4	11.8	1.3	7.1	6.0	7.0	6.2	6.9	8.0	4.2	11.5	0.3	100.0(714)
$\chi^2(df)$=26.384(13)*															

주: ①일반도서관, ②어린이도서관, ③일반박물관, ④어린이박물관, ⑤일반미술관, ⑥어린이미술관, ⑦문예회관, ⑧집근처 놀이터, ⑨극장, ⑩놀이공원, ⑪사설 키즈카페, ⑫과학관/천체관, ⑬ 수족관·동식물원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6. 소결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모두 공공재적인 성격의 도서관, 박물관, 도서관, 문예회관 등의 문화시설 이용보다는 극장, 놀이공원, 사설 키즈카페와 같은 소비재적인 문화시설 이용 경험이 높았다. 부모세대는 도서관 87.6%, 박물관 79.5%, 미술관 56.0%가 이용했다면, 놀이공원 93.6%, 극장 94.6%로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문화시설 종류별로 이용의 차이가 컸다. 영유아 자녀의 최근 1년 문화시설 이용 경험에서도, 도서관 20.8%, 박물관 16.7%, 미술

관 6.0%, 문예회관 10.9%만이 이용한 것에 비해 놀이공원은 60.5%, 사설 키즈카페는 44.0%, 수족관·동식물원은 47.1%가 이용하여 소비재적인 문화시설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처럼 소비재적인 문화시설을 더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가구소득에 따라 이용 경험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영유아 가족이 자주 이용하는 문화시설인 놀이공원, 수족관/동·식물원, 사설 키즈카페 등은 대부분 유료라서 전 가족이 이용하기에 비용 부담이 높아, 가구특성별 이용 경험 차이가 크며, 아동의 놀이문화가 상업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

둘째, 부모세대의 문화이용 경험을 살펴본 결과, 가구특성별(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로 이용 경험에서 차이가 났다. 일반가구 부모가 이용 경험이 높고, 특히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의 이용 경험에서 저소득가구 부모보다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문화시설 이용은 대체로 학령기 이후에 시작되었으나 비교적 이용시기가 빠른 문화시설은 놀이공원이며, 미술관의 이용시기가 가장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자녀세대와 비슷하다. 놀이공원의 이용은 이른 연령에 시작하지만, 미술관은 이용 경험도 적을뿐더러 상대적으로 시작 연령도 늦었다. 부모 세대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 정도는 일반가구가 저소득 가구보다 유의미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영유아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시설은 놀이터로 나타났다. 놀이터는 영아기부터 시작하며 가장 자주 이용하는 문화시설임이 실증적으로 밝혀졌다. 영유아 자녀의 73.6%가 만 1세이전에 놀이터를 이용했으며 77.4%가 한달에 4회 이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을 불문하고 대다수의 아동이 이용하는 문화시설이 놀이터라는 점에서 아동의 발달을 돕고 창의인재 육성에 도움이 될 다양한 형태의 놀이터를 개발 보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읍면지역에서 놀이터의 설치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와서 농산어촌 지역에 놀이터 설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넷째,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재 문화시설을 잘 이용하지도 않지만 이용한다고 해도 1년에 1회 내지는 2~5회가 대부분이었다.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문화시설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자녀가 어려서, 근처에 이용할 만한 시설이 없어서, 이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등이 주로 많이 나왔다. 이용할 만한 문화시설의 부족도 있지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자녀가 어려서 이용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를 통해, 부모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문화적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문화시설을 함께 향유하는 데 익숙하지

못한 점도 적지 않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화시설을 이용한 경우에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와서 계속 이용할 가능성이 높았다.

다섯째, 저소득가구 영유아의 전반적인 문화시설 이용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계층에 따른 문화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저소득가구에서는 희망하는 문화지원 정책으로 비용지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꼽았다. 저소득가구뿐만 아니라 일반가구의 문화경험도 낮기 때문에 모든 영유아 대상의 지원정책 실시와 더불어 저소득가구의 집중지원책이 필요하다.

여섯째, 주로 이용을 많이 했던 놀이공원이나 사설 키즈카페, 수족관/동·식물원의 이용 목적을 보면, '자녀의 놀이활동'과 더불어 '가족과 함께 시간보내기'가 주로 많이 나왔다. 이는 공공재 문화시설 이용에서는 응답이 아주 낮게 나왔다. 즉, 영유아는 혼자 문화시설을 이용하러 갈 수 없는 특성 때문에 가족이 동반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영유아 자녀만이 아니라 가족도 그 문화시설을 즐길 수 있어야 이용을 자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영유아 문화시설은 이런 점에서 기존의 문화시설과 특성이나 기능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문화시설 확충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컸다. 자녀가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부모들은 적극 이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비용이 비싼 사설 키즈카페나 놀이공원의 이용 만족 이유로 '자녀가 흥미를 갖고 좋아해서' '자녀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어서'를 주로 꼽았다는 점에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의 공공재적 문화시설이 영유아와 가족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면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되어야 하겠다.

끝으로 학부모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이와 같은 문화시설을 자주 이용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응답자 가구의 70%이상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으며, 주중의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의 주요 방문객은 이들 기관의 단체관람을 하는 영유아들이다. 어린이집·유치원이 공공 문화시설의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 공공 문화시설과 파트너쉽을 체결하여 적극적으로 공공 문화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Ⅴ.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문화인프라 이용실태

본 장에서는 어린이집 300개소, 유치원 200개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문화인프라 이용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1. 문화인프라 이용 현황

가. 이용실태

1)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의 문화시설

어린이집·유치원이 있는 지역에 위치한(도보 15~20분 이내) 문화시설에 대해 파악한 결과는 <표 Ⅴ-1-1>과 같다.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에는 기관근처 놀이터(65.6%)가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일반도서관(48.4%), 어린이도서관(34.2%), 사설 키즈카페(31.8%), 문예회관(21.2%) 등의 순으로 위치하고 있었다. 지역규모별로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의 문화시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도시의 경우에는 기관근처 놀이터(70.9%), 일반도서관(47.1%), 어린이도서관(40.7%), 사설 키즈카페(34.4%), 극장(25.9%) 등의 순이었고, 중소도시의 경우에도 기관근처 놀이터(68.6%), 일반도서관(51.4%), 사설 키즈카페(46.4%), 어린이도서관(40.0%) 등의 순으로 기관 주변에 문화시설이 위치하고 있었다. 반면,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의 문화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지역 기관 주변에는 놀이터(57.3%)와 일반도서관(47.4%)이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었으며, '주변에 문화시설이 없다'는 응답도 17.5%를 차지하였다.

〈표 Ⅴ-1-1〉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에 위치한 문화시설(복수응답)

단위: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전체	48.4	34.2	13.6	5.6	7.8	3.0	21.2	65.6	23.2	12.0	31.8	7.2	7.4	9.0

(표 V-1-1 계속)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기관유형														
어린이집	48.3	36.3	15.0	5.7	6.3	3.3	18.7	70.3	23.7	14.0	34.7	7.7	8.3	8.3
유치원	48.5	31.0	11.5	5.5	10.0	2.5	25.0	58.5	22.5	9.0	27.5	6.5	6.0	10.0
지역규모														
대도시	47.1	40.7	13.8	7.9	7.4	4.8	19.6	70.9	25.9	16.9	34.4	11.6	9.5	4.8
중소도시	51.4	40.0	14.3	7.1	12.9	3.6	26.4	68.6	30.7	11.4	46.4	7.9	6.4	4.3
읍면지역	47.4	22.2	12.9	1.8	4.1	0.6	18.7	57.3	14.0	7.0	17.0	1.8	5.8	17.5

주: ①일반도서관, ②어린이도서관, ③일반박물관, ④어린이박물관, ⑤일반미술관, ⑥어린이미술관, ⑦문예회관, ⑧기관근처 놀이터, ⑨극장, ⑩놀이공원, ⑪사설 키즈카페, ⑫ 과학관/천체관, ⑬ 수족관/동·식물원, ⑭ 시설 없음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2) 정보습득 경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문화시설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인터넷 상의 해당 웹사이트 및 포털사이트를 통해' 습득하는 경우가 48.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안내문(현수막, 간판,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습득하는 경우가 23.0%, '지인을 통해' 습득하는 경우가 11.6%,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 커뮤니티를 통해' 습득하는 경우가 7.0% 순으로 나왔다.

〈표 V-1-2〉 문화시설에 대한 정보습득 경로

단위: %

구분	비율
전체(500명)	100.0
인터넷 상의 해당 웹사이트 및 포털사이트를 통해	48.0
안내문(현수막, 간판,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23.0
지인을 통해	11.6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 커뮤니티를 통해	7.0
신문, 잡지, 전문서적 등을 통해	3.2
TV/라디오 방송을 통해	3.0
기타	3.0
트위터,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1.2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3)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문화시설 방문이 어려운 이유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체험활동이나 현장학습을 위해 문화시설을 방문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그 이유를 알아보았다. 다음 <표 Ⅴ-1-3>은 문화시설 방문이 어려운 이유에 대한 1순위로 응답한 결과이다.

'접근이 용이한 인근지역에 문화시설 부재'가 40.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족'이 22.8%, '기관 소유차량이 없어서'가 9.0%, '체험 학습비 부담'이 7.8%로 나타났다. 반면, 문화시설 방문에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기관도 9.6%를 차지하였다.

〈표 Ⅴ-1-3〉 문화시설 방문이 어려운 이유(1순위)

단위: %

구분	비율
전체(500명)	100.0
접근이 용이한 인근지역에 문화시설 부재	40.8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족	22.8
어려움 없음	9.6
기관 소유차량이 없어서	9.0
체험 학습비 부담	7.8
문화시설에 대한 정보 부족	5.0
위생상태 불량 및 안전사고 등의 위험성	3.2
기타	1.8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문화시설 방문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합산하여 확인한 결과는 <표 Ⅴ-1-4>와 같다. 순위를 살펴보면, '접근이 용이한 인근지역에 문화시설 부재'가 30.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다음은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족'이 27.4%로 나타나 1순위의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체험 학습비 부담'이 11.2%, '기관 소유차량이 없어서'가 10.8%, '위생상태 불량 및 안전사고 등의 위험성'이 7.5% 순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체험활동이나 현장학습을 위한 어린이집·유치원 인근지역의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것과 더불어 기존 문화시설에서도 영유아를 배려한 프로그램이 미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Ⅴ-1-4〉 문화시설 방문이 어려운 이유(1+2순위)

단위: %

중점 사항	비율
전체(500명)	100.0
접근이 용이한 인근지역에 문화시설 부재	30.7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족	27.4
체험 학습비 부담	11.2
기관 소유차량이 없어서	10.8
위생상태 불량 및 안전사고 등의 위험성	7.5
어려움 없음	5.4
문화시설에 대한 정보 부족	4.7
기타	2.3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나. 이용의 필요성

1) 영유아를 위해 필요한 문화시설

영유아들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성장·발달을 위해 가장 필요한 문화시설에 대해 1순위와 중복응답(1+2순위)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1순위 응답을 살펴보면, '어린이도서관'이 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수족관 및 동·식물원(17.6%), 어린이박물관(17.2%), 어린이미술관(8.6%) 순으로 결과가 나왔다. 영유아를 위해 가장 필요한 문화시설에 대해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합산한 결과에서도 어린이도서관(18.8%)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수족관 및 동·식물원(17.5%), 어린이박물관(16.4%), 어린이미술관(9.8%), 놀이공원(9.5%), 과학관/천체관(6.9%) 등의 순으로 결과가 나왔다. 1순위 응답과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한 응답 모두에서 일반문화시설보다 어린이도서관, 어린이박물관, 어린이미술관 같은 어린이문화시설에 대한 요구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Ⅴ-1-5〉 영유아의 발달을 위해 가장 필요한 문화시설

단위: %

1순위	비율	1+2순위	비율
전체(500명)	100.0	전체(500명)	100.0
어린이도서관	25.0	어린이도서관	18.8
수족관/동·식물원	17.6	수족관/동·식물원	17.5
어린이박물관	17.2	어린이박물관	16.4
어린이미술관	8.6	어린이미술관	9.8

(표 V-1-5 계속)

1순위	비율	1+2순위	비율
놀이공원(어린이 대공원 등)	7.6	놀이공원(어린이 대공원 등)	9.5
기관근처 놀이터	6.8	과학관/천체관	6.9
과학관/천체관	4.6	기관근처 놀이터	6.6
극장(영화, 연극, 뮤지컬공연장)	3.8	극장(영화, 연극, 뮤지컬공연장)	5.6
사설 키즈카페	3.4	문예회관	3.5
문예회관	2.2	사설 키즈카페	3.1
일반도서관	1.4	일반도서관	0.9
일반박물관	1.0	일반박물관	0.8
일반미술관	0.8	일반미술관	0.6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2) 영유아기 문화시설 체험의 필요성

영유아기 문화시설 체험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98.2%로 대부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들은 영유아기의 문화시설 체험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V-1-6〉 영유아기 문화시설 체험의 필요성

단위: %(명), 점

구분		필요 여부		계	평균 (4점 만점)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전체		1.8	98.2	100.0(500)	3.56
기관유형					
어린이집		2.7	97.3	100.0(300)	3.48
유치원		0.5	99.5	100.0(200)	3.69
설립유형					
어린이집	국/공립	3.9	96.1	100.0(51)	3.59
	법인	0.0	100.0	100.0(49)	3.57
	가정	5.3	94.7	100.0(95)	3.35
	민간	1.0	99.0	100.0(105)	3.50
유치원	국/공립	0.0	100.0	100.0(100)	3.72
	사립	1.0	99.0	100.0(100)	3.66
기관규모					
30인 미만		2.3	97.7	100.0(171)	3.52
30인-100인 미만		1.5	98.5	100.0(195)	3.55
100인 이상		0.8	99.2	100.0(129)	3.65
무응답		20.0	80.0	100.0(5)	3.40

(표 Ⅴ-1-6 계속)

구분	필요 여부		계	평균 (4점 만점)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지역규모				
대도시	2.6	97.4	100.0(189)	3.56
중소도시	0.7	99.3	100.0(140)	3.54
읍면지역	1.8	98.2	100.0(171)	3.60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3) 영유아기 문화시설 이용 경험이 필요한 이유

영유아기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1순위와 중복응답(1+2순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표 Ⅴ-1-7>과 같다. 1순위 응답을 살펴보면, '창의성 개발을 위해'가 39.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정서발달을 위해'가 30.3%를 차지하여 전체 기관 중 70.0%가 영유아의 창의성 개발 및 사회·정서적인 발달을 위해 문화시설 이용 경험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합산한 결과에서도 영유아의 사회·정서발달 및 창의성 개발을 위해 문화시설을 이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표 Ⅴ-1-7〉 영유아기 문화시설 이용 경험이 필요한 이유

단위: %

1순위	비율	1+2순위	비율
전체(500명)	100.0	전체(500명)	100.0
창의성 개발을 위해	39.7	사회·정서발달을 위해	27.9
사회·정서발달을 위해	30.3	창의성 개발을 위해	24.5
문화생활의 일상화를 위해	8.8	흥미와 재능 발견을 위해	13.4
흥미와 재능 발견을 위해	7.3	문화생활의 일상화를 위해	12.2
인지발달을 위해	5.7	건전한 놀이기회 제공을 위해	9.9
건전한 놀이기회 제공을 위해	4.7	신체발달을 위해	6.2
신체발달을 위해	3.5	인지발달을 위해	5.9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4) 문화시설 방문 선택 시 고려사항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체험활동이나 현장학습을 위해 문화시설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에 대해 1순위와 2순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 Ⅴ-1-8>은 1순위로 응답한 어린이집·유치원의 문화시설 선택 시의 고려사항이다.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전시·공연 내용의 세분화’를 고려한다는 응답이 4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접근의 용이성/교통의 편의성’이 38.8%, ‘영유아를 배려한 공간 구성 및 이용의 편리성 제고’가 14.2%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Ⅴ-1-8〉 체험활동 및 현장학습을 위한 문화시설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단위: %

중점 사항	비율
전체(500명)	100.0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전시·공연 내용의 세분화	43.2
접근의 용이성/교통의 편의성	38.8
영유아를 배려한 공간 구성 및 이용의 편리성 제고	14.2
문화시설 내의 영유아 활동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	1.8
문화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홍보)	1.2
교육자료 인쇄물 제공	0.4
기타	0.4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체험활동이나 현장학습을 위해 문화시설을 선택할 때, 중시하는 고려사항에 대해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합산한 결과는 <표 Ⅴ-1-9>와 같다. 1순위 응답 결과에서와 같이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전시·공연 내용의 세분화’를 고려한다는 응답이 3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영유아를 배려한 공간 구성 및 이용의 편리성 제고’가 27.8%, ‘접근의 용이성/교통의 편의성’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23.5% 순으로 보고되었다.

〈표 Ⅴ-1-9〉 체험활동 및 현장학습을 위한 문화시설 선택 시 고려사항(1+2순위)

단위: %

중점 사항	비율
전체(500명)	100.0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전시·공연 내용의 세분화	34.0
영유아를 배려한 공간 구성 및 이용의 편리성 제고	27.8
접근의 용이성/교통의 편의성	23.5
문화시설 내의 영유아 활동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	8.9
문화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홍보)	4.1
교육자료 인쇄물 제공	1.2
기타	0.5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2. 영유아 문화인프라 이용 제고를 위한 기관장 의견

가. 문화시설 이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

영유아기의 문화시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1순위와 중복응답(1순위+2순위)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표 Ⅴ-2-1>의 1순위 응답을 살펴보면, '문화시설의 프로그램 다양화 및 콘텐츠 개발'이 27.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접근성 제고'가 25.0%, '문화시설의 지역 간 균형 설치'가 24.2%,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 확충'이 10.8% 등의 순으로 결과가 나왔다.

〈표 Ⅴ-2-1〉 영유아기의 문화시설 이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1순위)

단위: %

중점 사항	비율
전체(500명)	100.0
문화시설의 프로그램 다양화 및 콘텐츠 개발	27.4
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접근성 제고	25.0
문화시설의 지역 간 균형 설치	24.2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 확충(예: 어린이도서관, 어린이박물관 등)	10.8
기존 문화시설 내 어린이 전용 공간 설치(예: 일반도서관 내 영유아 열람실 등)	5.4
기관 단체 이용 시 비용 및 인력 지원	2.8
영유아를 위한 문화시설 이용 정보 및 기회 제공	2.6
현재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문화바우처의 지급 대상 및 비용 확대	0.8
문화시설 이용 시간 확대(야간, 주말 시간 개장 및 프로그램 실시)	0.6
기타	0.4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영유아기 문화시설 이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합산한 결과에서도 '문화시설의 프로그램 다양화 및 콘텐츠 개발'이 23.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 확충'이 17.2%, '문화시설의 지역 간 균형 설치'가 16.2%, '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접근성 제고'가 14.3%, '기존 문화시설 내 어린이 전용 공간 설치'가 9.6%, '기관 단체 이용 시 비용 및 인력 지원'이 8.8% 등의 순서로 확인되었다.

〈표 Ⅴ-2-2〉 영유아기의 문화시설 이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1+2순위)

단위: %

중점 사항	비율
전체(500명)	100.0
문화시설의 프로그램 다양화 및 콘텐츠 개발	23.0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 확충(예: 어린이도서관, 어린이박물관 등)	17.2
문화시설의 지역 간 균형 설치	16.2
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접근성 제고	14.3
기존 문화시설 내 어린이 전용 공간 설치(예: 일반도서관 내 영유아 열람실 등)	9.6
기관 단체 이용 시 비용 및 인력 지원	8.8
영유아를 위한 문화시설 이용 정보 및 기회 제공	7.7
문화시설 이용 시간 확대(야간, 주말 시간 개장 및 프로그램 실시)	1.5
현재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문화바우처의 지급 대상 및 비용 확대	1.3
기타	0.4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지역규모별로 영유아기의 문화시설 이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Ⅴ-2-3>과 같다. 대도시의 기관에서는 '문화시설의 프로그램 다양화 및 콘텐츠 개발'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던 반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의 기관에서는 '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접근성 제고'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특히 읍면지역 기관들의 경우, '문화시설의 지역 간 균형 설치'에 대한 응답도 높게 나타나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문화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Ⅴ-2-3〉 지역규모별 영유아기의 문화시설 이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1순위)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계
지역규모											
대도시	19.0	22.2	32.3	9.5	6.9	4.2	1.1	3.2	1.1	0.5	100.0(189)
중소도시	29.3	23.6	24.3	10.7	5.0	1.4	0.0	4.3	0.7	0.7	100.0(140)
읍면지역	28.1	26.9	24.6	12.3	4.1	1.8	0.6	1.2	0.6	0.0	100.0(171)

주: ①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접근성 제고, ②문화시설의 지역 간 균형 설치, ③ 화시설의 프로그램 다양화 및 콘텐츠 개발, ④어린이 전용 문화시설 확충, ⑤ 존 문화시설 내 어린이 전용 공간 설치, ⑥영유아를 위한 문화시설 이용 정보 및 기회 제공, ⑦문화시설 이용 시간 확대, ⑧기관 단체 이용 시 비용 및 인력 지원, ⑨현재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문화바우처의 지급 대상 및 비용 확대, ⑩기타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나. 확충이 필요한 문화시설

어린이집·유치원이 소재한 지역에 가장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화시설에 대해 1순위와 중복응답(1+2순위)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1순위 응답을 살펴보면, 어린이도서관이 2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어린이박물관(17.0%), 수족관/동·식물원(15.0%), 과학관/천체관(8.4%), 어린이미술관(7.6%) 등의 순으로 결과가 나왔다.

현재 가장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화시설에 대해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합산한 결과에서는 수족관 및 동·식물원이 18.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어린이도서관(17.4%), 어린이박물관(15.7%), 어린이미술관(10.5%), 과학관/천체관(8.2%) 등의 순으로 결과가 나왔다.

〈표 Ⅴ-2-4〉 소재 지역에 가장 확충이 필요한 문화시설

단위: %

1순위	비율	1+2순위	비율
전체(500명)	100.0	전체(500명)	100.0
어린이도서관	25.2	수족관/동·식물원	18.1
어린이박물관	17.0	어린이도서관	17.4
수족관/동·식물원	15.0	어린이박물관	15.7
과학관/천체관	8.4	어린이미술관	10.5
어린이미술관	7.6	과학관/천체관	8.2
놀이공원(어린이 대공원 등)	6.6	놀이공원(어린이 대공원 등)	7.8
기관근처 놀이터	6.2	기관근처 놀이터	5.7
문예회관	3.4	극장(영화, 연극, 뮤지컬공연장)	5.2
사설 키즈카페	3.0	문예회관	4.1
일반박물관	2.6	사설 키즈카페	2.9
극장(영화, 연극, 뮤지컬공연장)	2.2	일반박물관	1.9
일반도서관	1.6	일반도서관	1.3
일반미술관	1.2	일반미술관	1.2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지역규모별로 어린이집·유치원 소재 지역에 가장 확충이 필요한 문화시설을 알아본 결과는 <표 Ⅴ-2-5>와 같다. 대도시와 읍면지역 기관의 응답에서는 '어린이도서관' 가장 확충이 필요한 문화시설이었던 반면, 중소도시지역 기관의 응답에서는 '어린이박물관'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표 Ⅴ-2-5〉 지역규모별 소재 지역에 가장 확충이 필요한 문화시설(1순위)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계
지역구분														
대도시	2.1	25.4	3.7	14.3	2.1	9.5	3.2	6.3	1.1	5.8	1.6	6.9	18.0	100.0(189)
중소도시	2.1	21.4	2.9	23.6	0.0	5.7	3.6	5.0	3.6	6.4	2.9	10.0	12.9	100.0(140)
읍면지역	0.6	28.1	1.2	14.6	1.2	7.0	3.5	7.0	2.3	7.6	4.7	8.8	13.5	100.0(171)

주: ①일반도서관, ②어린이도서관, ③일반박물관, ④어린이박물관, ⑤일반미술관, ⑥어린이미술관, ⑦문예회관, ⑧기관근처 놀이터, ⑨극장, ⑩놀이공원, ⑪사설 키즈카페, ⑫과학관/천체관, ⑬수족관/동·식물원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다. 문화예술교육사 파견 정책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계획에 의하면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및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사 파견 정책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확대 실시하여 2014년까지 1,300개소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사 파견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88.0%가 문화예술교육사 파견 정책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알고 있다는 응답은 12%에 그쳤다.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에서 알고 있다는 응답이 조금 더 많았으며 국공립이 민간이나 사립보다 알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기는 했으나, 모른다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정책홍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Ⅴ-2-6〉 문화예술교육사 파견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계
전체		12.0	88.0	100.0(500)
기관형태				
어린이집		8.3	91.7	100.0(300)
유치원		17.5	82.5	100.0(200)
설립유형				
어린이집	국/공립	15.7	84.3	100.0(51)
	법인	2.0	98.0	100.0(49)
	가정	8.4	91.6	100.0(95)
	민간	7.6	92.4	100.0(105)
유치원	국/공립	20.0	80.0	100.0(100)
	사립	15.0	85.0	100.0(100)

(표 V-2-6 계속)

구분	예	아니오	계
기관규모			
30인 미만	9.9	90.1	100.0(171)
30인-100인 미만	11.3	88.7	100.0(195)
100인 이상	16.3	83.7	100.0(129)
무응답	0.0	100.0	100.0(5)
지역규모			
대도시	12.2	87.8	100.0(189)
중소도시	12.9	87.1	100.0(140)
읍면지역	11.1	88.9	100.0(171)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설문지에 문화예술교육사 정책의 목적,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요건 및 역할 등에 대한 내용을 제공한 후 이러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영유아의 문화예술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다'는 응답이 49.4%를 차지하였다. 반면, '영유아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는 응답도 42.8%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 기관장의 의견을 살펴보면, 대도시의 경우에는 '영유아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는 응답이 50.8%로 좀 더 많았던 반면,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영유아 문화예술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표 V-2-7〉 문화교육예술교육사를 파견 정책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영유아 문화예술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영유아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49.4	42.8	7.8	100.0(500)
기관형태					
어린이집		47.3	42.7	10.0	100.0(300)
유치원		52.5	43.0	4.5	100.0(200)
설립유형					
어린이집	국/공립	52.9	41.2	5.9	100.0(51)
	법인	49.0	34.7	16.3	100.0(49)
	가정	45.3	46.3	8.4	100.0(95)
	민간	45.7	43.8	10.5	100.0(105)
유치원	국/공립	59.0	34.0	7.0	100.0(100)
	사립	46.0	52.0	2.0	100.0(100)

(표 Ⅴ-2-7 계속)

구분	영유아 문화예술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영유아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잘 모르겠다	계
기관규모				
30인 미만	55.6	37.4	7.0	100.0(171)
30인-100인 미만	48.2	41.0	10.8	100.0(195)
100인 이상	45.0	50.4	4.7	100.0(129)
무응답	0.0	100.0	0.0	100.0(5)
지역규모				
대도시	41.3	50.8	7.9	100.0(189)
중소도시	54.3	39.3	6.4	100.0(140)
읍면지역	54.4	36.8	8.8	100.0(171)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3. 소결

본 장에서는 어린이집 300개소와 유치원 200개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문화인프라 이용실태 및 영유아기 문화시설 이용의 필요성과 영유아 문화시설 이용 정책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의 문화시설로는 기관근처 놀이터가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일반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이 많이 위치하고 있었다. 지역규모별로 살펴보았을 때, 읍면지역의 어린이집·유치원은 대도시나 중소도시의 어린이집·유치원에 비해 '주변에 문화시설이 없다'는 응답이 4배 이상 높게 나왔다. 또한 어린이집·유치원에서는 문화시설에 대한 정보를 주로 '인터넷 상의 해당 웹사이트 및 포털사이트를 통해(48%)' 얻고 있었다. 이는 육아지원기관 관련 포털사이트에 지역별 문화시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문화시설 방문이 어려운 이유는 접근이 용이한 인근지역에 문화시설이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부족 또한 기관으로 하여금 체험활동이나 현장학습으로의 문화시설 방문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영유아들에게 가장 필요한 문화시설은 '어린이도서관'인 것으로 나타났

다. 그 다음으로 수족관/동·식물원, 어린이박물관, 어린이미술관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이를 통해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영유아를 배려한 어린이문화시설 또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대부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들은 영유아기 문화시설 체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문화시설 이용 경험이 영유아의 창의성 개발과 사회·정서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여겼다. 또한 체험활동 및 현장학습을 위한 문화시설 선택에 있어서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전시·공연 내용의 세분화'를 가장 많이 고려하고 있었다.

다섯째, 영유아기의 문화시설 이용 제고를 위한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역규모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대도시 어린이집·유치원의 경우 '문화시설의 프로그램 다양화 및 콘텐츠 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았던 반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 어린이집·유치원에서는 '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접근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특히 읍면지역 기관들의 경우에는 '문화시설의 지역 간 균형 설치'에 대한 요구도 높아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갈망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섯째, 어린이집·유치원이 소재한 지역에 가장 확충이 필요한 문화시설은 '어린이도서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 살펴보았을 때, 대도시와 읍면지역의 기관에서는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요구가 높았던 반면, 중소도시의 기관에서는 '어린이박물관'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일곱째, 문화예술교육사 파견정책과 관련하여 조사대상 기관장의 88.0%가 이 정책을 인지하고 있지 않았다. 이는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함을 시사한다. 문화예술교육사 파견 정책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계획 중 하나로 2014년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1,300개소에 문화예술교육사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파견 정책의 실행에 대해 대도시의 기관에서는 '영유아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는 응답이 좀 더 많았던 반면,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의 기관에서는 '영유아 문화예술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파견 정책은 일반적인 문화예술교육사 파견 정책의 연장선에서 어린이집·유치원으로 단순히 확대 실시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영유아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사 양성과정에서부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의 특수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Ⅵ. 영유아기 문화인프라 이용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고찰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영유아기 문화인프라 이용 제고를 위한 지원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1. 지원방향

가. 영유아기 문화인프라 이용 제고

부모세대와 영유아 자녀 세대 모두 영유아기의 문화인프라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자녀가 이용 비율이 좀 더 많이 나오기는 했으나 그동안의 문화인프라 확충을 고려해 볼 때,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우리사회의 문화에 대한 인식수준이나 욕구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영유아 자녀가 문화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문화시설의 유형별로 차이는 있지만, 이용하지 않는 시설이 훨씬 많았다(설문조사에서 보기로 제시한 13개 문화시설 중 10개 시설을 미이용 함). 미이용보다 이용이 많은 문화시설 3개는 집근처 놀이터, 놀이공원, 수족관·동식물원이었다.

미이용 이유로는 '자녀가 어려서', '근처에 이용가능한 시설이 없어서', '이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고 응답하였다. 여기서 '자녀가 어려서'와 '이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는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문화시설을 이용한다고 해도 잘 모를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근저에는 문화시설을 목적 지향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조사결과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도서관은 독서·대출을 목적으로 박물관·미술관·문예회관은 관람을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이용 목적은 어린이 전용 도서관·박물관·미술관도 마찬가지였다.

다시 말해서, 문화시설을 일상적으로 편안하게 이용하는 게 아니라 특정 목적을 갖고 이용한다는 것은 이용 목적이 없는 평소에는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사회에서 문화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특별한' 활

동으로 자연스러운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지 않았음을 뜻한다. 부모세대가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문화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적기 때문에 자녀에게 좀 더 편안하게 생활의 일부로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전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속이론(continuity theory)에 따르면, 문화(여가)활동은 학습된 행동으로 생애주기에 걸쳐 나타나는 계속적인 경험과 변화로서 생애초기에 학습한 문화활동은 전 생애에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친다고 한다(윤소영 외, 2011: 6). 한 개인이 평생 향유할 수 있는 문화활동의 토대가 생애초기단계에 형성되고 이후 계속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영유아기의 중요성이 절대적이라 하겠다.

나. 영유아기부터 공공 문화인프라 이용 제고

부모세대에서 공공재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을 영유아기에 이용한 비율은 10% 미만이었지만, 놀이공원과 극장의 영유아기 이용 비율은 각각 24.5%, 10.3%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모세대도 소비재적 문화시설의 이용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영유아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영유아 자녀세대를 보면, 부모세대의 공공 문화시설의 이용율보다는 수치는 높게 나왔으나 미이용의 비율이 여전히 70%후반~90%를 상회하였다. 공공 문화인프라의 낮은 이용은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실시하는 현장학습에서도 동일하였다. 어린이집·유치원에서도 수족관·동식물원, 극장, 놀이공원을 가장 많이 현장학습시설로 이용하였으며 어린이박물관·도서관·미술관의 이용은 낮았다.

앞서 언급한 부모세대가 영유아기에 문화시설 경험이 적었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과 동일하게 부모세대가 공공 문화시설보다는 소비재적인 문화시설을 더 많이 접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자녀세대에게 전이된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문화도 소비재 성격이 강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문화를 체험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 부모들은 극장, 놀이공원, 사설 키즈카페, 수족관·동식물원을 자녀와 함께 다녀 온 것을 문화생활로 인식하고 있었다. 물론 여가활동과 문화활동의 경계선이 모호하기 때문에 문화생활, 문화활동을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는 없지만, 공공 문화인프라의 이용이 전반적으로 세대 간 차이 없이 낮은 사실은 주목해야 하겠다.

이처럼 부모들의 공공 문화인프라 이용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필요하지만, 공공 문화인프라의 어떤 측면이 부족해서 부모 또는 어린이집·유치원의 이용을

제고하지 못하는지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최근 경기도 북부지역에 어린이박물관의 추가 설치 및 올해 개관한 서울 상상나라의 높은 이용율을[21] 통해 영유아를 위한 공공 문화인프라가 어떠한 기능과 특성을 지녀야 하는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 가구소득별 문화인프라 이용 격차 해소

취약계층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한 본 연구에서는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 간의 비교 분석도 중요하게 다루었다. 그 결과, 가구특성별로 영유아 자녀의 문화시설 이용정도, 이용 시기, 미이용 이유, 희망하는 정책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가구의 문화시설 이용이 적고, 이용하는 시기도 늦으며, 미이용의 이유에서도 비용부담이 높게 나타났다.

부르디외(P. Bourdies)는 "문화는 정신적 산물만이 아니라 자본의 형태를 띠는데 이 때 자본은 화폐적 가치뿐 아니라 문화예술의 취향을 드러내는 심미적 가치와 학력과 혈통에서 축적된 사회적 자산을 포함한다"(이동연, 2010: 32)고 문화를 사회적 자본으로 통찰하였다. 문화예술적 취향이 다른 것은 단순히 개성의 차이가 아니라 학력, 자본, 출신계급(본 연구에서 가구특성)에 의한 '구별짓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이동연, 2010: 42). 이러한 부르디외의 문화자본론의 틀로 분석한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의 문화이용의 차이는 축적된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을 강력하게 받는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저소득가구의 부모대상으로 문화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방식 등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가구의 문화이용 제고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중요한 문화정책 영역이다. 영유아기의 문화이용 정도가 이후 생애단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부는 생애초기단계인 영유아기부터 적극적으로 문화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

라. 지역규모별 문화인프라 이용 격차 해소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가구특성별뿐 아니라 지역에 따른 문화시설 이용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희망하는 정책에서 대도시와 중소도시

21) 2013년 5월 2일 개관 이후 입장객은 43,183명으로 매월 평균 목표 관람객 대비 99%임(서울시 내부자료, 2013).

는 '프로그램 다양화'였다면 읍면지역만이 '지역 간 균형적 배치'를 1순위로 꼽았다. 문화인프라가 미흡한 농산어촌 지역의 영유아들도 문화소외계층이라 하겠다.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식 문화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으나 사업의 실효성을 파악한 조사나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워서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담당자와의 면담조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수혜 아동이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농산어촌의 아동들이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동식 문화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영유아들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시설인 놀이터에 대한 수요가 읍면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놀이터는 가장 일찍 경험하는 문화시설이며 영유아기에 가장 자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문화시설이다. 농산어촌에 놀이터의 설치뿐 아니라 도시지역의 낙후한 놀이터의 개보수도 하면서 영유아의 발달을 자극할 수 있는 창의적인 놀이시설들을 설치하여 전국의 모든 영유아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놀이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하겠다.

마. 문화인프라 종류별 설치 지원 전략 차별화

본 연구에서 정의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놀이터는 각각의 특성을 지닌 문화시설로서 이에 따른 지원전략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 Ⅲ장에서도 제시했듯이 모든 문화인프라 설립 시,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 중심으로 확충과 함께, 인구규모도 고려해서 문화인프라 종류별로 설립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박물관과 미술관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시설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역지자체를 대표하는 성격의 시설과 모든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중소규모의 시설로 구분하여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도서관은 생활밀착형 인프라의 성격이 강하므로 도서관 서비스가 지역 주민 모두에게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이원태 외, 2004: 18).

이와 같이 어린이 전용 문화인프라도 종류에 따라 차별화된 설립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영유아 문화인프라 지원방안에서 다루겠다.

2. 가구 지원방안

가. 전체 가구 지원방안

1) 기존 공공 문화인프라의 적극적 홍보

공공 문화시설의 미이용 이유로 '근처에 이용가능한 시설이 없어서'가 소비재 문화시설의 미이용 이유보다 많이 나왔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실제 시설이 없는 경우'와 '있지만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먼저, 후자를 말하자면 이는 홍보의 문제이다. 문화시설을 접하게 되는 인지경로를 보면, 아는 사람의 소개나 지자체 홍보가 많았다. 지역신문, 지역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신문, TV 등의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전국민 대상의 홍보를 주력할 필요가 있다. 홍보효과를 최대화하려면 일회성보다는 지속성을 지녀야 한다. 하나의 방안으로 교육관련 방송프로그램이나 가족이 함께 보는 드라마나 오락방송에서 장소협찬으로 문화시설을 장시간 보여주는 것이 뉴스식의 일회성 소개보다 효과가 클 수 있다. 어린이도서관의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계기가 TV프로그램(MBC 느낌표)이었다는 점에서 대중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아울러 대중매체도 공공 문화시설의 이용 제고를 위해 이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예: 아빠와 함께하는 문화시설 체험 등)을 신설하여 시청자로 하여금 자녀와 한 번 가보고 싶은 곳으로 인식되게 하여 공공 문화시설 이용 제고에 일조할 것을 제안한다.

2) 영유아 문화인프라 시설 확충

다음으로 실제로 '집 근처에 이용가능한 시설이 없어서' 이용하지 못한 경우이다. 영유아 인구가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이 때 지리적 위치가 중요하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자주 이용하는 어린이도서관은 영유아 자녀와 함께 이용하려면 도보 가능한 또는 유모차로 이동가능한 지역이면 최적의 장소라 하겠다. 시·군·구 수준에서 설치를 제안한 어린이박물관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을 고려해야 하겠다. 국립중앙(어린이)박물관은 지하철과 연결되어 지하철의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바로 박물관으로 연결되도록 설계되었다. 어린이박물관·미술관, 또는 어린이도서관도 버스나 지하철을 내리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겠으며 바로 연결이 쉽지 않다면, 셔틀버스를 수시로 운영하거나 지하철역에 유모차를 구비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겠다. 그런데 본 조사에서 문화시설 이용 시 가구특성에 상관없이 개인차량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자녀를 동반할 경우, 대중교통보다는 개인차량 이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에서의 주차장은 중요한 공간으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겠다.

3) 문화인프라 내 영유아를 위한 시설과 공간 구비

일반 도서관·박물관·미술관에 비해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이 영유아를 위한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이용만족도가 높게 나왔다. 일반적으로 도서관은 정숙을 요구하며 박물관은 낮은 채도의 정적인 분위기라 영유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문화시설을 접하게 되면 오히려 박물관, 도서관은 '재미없는 곳'이나 '가고 싶지 않는 곳'으로 인식되기 쉽다.

연구진이 방문한 기적의 도서관(순천, 제천)과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의 유아관은 기존의 '실내정숙'을 요구하는 분위기와 사뭇 달랐다. 책을 읽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수유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었으며, 화장실과 세면대도 영유아 눈높이에 맞는 시설들을 구비하고 있었고, 도서관 바닥을 온돌로 깔아서 책상뿐 아니라 바닥에 누워서도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발달에 맞는 시설과 공간을 제공하고 있었다.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이 필요한 대목이지만, 본 조사결과 문화시설 확충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수요가 많이 나왔고, 또 기존의 문화인프라 내에서도 영유아를 위한 시설과 공간을 구비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기존의 문화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4) 영유아와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려면 그 곳에 가면 '재미'가 있어야 하겠다. 영유아 자녀들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모형 유물이나 체험 프로그램들이 자주 교체되면서 제공되어야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하다. 학부모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은 문화시설에 갈 때마다 항상 똑같은 전시,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아이들이 지루해 하고 아이들이 지루해 하다 보니 데려가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영유아 자녀와 문화시설을 지속적으로 즐겁게 이용하려면 부모도 재미

있어야 하겠다. 이용경험이 많이 나온 극장, 놀이공원, 수족관·동식물원의 이용 만족도 이유를 보면, '자녀가 좋아해서'와 함께 '자녀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어서'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가 공공 문화시설 이용 만족도에서는 비율이 낮게 나왔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방문한 문화시설이 영유아 자녀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즐거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예로, 어린이박물관이 소속형태로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유물 등의 설명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은 동일한 시간대에서 다른 동선으로 부모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서 아이와 부모가 별도로 교육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같이 공감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즉, 자녀를 위해 문화시설을 이용하지만 부모들은 아이들을 쫓아다는 데만 급급하다 보면 부모들도 쉽게 지치고 자주 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부모에게도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나. 저소득 가구 지원방안

1) 비용지원 확대

2008년 이후부터 국립 박물관·미술관은 전 국민 대상으로 무료 관람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립 박물관·미술관은 지자체에 따라 관람료 지불 유무 등에 지역차가 있으며 사립 박물관·미술관은 관람료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는 영유아만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단위로 지불하다보면 그 비용이 적지 않다. 공연료가 고가인 문예회관의 경우 저소득가구가 이용하기에는 벽이 높다. 본 조사에서도 저소득 가구에서 '비용부담'으로 문화생활을 하지 못한 비율이 일반가구보다 높았다.

저소득가구의 영유아 자녀는 관람료를 면제해 주거나 가족단위로 관람 시 할인을 해 주는 등의 비용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

2) 문화바우처 가구원수별 비용 지원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의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문화바우처는 처음에는 가구원 지원에서 현재 가구단위 지원으로 변경되어 한 가구당 5만원(1년 기준)을 지원하고 있다. 영유아들은 부모의 의지가 없다면, 문화를 독자적으로 향유하기 어려운 문화소외계층이다. 그런데 가구당 지원을 하면 영유

아를 위한 문화생활에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부모가 원하는 영화, 음반, 도서 등을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1년에 5만원은 가족단위로 이용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므로 비용 확대가 필요하다. 예컨대, 영화 한 편당 보통 8,000원이면 어린이 비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4인 가족 기준으로 1년에 영화 한 편 이상을 보기가 어려운 금액이다. 따라서 비용확대는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조사에서 저소득가구원수가 일반가구원수에 비해 좀 더 많이 나왔다는 점에서도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유아 자녀가 이용한 문화시설의 이용료는 포인트 적립식으로 누적하여 이듬해 문화바우처 카드에 현금으로 전환하여 추가 지원하는 등 영유아 자녀가 문화소외계층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3) 이동식 문화서비스 확대

문화인프라가 미비한 읍면지역에서 문화시설 확충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부모들은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더 희망한 것에 비해 읍면지역 부모들이 '문화시설 확충'을 더 희망하는 것은 문화시설 자체에 대한 욕구가 도시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영유아 인구가 적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문화시설을 확충하라는 제안은 현실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들 지역은 '이동식'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다. 문화시설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이용 정도와 차이가 없도록 양질의 '이동식' 문화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겠다. 또한, 이러한 이동식 문화서비스를 도시의 저소득가구 대상에게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문화시설 이용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소득가구의 영유아 자녀들에게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구를 지자체의 사회복지과의 협조를 통해 발굴하여 '찾아가는' 문화체험 서비스를 실시하여 소득계층 간 문화격차를 줄여나간다.

3. 어린이집·유치원 지원방안

영유아들은 가정보다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문화시설 이용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으며 학부모들도 기관에서의 이용 증진을 희망하였다. 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문화시설 이용 시의 지원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가. 단체관람에 맞는 영유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어린이 문화시설뿐 아니라 일반 문화시설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았다. 어린이집·유치원 원장조사에서 문화시설 방문이 어려운 이유 중에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족'을 2순위로 꼽았으며 문화시설 선택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 1순위로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및 전시·공연 내용의 세분화'를 1순위로 꼽았다. 또한 필요한 정책 1순위도 '문화시설 프로그램 다양화 및 컨텐츠 개발'이었다. 영유아가 흥미를 갖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임을 알 수 있다.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한 문화시설 이용은 단체관람이므로 가족단위 프로그램과는 다른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만 이용만족도가 제고될 것이다.

나. 단체관람에 대한 비용 지원

부모대상 조사에서 어린이집·유치원에 바라는 개선점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문화시설 체험'이 2순위로 나왔다. 1회당 지불하는 금액은 1만원 미만이 약 50%로 가장 많이 나왔는데, 1년에 4~5회 이용이 가장 많아서 현장학습 이용 비용으로 1년에 평균 약 5만원 미만으로 지불한다고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유치원의 문화시설 이용은 방문객이 적은 주중의 단체관람이란 점에서 문화시설 쪽에서 비용지원을 좀 더 할 수 있다고 본다. 비용할인을 더 많이 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이집·유치원이 더 자주 문화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도 문화시설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용제고를 위한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다. 누리과정과 연계한 기관과 문화시설 간의 프로그램 공동 개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공통과정인 '3~5세 누리과정'을 기본으로 하여 문화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와 문화시설의 학예사가 함께 공동개발하여 문화시설 이용의 시너지를 제고한다.

라. 문화예술교육사 직접 파견보다는 교사교육을 통해 실시

새 정부는 문화예술교육의 확산과 질적 제고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사를 2014년까지 어린이집·유치원 1,300개소에 배치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본 조사에 응답한 원장의 88.0%가 이 정책을 모른다고 응답해 정책홍보가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이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적지 않았다. 문화예술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교육사를 파견한다고 하지만, 이들이 영유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도움이 될 것이다'와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문화예술교육사들이 직접 영유아를 교육하기보다는 이들을 어린이집·유치원의 교사연수 강사로 초빙하여 교사를 교육하도록 하고, 교육을 이수한 교사가 영유아를 가르치도록 한다.

마. 어린이집·유치원과 지역 문화인프라 파트너쉽 구축

핀란드에서는 학교와 박물관(또는 지역 환경 센터)이라는 2개 파트너가 지역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A. Bamford, 2007: 140). 아래에 제시한 핀란드의 사례는 학교와 박물관, 지역정부 간의 파트너쉽을 통해 얻은 문화예술교육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 교사들은 학교 밖 전문가들과 일하는 것을 배웠고 전문가들은 학교 교사들과 학생들과 일하는 것을 배웠다. 학생들은 지역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였고, 의견 워크숍, 전시회, 연구 여행, 학교 방문 등은 좋은 학습 방법들이었다. 특히, 예술 작품이나 학습 재료를 직접 만드는 등 활동하면서 배운다는 아이디어를 좋아하였다. 또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서로 협력하며 일하는 기술이 좋아졌다(A. Bamford, 2007: 140-141)

우리도 이와 같이 문화시설 방문이 현장학습 차원에서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관과 문화시설이 파트너쉽을 가지고 공동으로 문화예술교육을 만들어 나가는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4. 영유아 문화인프라 확충 지원방안

앞서 언급했듯이 문화인프라 종류별로 설립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설립 이후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몇 가지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화인프라의 이용과 운영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문화인프라의 운영이 안정적으로 잘 되어야 이용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 어린이박물관

박물관진흥법이 시설확충보다는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물관 확충 요구는 정책적 흐름과 맞지 않는다고 하겠다. 박물관 확충 정책은 20년 이상 지속된 정책으로서 현재 등록된 박물관만 800여 개에 이른 상황에서 영유아라는 특정 연령의 전용 박물관의 확충 요구는 수사(rhetoric)로 끝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시설확충보다는 프로그램 다양화에 대한 요구가 더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에 대한 욕구가 프로그램의 다양화 다음으로 많았으며(중복응답 결과) 어린이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은 일반 문화시설과는 달리, '이용가능한 시설이 집근처에 없어서' 이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더 많이 나온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어린이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의 확충은 필요하다. 그리고 어린이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이 체험중심의 영유아 전용에서 더 나아가 부모, 조부모 등 가족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세대 간 복합문화시설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기존의 도서관·박물관·미술관과는 다른 개념의 문화시설로 설립할 필요가 있다. 단, 설립 시 지리적 위치를 최대한 고려하여 접근성이 편리하면서도 특정 지역에 치중되지 않도록 설립해 나가야 하겠다. 어린이박물관은 시·도 단위에서 기본적으로 1개를 설치하되 영유아 인구가 많은 시·도는 수요조사를 통해 2개를 설치한다.

나. 어린이도서관

도서관은 유물을 갖추어야 하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비해 설립 비용이 저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수는 어린이도서관까지 포함해서 약 800여개인데 이는 우리나라 박물관수와 거의 비슷하다. 도서관은 확충이 필요한 문화시설

이다. 여기에 어린이도서관은 좀 더 적극적으로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조사에서 어린이도서관은 부모, 기관장 모두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문화시설 1순위로 꼽혔으며 또 공공재 문화시설 중에서 이용횟수가 가장 많았으며(놀이터 제외) 이동시간도 상대적으로 짧아서 일상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문화시설로 나타났다. 박물관·미술관에 비해 자주 이용하는 문화시설이란 점에서 어린이도서관은 '걸어서 가능한 거리에 설립'이란 슬로건을 표방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어린이도서관은 영유아 인구가 많은 지역은 동·면 단위에서 기본적으로 1개 이상 설치한다는 목적으로 추진한다.

다. 어린이미술관

미술관은 부모세대, 영유아 자녀세대 모두 이용이 가장 낮은 문화시설이다. 외국은 미술관이 박물관 내에 포함된 시설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으로 병기하고 있다. 이는 미술관이 박물관과는 다른 기능의 문화시설로서 중요성을 의미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미술관의 대중화 정책은 소원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립 미술관인 과천현대미술관의 지리적 위치를 보면,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 최근 현대미술관의 서울관이 도심 한복판에 설립되었다는 것은 미술관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미술관은 대중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영유아를 위한 독립된 공간을 설치, 다양한 문화예술(미술)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라. 어린이놀이터

본 조사에서 영유아들이 가장 일찍, 가장 많이 이용하는 문화시설은 다름 아닌 놀이터였다. 놀이터는 영유아기에 가장 중요한 문화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놀이터가 없는 지역의 지자체에서는(예: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놀이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겠다. 영유아가 적고 많음을 차치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책무감을 갖고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화이용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저소득 밀집 지역이나 농산어촌의 놀이터에는 영유아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놀이시설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기업에서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놀이터를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마. 문예회관

문예회관은 미술관보다는 이용률이 높지만,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의 이용에 비해 낮았다. 음악회, 뮤지컬, 전시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문예회관의 경우 비용부담이 가장 큰 문화시설로서, 저소득가구가 이용하기에는 벽이 높다. 미이용 이유에서 문예회관이 저소득가구에서 비용부담이 상당히 높게 나왔다.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이 가장 필요한 문화시설로서 영유아 자녀를 동반 시 비용혜택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5. 영유아 문화인프라 운영 내실화 지원방안

가. 관련 법령 정비

문화인프라의 설립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관련 법령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는 "박물관은 사회에 대한 봉사와 그 발전에서 비영리적이며 항구적인 기관으로, 대중에게 개방되고, 교육과 연구 그리고 즐거움을 위해서 인간과 그 환경의 유형적 무형적인 것을 수집, 보존, 연구, 의사소통, 전시한다(ICOM, 2009: 57)"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인간과 그 환경의 유형적 무형적인 것'을 다루는 모든 곳들이 박물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박물관'이라고 명명된 곳뿐만 아니라, 과학관/천체관, 수목원/동·식물원 등의 다양한 공간들이 박물관에 포함되고 있다. 이처럼 박물관의 범위가 모호하다 보니,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근거하며, 기업·개인이 설립한 동물원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관광진흥법'에 근거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광주드림, 2013; www.gjdream.com 발췌, 검색일 2013년 11월 14일) 같은 동물원이라 하더라도 설립주체에 따라 근거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동·식물원, 수족관 관련법 제정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의양신문, 2012; www.uynews.net에서 발췌, 검색일 2013년 11월 14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동·식물원, 수족관을 포함할지 여부는 전문가

들의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겠지만, 문화시설에 따른 법령을 체계적으로 일원화하는 작업은 분명 필요하다. 어린이놀이터도 근거 법령에 따라 수요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놀이터지만, 주택단지 내 놀이터(어린이공원이 공식 명칭임)와 아파트단지내 놀이터가 구분되고 관할 부서도 다르다.

이와 같이 유사한 문화인프라는 관련 근거법을 체계화하여 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최소화하고 설립, 운영 및 관리·감독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하겠다.

나. 문화인프라 내의 '영유아(어린이) 관련 부서' 설치

본 연구진이 면담한 문화시설의 운영 담당자들은 한결같이 설립보다 설립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운영의 어려움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문화인프라의 설립 이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설립주체의 재정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이용자도 꾸준히 증가할 수 있다. 도서관의 경우, 지자체가 설립만하고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도서관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인력인 전문 사서의 인건비마저 지원을 받지 못해서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장서구입비 지원금액도 일 년에 100~200만원 정도(현장전문가 면담결과)인 경우가 많아서 신간 서적을 제대로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도서관이 없어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책이 없어서 이용하지 않는다는 면담내용에서 운영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체험시설 위주의 어린이박물관은 아이들이 많이 작동하다 보면,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기에 유지비가 상당히 소요된다고 한다.

또한, 영유아 문화시설에서는 영유아가 언제 어디서 예고 없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원인력이 성인 대상 문화시설보다 2~3배가 필요하다고 한다. 많은 영유아 문화시설에서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고 있었다. 주로 은퇴한 중장년들이었는데 교통비 등의 실비만 받고 활동하고 있었다. 이처럼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도 인력추가 배치에 필요하지만 안정적인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기관의 운영 면에서는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 예컨대, 양성한 문화예술교육사들을 어린이집·유치원에 파견하여 교육하기보다는(이는 앞서 지적했듯이 현장에서는 파견정책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임), 문화시설에서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정부 또는 지

자체의 의지가 필요하다.

영유아를 위한 문화인프라의 설립도 중요하지만, 설립 이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전문인력 배치는 이용 제고를 위한 필수요건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인프라 내의 조직체계에 영유아(어린이) 담당 관련 부서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영유아(어린이)관련 부서의 설치는 영유아(어린이) 관련 인력과 예산의 편성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이며, 이 인력과 예산은 영유아 문화인프라의 확장을 위해 기능하게 될 것이다. 2009년에 설립되었던 국립어린이박물관 같은 어린이관련 독립 기구가[22] 필요하기도 하지만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국공립 문화인프라에 어린이 관련 조직의 신설이 필요하다.

다. 영유아 전문 문화예술교육사 양성·파견

미술전문 문화예술교육사, 음악전문 문화예술사 등으로 문화예술교육사은 전공별로 구분된다. 전공은 국악, 미술, 무용, 사진, 음악, 공예, 만화·애니메이션, 영화, 디자인 등이 있다. 문화예술교육사(2급)의 교육과정을 보면, 교수역량, 직무소량, 예술전문성으로 구분하여 교수역량에 교육학 관련 과목 2개를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문화예술교육사가 영유아 문화시설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영유아의 특성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데 교육과정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 있다. 교수역량 교육과정에 유아교육학, 아동학 등의 영유아를 이해할 수 있는 교과목을 추가하여 응시자가 교육학과 유아교육학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서 유아교육학을 선택한 사람에게 영유아 문화시설에 우선 파견할 수 있도록 한다.

라.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은 앞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한 내용이다. 영유아 문화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영유아 프로그램뿐 아니라 가족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프로그램, 아빠와 자녀가 함께 하는 부자 프로그램이나, 엄마와 자녀가 함께 하는 모자 프로그램,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하는 세대 간 프로그램, 부부가 함께하는 부부 프로그램 등 대상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한다. 가족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인사와 함께 프로그램도 가능하다.

---

22) 이후 어린이박물관과로 축소 편성됨.

마.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모형 개발

미국에서는 유아부터 은퇴연령까지 각 생애주기별 달성해야 할 목록과 이에 따른 107개 목표로 구성된 생애주기별 여가교육 모형을 개발하였는데 개인 생애 전반에 걸친 문화생활을 위한 생애설계를 이 모형에 따라 계획해 주거나 교육프로그램 개발에도 활용한다(윤소영 외, 2011: 171)고 한다.

우리도 이와 같은 출생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영유아기의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생애전체에서 영유아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다음 단계의 프로그램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다. 영유아 문화시설에서는 개발한 모형을 기초로 생애초기부터 전 생애에 걸친 문화예술교육을 어떻게 체험하고 교육받을지 등의 로드맵을 계획해 주고 잘 진행하고 있는지 등 정기적인 상담도 실시한다. 이 모형 작업은 각 생애단계별 학계전문가, 문화예술교육전문가, 문화시설별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 개발한다.

참고문헌

강인애(2012). 박물관에서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창의·인성 함양 가능성 탐구. 어린이와 박물관 연구 제3호. 9-29.

강정아·김수연·박소희·정세나(2013). 도서관의 첫발걸음, 영·유아서비스. 경기: 경기도사이버박물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2008). 2008 세계도서관 현황: 어린이서비스 중심.

국성하(2010). 우리나라 어린이박물관의 설립과 변화에 대한 고찰. 어린이와 박물관 연구 창간호. 69-97.

김동찬·서주환·박유정(2009). 관련법규 변천이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서울시 소재 현장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37(2), 26-35.

김세훈·김홍남·이용남·이철순·정창무(2001). 문화기반시설 중장기 확충 방안 및

발전 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김원주(2009). 상상과 창의를 유발하는 어린이공원 개선 전략. SDI 정책리포트.

뉴스1. “150가구 아파트 단지 경로당·놀이터 설치 의무화” 2013년 6월 11일자.

류정아·곽노현·백미현(2012). 지역문화 지표개발 및 시범적용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2009). 2008 문화정책백서.

문화체육관광부(2012a). 2012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체육관광부(2012b). 2012 한국도서관연감.

문화체육관광부(2012c).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2013).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대한민국-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박상혜(2012). 박물관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한 연구. 어린이와 박물관 연구 제3호. 31- 49.

박신의·백령·황지영(2012). 2012 국립현대미술관 어린이미술관 Edu-Studio 활성화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국립현대미술관.

백원근·이용훈·김수연·박호상·윤치호(2012). 어린이(5~10세)의 독서 및 도서관 이용 현황 조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서문희·김은설·최진·안재진·최혜선·김유경·조애저(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서울특별시 내부자료(2009). 상상어린이공원 이용현황 모니터링 결과.

서울특별시 내부자료(2013). 서울상상나라 건립 및 운영 현황보고서.

윤소영·신아름·신효원(2011). 100세 시대 대비 여가 및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경림(2012). 문화복지를 위한 문화바우처 실태분석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희(2010). 어린이박물관의 역사와 미래. 어린이와 박물관 연구 창간호. 9-41.

이동연(2010). 문화자본의 시대. 서울: 문화과학사.

이미화·최은영·최윤경·유해미(2013).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영유아 문화기반 조성 방안. 창조경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시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490-560.

이은미(2012). 문화다양성과 창의·인성 교육. 어린이와 박물관 연구 제3호. 51-67.

이은미(2012). 어린이박물관, 현실을 바라보며 미래를 생각한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개관1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자료집, 101-110.

이원태·강석홍·김광식·김세훈(2004). 전국문화기반시설 최소기준수립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임학순·양기호·장미진(1996). 도시 문화환경 조성방안-문화시설의 설치 촉진방안을 중심으로-.한국문화정책개발원.

정기용(2010). 기적의 도서관: 정기용의 어린이 도서관. 서울: 현실문화.

정혜연(2012). 창의력 신장을 목표로 하는 어린이미술관: 재료 탐구 놀이를 통한 현대미술의 이해. 어린이와 박물관 연구 제3호. 69-85.

조복희·신나리·안재진·이정림·최윤경·송신영·김주연·김영원(2009).한국아동패널 2009. 육아정책연구소.

조현성·정갑영·이용훈(2006).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중장기 발전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허은영·라휘문·심민규·김진영(2010). 문화시설 운영 효율성 지표 개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홍현진·강미희·정미봉·정대근(2009). 어린이도서관 프로그램 개발과 운용을 위한 도서관 실태조사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2), 53-90.

Association of Children's Museums(1992/2012). Standards for professional practice in children's museums.

Bamford. A, 백령 역(2007). 예술이 교육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 경기: 한길아트.

Bourdies, P., & Passeron, J. C. (1964). *Reprodcution in education, society, and cultuer.* 이상호 역(2000). 재생산: 교육체계이론을 위한 요소들. 서울: 동문선.

ICOM(2009). Key Concepts of Museology.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2001). The

public library service: IFLA/UNESCO guidelines for development.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2007). 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s to babies and toddlers.

Stuart. A. P. Murray(2009), *The Library: An illustrated history.* 윤영애 역(2012). 도서관의 탄생. 서울: 예경.

<신문자료>

광주드림. "동물원 22개 불구 설립·운영법조차 없어" 2013년 9월 24일자. www.gjdream.com에서 발췌(검색일: 2013년 11월 14일)

의양신문.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관련법을 제정하라!" 2012년 6월 26일자. www.uynews.net에서 발췌(검색일: 2013년 11월 14일)

<참고 웹사이트>

경기도 어린이박물관: http://www.gcmuseum.or.kr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http://www.libsta.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홈페이지 http://www.kidsnfm.go.kr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cy.go.kr

미국 브루클린 어린이박물관: http://www.brooklynkids.org

서울특별시 서울의 공원: http://parks.seoul.go.kr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http://rcps.egov.go.kr:8081/jsp/stat

일본 키즈 플라자 오사카: http://www.kidsplaza.or.jp

책읽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 http://www.bookreader.or.kr

프랑스 퐁피두센터: http://www.centrepompidou.fr

Abstract

The Usage Status of Cultural Infrastructure for Infant and Young Children and its Support Policies

Yun-Jin Lee Jeong-Won Lee Ja Yeun Koo

In the present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d whether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usage of cultural infrastructure for infant and young children by income levels and according to the results suggest a few feasible supportive policies that will increase the usage. Thus one thousand parents of infants or young children and five hundred directors of childcare centers/kindergartens were surveyed. In order to analyze the difference in usage according to income levels, low income families were over sampled. The final subjects were 782 families with an average gross income and 218 families with a low level of gross income. The results of the parent survey are as follows. First, average income parents and children visited more frequently more consumptive cultural facilities such as theaters and amusement parks rather than libraries, museums or galleries. Secondly, parents and children of families with low income used libraries, museums and galleries less frequently than families with an average income. During the past year, the number of visits of infants and young children to libraries, museums or galleries was once at the least to 2~5 times which is not considered frequent. Some of the reasons for being unable to use these facilities were 'the young age of the child', 'no cultural facilites in the vicinity', 'not feeling the necessity to use'. Regardless of income levels, visiting playgrounds started at the earliest age (before age 1: 73.6%) and was the most frequent (more than 4 times per month: 77.4%), being the most representative children's facility. Parents expected for a children's library near their neighborhood the most, and followed by children's museum and aquarium/zoo/botanical garden. Furthermore, parents desired their children's

childcare centers/kindergartens to frequently visit these facilities.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the survey of directors. The most common facility in the vicinity of childcare centers/kindergartens were children's playgrounds. Information on the facilities the centers were planning to visit was usually collected through the websites of these facilities. The main reason for not being able to use these facilities was 'the absence of nearby facilities'. The directors of big city centers requested for 'the diversity of children's programs' whereas middle/small city and small town centers for 'the provision of more cultural facilities'. The most desired facility in the vacinity of these centers were children's libraries as did the parents.

On the grounds of these results, the present study suggests the promotion of and expansion of current facilities, an increase in new facilities, expansion of subsidies for low income families, and the provision of larger numbers of mobile facilities for families. As for child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provision of subsidies for group visits of these facilities,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programs, and the establishment of a partnership between childcare centers/kindergartens and cultural facilities are a few of the suggestions. Lastly, the provision of ordinances allowing the establishments of diverse cultural infrastructure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and the establishment of a infant and young children's department is proposed.

부 록

부록 1. 실태조사 질문지(부모용)

부록 2. 실태조사 질문지(기관용)

부록 3. 현장전문가 질문지

부록 4. 심층면담 질문지(부모용)

부록 5. 시도별 문화인프라 시설 현황

부록 6. 가구 표본추출

부록 1. 실태조사 질문지(부모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론조사전문기관 현대리서치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면접원 ○○○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육아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는 **「영유아 문화인프라 이용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전국의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문화시설 이용 실태와 지원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에는 절대로 옳은 답이나 틀린 답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충분히 생각하신 후,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설문 면접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귀하가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①, ②항**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결과는 연구 목적 외에 다른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주관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정책연구실**
조사대행기관 : **㈜현대리서치연구소**

담당연구원 구자연
담당연구원 오탁경
실사감독원 추아름
전 화 02-3218-9662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SQ1. 귀댁 또는 귀하께서 현재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모두 말씀해 주세요.

☐1) 장애인활동 지원 ☐2) 직업재활 지원 ☐3) 기초생활수급 지원
☐4) 차상위계층 지원 ☐5) 국가유공자 지원 ☐6)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7) 해당사항 없음

SQ1. 귀하의 총 자녀수는 몇 명입니까? (☞ 자녀가 없을 시, 면접중단) ☐ 명

SQ2. 귀하의 자녀 중 영유아(만0~5세) 자녀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 입니까? (☞ 영유아 자녀가 없을 시, 면접중단) ☐ 명

SQ3. 영유아 자녀 중, 첫째 자녀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 세

SQ4. 영유아 자녀 중, 첫째 자녀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1) 남아 2) 여아

☞ 응답자 분류

		응답란
성 별	1) 남성 2) 여성	
지 역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지역규모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군지역(읍/면)	
응답자 주소	_____(시/도) _____(군/구) _____(읍/면/동) 상세주소	

I 문화시설 이용 실태

문1. 다음 문항부터는 <u>귀댁의 영유아 자녀 중 첫째 자녀를 기준</u>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귀댁의 해당 자녀가 <u>출생 후 지금까지</u> 이용한 문화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 기관에서 시설이용 경험 제외 문화시설 종류	1-1. 이용 여부 ① 이용함 → ② 이용하지 않음 ↓	1-2. 최초 이용 시기 만___세 부터	1-3. 최초 인지 경로 ① 지인소개(또래친구의 부모, 친구 등) ② 지자체 홍보(지역신문, 주민자치센터 게시판, 지자체 홈페이지 등) ③ 인터넷 카페 또는 블로그 ④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소개 또는 현장 학습 활동을 통해 ※ 기관 :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대상 학원 등 반일제 학원 ⑤ 대중매체를 통해 (TV, 신문, 잡지, SNS, 인터넷 뉴스 등) ⑥ 집근처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됨 ⑦ 기타(기재 : _____)	1-4. 해당 문화시설 선택 시 가장 고려한 기준 ① 교통의 편의성 ② 집과의 접근성 ③ 편의시설 구비여부(예: 놀이방) ④ 비용의 적절성 ⑤ 언론보도 등을 통한 해당 문화시설 유명도 ⑥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수준 ⑦ 이용시간의 편의성 ⑧ 안전성 ⑨ 이용자의 경험담 (주변 평판) ⑩ 기타(기재 : _____)
1) 일반도서관	□1) 이용 □2) 비이용	만 세		
2) 어린이도서관	□1) 이용 □2) 비이용	만 세		
3) 일반박물관	□1) 이용 □2) 비이용	만 세		
4) 어린이박물관	□1) 이용 □2) 비이용	만 세		
5) 일반미술관	□1) 이용 □2) 비이용	만 세		
6) 어린이미술관	□1) 이용 □2) 비이용	만 세		
7) 문예회관(예술의 전당 등)	□1) 이용 □2) 비이용	만 세		
8) (집근처) 놀이터	□1) 이용 □2) 비이용	만 세		
9) 극장(영화, 연극, 뮤지컬공연장 등)	□1) 이용 □2) 비이용	만 세		
10) 놀이공원(어린이대공원 등)	□1) 이용 □2) 비이용	만 세		
11) 사설 키즈카페 (뽀로로파크, 디보빌리지 등)	□1) 이용 □2) 비이용	만 세		
12) 과학관, 천체관	□1) 이용 □2) 비이용	만 세		
13) 수족관, 동·식물원	□1) 이용 □2) 비이용	만 세		

문2. 귀댁의 영유아 자녀 중 첫째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다음은 귀댁에서 지난 1년간 영유아 자녀와 함께 이용한 문화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 기관에서 시설이용 경험 제외

문화시설 종류	2-1. 이용 여부	2-2. 미이용 이유	2-3. 이용횟수	2-4. 주된 교통수단	2-5. 이동 시간	2-6. 이용 목적	2-7. 이용 만족도	2-8. 가장 만족스러운 이유	2-9. 가장 불만족스러운 이유
	① 이용함 (☞ 문2-3으로) ② 이용하지 않음 (☞ 문2-2로)	① 근처에 이용 가능한 시설이 없어서 ② 비용 부담 때문에 ③ 시간이 없어서 ④ 이용 필요를 못 느껴서 ⑤ 시설 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⑥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⑦ 자녀가 어려서 (연령제한이 있어서) ⑧ 기타 (기재 : _____) (☞ 응답후, 문3으로)	① 1년에 1회 정도 ② 1년에 2~5회 ③ 1년에 6~12회 ④ 1개월에 2~3회 ⑤ 1개월에 4회 이상	① 도보 ② 개인차량 ③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④ 시설차량 (셔틀버스)	약 __분	① 공연, 전시, 영화 관람 ② 프로그램 참여 ③ 놀이 활동 ④ 독서 및 대출 ⑤ 전문적인 지식 습득 ⑥ 가족과 시간 향유 ⑦ 부모의 휴식 ⑧ 기타 (기재 : _____)	① 만족 (☞ 문2-8로) ② 불만족 (☞ 문2-9로)	① 교통이 편리해서 (거리상 가깝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설치) ② 영유아 자녀를 동반하기에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화장실, 수유실, 식당 등) ③ 전시나 책, 공연 프로그램 등이 자녀 연령에 적합해서 ④ 비용이 저렴해서 ⑤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전시물을 갖추고 있어서 ⑥ 아이가 흥미를 가져서/좋아해서 ⑦ 자녀뿐 아니라 가족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어서 ⑧ 기타(기재 : _____)	① 교통이 불편해서 ② 영유아 자녀를 동반하기에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화장실, 수유실, 식당, 휴식공간 등) ③ 전시나 책, 공연 프로그램 등이 자녀 연령에 적합해서 ④ 비용이 비싸서 ⑤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전시물이 단조로워서 ⑥ 이용 시간의 제약 때문에 (야간, 주말 등 개장이나 프로그램 제공을 안 함) ⑦ 아이가 지루해 해서 ⑧ 기타(기재 : _____)
1) 일반도서관									
2) 어린이도서관									
3) 일반박물관									
4) 어린이박물관									
5) 일반미술관									
6) 어린이미술관									
7) 문예회관(예술의 전당 등)									
8) (집근처) 놀이터									
9) 극장(영화, 연극, 뮤지컬공연장 등)									
10) 놀이공원(어린이대공원 등)									
11) 사설 키즈카페 (뽀로로파크, 디보빌리지 등)									
12) 과학관, 천체관									
13) 수족관, 동·식물원									

Ⅱ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문화시설 이용실태

※ 다음은 귀하의 **영유아 첫째 자녀**의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문화시설 이용 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설문지를 잘 읽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3. 귀댁의 영유아 자녀 중, 첫째 자녀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

※ 기관 : 하루 3시간 이상, 주 3회 이상 이용한 어린이집, 유치원, 유아 대상 학원(놀이학교, 영어 학원 등)만 해당이 됩니다.

1) 국·공립유치원 2) 사립유치원 3) 국·공립어린이집
4) 법인어린이집 5) 민간어린이집 6) 가정어린이집
7) 직장어린이집 8) 영유아 대상 학원 9) 미이용(☞ 문4로 이동)

문3-1. 그렇다면, 귀댁의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에서 지난 1년간 체험활동 또는 현장학습 등의 이유로 문화시설을 얼마나 자주 방문하였습니까? (집근처, 기관내 놀이터 제외) ☐

1) 1년에 1회 2) 1년에 2~3회
3) 1년에 4~5회 4) 1년에 6~12회
5) 1년에 13회 이상 6) 방문하지 않음(☞ 문4로 이동)

문3-2. 귀댁의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에서 지난 1년간 체험활동 또는 현장학습 등의 이유로 이용한 문화시설은 어디입니까? 이용한 시설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1) 일반도서관 ☐ 2) 어린이도서관
☐ 3) 일반박물관 ☐ 4) 어린이박물관
☐ 5) 일반미술관 ☐ 6) 어린이미술관
☐ 7) 문예회관(예술의 전당 등) ☐ 8) 극장(영화, 연극, 뮤지컬공연장 등)
☐ 9) 놀이공원(어린이대공원 등) ☐ 10) 사설 키즈카페
☐ 11) 과학관, 천체관 ☐ 12) 수족관, 동·식물원

문3-3. 귀댁의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에서 지난 1년간 체험활동 또는 현장학습 등의 이유로 문화시설을 방문한 경우, 1회당 평균 어느 정도의 비용(입장료, 차량비 등 제반 총 비용)을 지불하였습니까?

1) 무료이용	2) 5,000원 미만
3) 5,000원 ~10,000원 미만	4) 10,000원~15,000원 미만
5) 15,000원~20,000원 미만	6) 20,000원 이상

문3-4. 귀하는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에서 지난 1년간 문화시설의 이용에 대해 시설의 종류와 빈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 기 >

1) 너무 적음 2) 다소 적음 3) 적당함
4) 다소 많음 5) 너무 많음

	응답란
1. 문화시설 종류	
2. 문화시설 이용 빈도	

문3-5. 귀하의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에서 이용한 문화시설에 대한 정보가 가정에서 문화시설 선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습니까?

1)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2)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
3) 약간 영향을 미침	4)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침

문3-6. 귀하의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에서의 문화시설 이용에 대해 개선점이 있다면, 다음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1) 문화시설의 다양화	2) 저렴한 비용으로 문화시설 체험
3) 문화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	4) 문화시설 방문 시 부모 참여 확대
5) 문화시설 이용 시 부모 의견 참조	6) 문화시설 체험 횟수 증가

7) 지역에서 이용이 어려운 문화시설 방문 추진
8) 이동박물관·이동도서관 등 이동식 문화 서비스를 기관에서 실시
9)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Ⅲ 부모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

※ 다음은 귀하의 문화시설 이용 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4. 귀하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과 경험 정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4-1. 이용 경험	4-2. 최초 이용 시기	4-3. 이용 경험 정도
	① 있음 → ② 없음 ↓	① 영유아기 ② 초·중·고 시기 ③ 고교 졸업 이후 ④ 잘 모름	① 매우 적음 ② 적은 편 ③ 많은 편 ④ 매우 많음
1) 도서관			
2) 박물관			
3) 미술관			
4) 놀이공원			
5) 극장(영화, 연극, 뮤지컬공연장 등)			

문5. 귀하께서는 동년대(동세대)와 비교해 볼 때, 문화시설 이용 경험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부족하다
2) 부족한 편이다
3) 충분하다
4) 매우 충분하다

문6. 귀하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이 자녀의 문화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영향이 없다(전혀 관계없다)
2) 영향이 없는 편이다
3)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
4)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Ⅳ 영유아기 문화시설 이용 필요성과 지원 요구

※ 다음은 영유아기 문화시설의 이용 필요성 및 정부지원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설문지를 잘 읽어 보시고, 귀하의 생각을 응답해 주십시오.

문7. 귀하는 영유아기에 문화시설 이용 경험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중요하다 (☞ 문7-1로 이동)　　2) 중요하지 않다 (☞ 문8로 이동)

문7-1. 영유아기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1) 아동의 창의성 개발을 위해　　2)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을 위해
3) 아동의 인지(지능) 발달을 위해　　4) 아동의 신체 발달을 위해
5) 아동의 흥미와 재능 발견에 도움이 됨　　6) 건전한 놀이 기회 제공
7) 문화생활에 어릴 때부터 익숙해지는데 도움이 됨
8)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문7-2. 영유아기의 문화시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필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1) 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접근성 제고
2) 문화시설의 지역 간 균형 배치
3) 문화시설에서의 프로그램 다양화
4)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 확충(예: 어린이도서관, 어린이박물관 등)
5) 기존 문화시설 내 어린이 전용 공간 설치(예: 일반도서관 내 영유아 열람실 등)
6) 영유아를 위한 문화시설 이용 정보 및 기회 제공
7) 문화시설 이용 시간 확대(야간·주말 시간 개장 및 프로그램 실시)
8) 영유아 자녀 동반 문화시설 이용 시 비용지원
9)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문화바우처 지급 대상 및 비용 확대
10)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문8.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에 현재 가장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화시설은 무엇입니까? 가장 필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 일반도서관
2) 어린이도서관
3) 일반박물관
4) 어린이박물관
5) 일반미술관
6) 어린이미술관
7) 문예회관(예술의 전당 등)
8) (집근처) 놀이터
9) 극장(영화, 연극, 뮤지컬공연장 등)
10) 놀이공원(어린이대공원 등)
11) 사설 키즈카페
12) 과학관, 천체관
13) 수족관, 동·식물원
14) 기타 (기재 : _____)

V 응답자 일반특성

※ 다음은 본인 및 배우자, 가구에 대해 여쭤 보겠습니다.

	본 인	배우자
DQ1. (만)연령	만 [ ] 세	만 [ ] 세
DQ2. 최종학력	[ ]	[ ]
<DQ2. 보기>	1) 고졸 이하 2) 전문(2~3년)대졸 3) 4년제 대졸 4) 대학원 이상 9) 비해당(부재, 사망, 이혼)	
DQ3. 직업	[ ]	[ ]
<DQ3. 보기>	1) 자영업 2) 전업주부 3) 판매/영업/서비스직 4) 생산/기능직 5) 사무/관리/전문직 6) 농/임/어업 7) 무직 8) 기타 9) 비해당(부재, 사망, 이혼)	
DQ4. 영유아기에 살았던 곳	[ ]	[ ]
<DQ4. 보기>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읍면지역	

DQ5. 귀댁의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 입니까? (세후 기준) ☐

※ 근로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한 금액

1) 100만원 미만
2)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3)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4)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5)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6)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7) 600만원 이상

DQ6. 귀댁의 영유아 자녀의 주양육자는 누구입니까? ☐

1) 어머니
2) 아버지
3) 조부모
4) 기타 친인척
5) 비혈연 개인대리양육자
6) 기타 (기재 : _____)

DQ7. 귀댁은 귀하를 포함하여 몇 명이 함께 살고 있습니까? ☐ 명

DQ8. 귀댁의 가족 유형은 어떻게 되십니까? ☐

1) 조부모+부모+자녀
2) 조부모+한부모+자녀
3) 한 조부모+부모+자녀
4) 한 조부모+한부모+자녀
5) 부부+자녀
6) 어머니 한부모+자녀
7) 아버지 한부모+자녀

DQ9. 귀댁의 영유아 자녀가 이용하는 국가지원서비스사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1) 지역아동센터
2) 드림스타트센터
3) 위스타트
4) 교육복지투자사업서비스
5) 해당사항 없음

☞ **설문종료 후 기입할 것**

응답자 성명		**연락처**	( ) - ( ) -( )
면접 상황	**면접일시**	월 일 (오전/오후) 시 분 ~ 시 분 (약 ___분간)	
	면접원 성명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부록 2. 실태조사 질문지(기관용)

영유아 문화인프라 이용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ID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론조사전문기관 현대리서치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면접원 ○○○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육아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는 **「영유아 문화인프라 이용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님을 대상으로 기관에서의 영유아들의 문화시설 이용 실태와 지원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에는 절대로 옳은 답이나 틀린 답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충분히 생각하신 후,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귀하가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①, ②항**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결과는 연구 목적 외에 다른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주관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정책연구실**
조사대행기관 : ㈜**현대리서치연구소**

담당연구원 구자연
담당연구원 오탁경
실사감독원 추아름
전 화 02-3218-9662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관의 간략한 사항을 기록해 주십시오.

DQ1. 기 관 명			연 락 처		
DQ2. 기관형태	1) 어린이집 (☞ DQ3으로) 2) 유치원 (☞ DQ4로)				응답란
DQ3. 어린이집 유형	1) 국·공립 2) 사회복지법인 3) 법인·단체 등 4) 가정 5) 민간				응답란
DQ4. 유치원 유형	1) 국·공립 2) 사립				응답란
DQ5. 시설규모	1) 정원 [ ] 명, 2) 현원 [ ] 명				
DQ6. 기관 주소	시/도	군/구	읍/면/동	상세주소	
DQ7. 지역 구분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읍면지역				응답란

I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문화시설 이용실태

※ 다음은 귀원에서 현장학습 또는 체험활동 등의 목적으로 문화시설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설문지를 잘 읽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1. 다음 보기 중, 귀원이 있는 지역에 위치한(도보 15~20분 이내) 문화시설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1) 일반도서관
- ☐ 2) 어린이도서관
- ☐ 3) 일반박물관
- ☐ 4) 어린이박물관
- ☐ 5) 일반미술관
- ☐ 6) 어린이미술관
- ☐ 7) 문예회관(예술의 전당 등)
- ☐ 8) 기관근처 놀이터
- ☐ 9) 극장(영화, 연극, 뮤지컬공연장)
- ☐ 10) 놀이공원(어린이 대공원 등)
- ☐ 10) 사설 키즈카페(뽀로로파크, 디보빌리지 등)
- ☐ 11) 과학관, 천체관
- ☐ 12) 수족관, 동·식물원

문2. 귀원에서는 문화시설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으십니까? ☐

1) 지인을 통해
2) TV/라디오 방송을 통해
3) 인터넷 상의 해당 웹사이트 및 포털사이트를 통해
4)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 커뮤니티를 통해
5) 트위터,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6) 신문, 잡지, 전문서적 등을 통해
7) 안내문(현수막, 간판,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8) 기타 (구체적으로 : ☐)

문3. 귀원에서 체험활동 및 현장학습을 위해 문화시설 방문이 어렵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1) 문화시설에 대한 정보 부족
2) 접근이 용이한 인근지역에 문화시설 부재
3)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족
4) 체험 학습비 부담
5) 위생상태 불량 및 안전사고 등의 위험성
6) 기관 소유차량이 없어서
7) 기타 (구체적으로 : ☐)
8) 어려움 없음

Ⅱ 영유아 문화시설 이용에 대한 필요성

※ 다음은 기관에서의 문화시설 이용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설문지를 잘 읽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4. 귀하는 다음의 문화시설 중 영유아들의 심신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위해 가장 필요한 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1) 일반도서관 2) 어린이 도시관 3) 일반박물관
4) 어린이박물관 5) 일반미술관 6) 어린이미술관
7) 문예회관(예술의 전당 등) 8) 기관근처 놀이터 9) 극장(영화, 연극, 뮤지컬공연장 등)
10) 놀이공원(어린이대공원 등) 11) 사설 키즈카페 12) 과학관, 천체관
13) 수족관, 동·식물원

문5. 귀하는 영유아기에 문화시설 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
3) 필요하다 (☞ 문 5-1로 이동) 4) 매우 필요하다 (☞ 문 5-1로 이동)

문5-1. 귀하께서는 영유아기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1) 창의성 개발을 위해 2) 사회·정서발달을 위해 3) 인지발달을 위해
4) 신체발달을 위해 5) 흥미와 재능 발견을 위해
6) 건전한 놀이기회 제공을 위해 7) 문화생활의 일상화를 위해

문6. 귀원에서 체험활동 및 현장학습을 위해 문화시설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1) 접근의 용이성/교통의 편의성
2)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전시·공연 내용의 세분화
3) 영유아를 배려한 공간 구성 및 이용의 편리성 제고
4) 문화시설 내의 영유아 활동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
5) 문화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홍보)
6) 교육자료 인쇄물 제공
7) 기타 (구체적으로 : [ ])

Ⅲ 영유아 문화시설 이용 정책

문7. 영유아기의 문화시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1) 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접근성 제고
2) 문화시설의 지역 간 균형 설치
3) 문화시설의 프로그램 다양화 및 콘텐츠 개발
4)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 확충(예: 어린이도서관, 어린이박물관 등)
5) 기존 문화시설 내 어린이 전용 공간 설치(예: 일반도서관 내 영유아 열람실 등)
6) 영유아를 위한 문화시설 이용 정보 및 기회 제공
7) 문화시설 이용 시간 확대(야간, 주말 시간 개장 및 프로그램 실시)
8) 기관 단체 이용 시 비용 및 인력 지원
9) 현재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문화바우처의 지급 대상 및 비용 확대
10) 기타 (구체적으로 : [ ])

문8. 귀원이 소재한 지역에 현재 가장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문화시설은 무엇입니까? 필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1) 일반도서관 2) 어린이도시관 3) 일반박물관
4) 어린이박물관 5) 일반미술관 6) 어린이미술관
7) 문예회관(예술의 전당 등) 8) 기관근처 놀이터 9) 극장(영화, 연극, 뮤지컬공연장 등)
10) 놀이공원(어린이대공원 등) 11) 사설 키즈카페 12) 과학관, 천체관
13) 수족관, 동·식물원

문9. 정부는 다음과 같은 문화예술교육사 파견 정책을 확대시행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문화교육예술교육사를 파견할 예정입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설명 이전에 문화예술교육사 파견 정책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 ]

※ 문화예술교육사
- 목적 :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및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 자격요건 : 국가자격증 1·2급을 발급 받은 예술강사
- 역할 :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 기관내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도(초·중·고 학교에 파견)
- 국정과제(새정부) 계획안 :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확대 실시하여 2014년까지 1,300개소에 배치할 계획을 수립함

1) 예 2) 아니오

문10. 귀하께서는 문화예술교육사 파견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영유아의 문화예술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영유아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3) 잘 모르겠다

♣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

부록 3. 현장전문가 질문지

현장전문가 질문지[23)]

※ 응답자 일반 특성

1. 귀하의 성별은?
   (1)남자 (2)여자

2. 귀하의 학력은?
   (1)고졸이하 (2)전문대졸 (3)대졸 (4)대학원졸

3. 귀하의 연령은? (만 세)

4. 관련 분야 경력은? 현 기관의 근무기간?

주요 면담 내용

[규모 및 특징]

1. 설립배경

2. 설계 시 중요하게 고려했던 부분과 참여구성원(아동전문가 참여 유무)

3. 조직 관련(총 직원 수, 자원봉사자 수)

4. 전시나 체험활동에서 중시하는 부분(가장 고려하는 사항)

23) 현장전문가 질문지는 문화시설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함.

5. 더 확대했으면 하는 공간이나 필요 공간

6. 타 기관과의 연계 현황

[이용 현황]

7. 방문객/관람객 유형
① 개인/가족, 단체 이용 비율
②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방문 현황
③ 인접지역 거주민의 방문/관람 비율
(인근지역 외 다양한 지역에서 이용하는지)

8. 주중, 주말 평균 관람객 수

9. 회차별 관람 인원을 제한하는 이유

[영유아 관련 사업]

10.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주체

11. 영유아 프로그램 참여율

12. 영유아 부모들이나 교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인기 전시실

13. 영유아 부모나 교사들의 건의 사항/요구 사항

14. 이동서비스,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어린이도서관”
① 운영방식
②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참여율
③ 성과
④ 운영 시의 어려운 점

[취약계층 관련 사업]

15. 박물관/도서관 이용 또는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

16. 취약계층 영유아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 유무
(예: 입장료 감액 등)

17. 문화시설을 지역사회와 연계시키는 방안

18. 관람료, 이용 시간, 휴관일 등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자율적 결정? 혹은 정부지침이 있는지?)

[정책 관련 의견]

19. 문화인프라 활성화를 위한 어린이박물관의 역할/운영방안

20. 어린이박물관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21. 국정과제 중 어린이집, 유치원에 문화예술교육사 파견 관련

22. 정부에 바라는 지원 정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록 4. 심층면담 질문지(부모용)

심층면담 질문지 - 부모용

※ 대상 자녀의 일반 특성

	출생 순위		
	첫째	둘째	셋째
성별			
출생연도(연령)			
기관이용 여부/ 이용하는 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영유아 대상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영유아 대상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영유아 대상 학원
주양육자			

주요 면담 내용

1. 문화시설 이용 관련

	경험 여부	방문 경로	방문 동기	접근성	이용 시기	이용 횟수	지출 비용
	① 있음 ② 없음	①지인 소개 ②신문/잡지 등 (인쇄매체) ③인터넷 블로그/카페 ④재원기관 소개 ⑤개인적 관심 ⑥기타	①관람 ②프로 그램 참여	①도보 ②대중 교통 ③자가 용	예)첫째 5세부터	예)한달에 1번	(문화시설 이용 및 기타 재반비용 포함) ①적절 ②부적절

	경험 여부	방문 경로	방문 동기	접근성	이용 시기	이용 횟수	지출 비용
박물관							
미술관							
체험문화 시설 (서울상상 나라)							
놀이공원 (놀이시설 -에버랜드, 동물원, 식물원)							
상상어린 이공원							
영유아 플라자							
유아교육 진흥원							
어린이 소극장							
키즈카페							

2. 문화시설에 계속 가게 되거나/가지 않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 문화시설 이용이나 문화시설에서의 프로그램에 대한 자녀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4. 자녀의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영유아 대상 학원 등) 관련

1) 현장학습으로 문화시설을 이용합니까?

2) 주로 가는 곳은?
3) 문화시설 관람에 대한 현장학습비용은 어느 정도 입니까?

5. 문화시설 이용 만족도

1) 이용하시는 문화시설에 만족하십니까?

2) 만족하시는 이유는?

3) 불만족하시는 이유는?

4) 평소 문화시설을 이용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6. 영유아의 문화시설 이용 확대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 부모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

1) 어린 시절 문화시설 이용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① 몇 세부터 문화시설 이용을 하셨습니까?

② 어떤 계기로 문화시설을 이용하게 되셨습니까?

③ 얼마나 자주 문화시설을 이용하셨습니까?

2) 귀하의 경험이 자녀의 문화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8. 정부에게 바라는 육아지원정책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 응답자(영유아 부모) 일반 특성

1. 귀하의 성별은?
   (1)남자 (2)여자

2. 귀하의 학력은?
   (1)고졸이하 (2)전문대졸 (3)대졸 (4)대학원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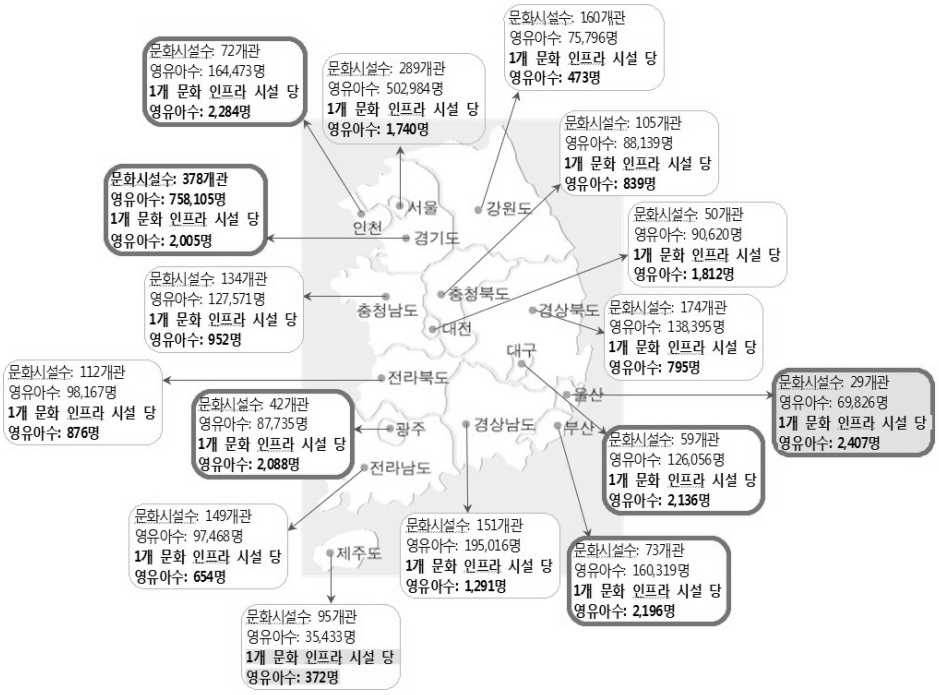
3. 귀하의 연령은? (만 세)

4. 동거가구 구성원수(본인포함) (명)

5. 본인 및 배우자 취업 여부 및 직업 (본인: 배우자:)

6. 귀하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약 원)

부록 5. 시도별 문화인프라 설치 현황



자료: 1) 시설수: 문화체육관광부(2012a). 2012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2) 영유아수(0~5세):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인구통계(rcps.egov.go.kr:8081/jsp/stat: 검색일 2013년 4월)

［부록 그림 5-1］ 시도별 문화인프라 시설 현황

부록 6. 가구 표본추출

〈부록 표 6-1〉 일반가구 표본추출

지역	영유아 모집단수	비율(%)	비례배분 표본수	제곱근비례배분 표본수
서울	414,315	17.6	140	114
부산	134,516	5.7	46	41
대구	105,712	4.5	36	37
인천	138,477	5.9	47	42
광주	73,836	3.1	25	31
대전	76,438	3.2	26	31
울산	58,533	2.5	20	27
경기	641,299	27.2	217	103
강원	63,368	2.7	21	39
충북	73,816	3.1	25	43
충남	107,881	4.3	37	48
전북	82,175	3.5	27	43
전남	80,885	3.4	28	45
경북	114,789	4.9	39	50
경남	163,495	6.9	56	57
제주	30,054	1.3	10	19
계	2,807,735	100.0	800	800

주: 세종시는 모집단 비율이 낮아, 충남에 포함함.
자료: 영유아 모집단수-주민등록인구통계(2013년 6월)

〈부록 표 6-2〉 저소득가구 표본추출

지역	기초수급 가구수	0-5세 인구	0~5세 인구 비율(%)	비례표본	유의할당
전국	850,689	31,910	100.0	200	200
서울	121,283	3,849	12.1	24	20
부산	84,211	2,618	8.2	16	20
대구	56,299	2,417	7.6	15	10
인천	40,650	1,819	5.7	11	10
광주	31,537	1,895	5.9	12	10
대전	24,798	1,222	3.8	8	10
울산	10,695	369	1.2	2	10
경기	119,953	4,347	13.6	27	30
강원	37,339	1,317	4.1	8	10

(부록 표 6-2 계속)

지역	기초수급 가구수	0-5세 인구	0~5세 인구 비율(%)	비례표본	유의할당
충북	30,334	1,144	3.6	7	10
충남	38,827	1,509	4.7	9	10
전북	56,971	2,598	8.1	16	10
전남	56,680	1,898	5.9	12	10
경북	68,284	2,319	7.3	15	10
경남	60,436	1,846	5.8	12	10
제주	12,392	743	2.3	5	10

자료: 보건복지부(201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연구보고 2013-27

영유아 문화인프라 이용실태와 지원방안

발행일 2013년 12월
발행인 이 영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7층, 8층, 10층, 11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031) 906-7735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8-89-97492-55-8 93330